

濟州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4輯

北 村 里 遺 蹟

신석기시대 바위그늘 집자리

李 清 圭

1988

濟州大學校博物館

發刊辭

北村里 유적은 제주도에서 정식 발굴조사를 통하여 新石器文化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 준 중요한 유적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막연히 다른 지방과의 비교에 의해 絶代年代를 추정하던 것과 달리 放射性炭素年代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연대를 얻어낸 것도 처음입니다.

이로써 여전히 다른 지방에 뒤떨어져 있기는 하나, 本道의 先史文化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따라서 歷史 黎明期의 濟州島 文化的 光明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北村里 유적의 발굴조사 및 금번의 보고서 발간은 지난 1979년 철기시대 郭支貝塚에 이어 두번째로 본 대학교 박물관의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조사과정과 자료 분석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고 보고서의 내용도 불충분하여 아쉬운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濟州島 역사와 문화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의 產物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관계학자들의 많은 叱正을 바랍니다.

끝으로 발굴 당시 博物館長으로 힘써 주시고 정년퇴임을 하신 沈汝澤 선생과 조사와 보고서의 실제 책임을 맡은 史學科 李清圭 교수 그리고 조사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박물관장 任孝宰 선생에게 謝意를 표하면서 發刊辭를 맺고자 합니다.

1988년 12월 일

제주대학교박물관장 姜 通 源

차 례

發刊辭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유적의 위치	7
제3장 유적의 현상과 발굴방법	7
제4장 유적의 구조와 층위	8
제5장 토 기	10
제6장 골각기와 석기	26
제7장 편 년	28
제8장 종합고찰	30
제9장 맷음말	34
ABSTRACT	35
그림 및 사진	37

그림 차례

1.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발굴 Pit 구획도
2.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평면 및 층위 단면도
3. I 기 I 식 A류 토기편(1)
4. I 기 I 식 A류 토기편(2)
5. I 기 I 식 B,C류 토기편
6. I 기 I 식 C,D,E류 토기편
7. I 기 I 식 F,G류 토기편
8. I 기 I 식 G,H류 토기 시문 상태
9. I 기 I 식 H,I류 토기편
10. I 기 I 식 I류 및 II-1식 토기편
11. I 기 II-1식 토기편
12. I 기 II-2식 토기편
13. I 기 III-1식 토기편
14. I 기 III-2, 3, 4식 토기편
15. I 기 IV식 토기 각종
16. I 기 V, VI식 및 저부편
17. I 기 VII식 토기편
18. II 기 무문 토기편
19. III 기 적갈색 무문토기편(곽지 A식)
20. I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곽지 B식)
21. 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곽지 B식)

22. III. IV기 타날무늬토기 동체부편
23. III. IV기 적갈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 및 저부편
24. I기 골각기
25. 출토 석기 각종(1)
26. 출토 석기 각종(2)
27. 출토 석기 각종(3)

사진 차례

1.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원경
2.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원경
3. 유적 발굴 광경
4. pit 발굴 상황(서쪽에서)
5. pit 발굴 상황(남서쪽 바깥에서)
6. Baulk 일부 제거후 상황(유적 동쪽 구역)
7. Baulk 일부 제거후 상황(유적 서쪽 구역)
8. 퇴적 층위의 상황
9. 최하층의 암날 점렬토기 출토상황
10.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남쪽 바깥에서)
11.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서쪽에서)
12.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동쪽에서)
13. I기 I식 A류 토기 시문 상태
14. I기 I식 B류 토기 시문 상태
15. I기 I식 C류 토기 시문 상태

16. I 기 I 식 A류 토기편(1)
17. I 기 I 식 A류 토기편(2)
18. I 기 I 식 B, C류 토기편
19. I 기 I 식 C, D류 토기편
20. I 기 I 식 E, G, I류 토기편
21. I 기 I 식 F류 토기 시문 상태
22. I 기 I 식 F류 토기편
23. I 기 I 식 H류 토기 시문 상태
24. I 기 I 식 H류 토기편
25. I 기 II-1식 토기편
26. I 기 II-2식 토기편
27. I 기 III-1, 2식 구연부 처리 상태
28. I 기 III-3식 구연부 처리 상태
29. I 기 III-1식 토기편
30. I 기 III-2, 3, 4식 토기편
31. I 기 IV식 토기 각종
32. I 기 IV식 C류 시문 상태
33. I 기 IV식 D류 시문 상태
34. I 기 IV, V식 및 저부편
35. I 기 V식 토기 표면 처리 상태
36. I 기 V식 토기편
37. II 기 무문토기편
38. III 기 적갈색 무문토기편(곽지A식)
39. I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곽지B식)

40. III, IV기 타날무늬토기 동체부편
41. III, IV기 적갈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 및 저부편
42. I기 골각기
43. 골각기 안쪽 머리부분 세부
44. 골각기 안쪽 가장자리 세부
45. 골각기 바깥쪽 세부
46. 골각기 안쪽 아래쪽 세부
47. 석기 각종(1)
48. 석기 각종(2)
49. 석기 각종(3)
50. 탄화열매
51. 탄화열매 현미경사진(20배)

제1장 머리말

제주도에서 신석기시대 문화의 존재를 처음 예고한 것은 1967년 任孝宰와 R. Pearson이 제주도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주시 아라동의 빗살무늬토기 편 1점을 채집하면서였다.¹⁾ 이에 대해 金元龍은 1편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제주 도에 본토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²⁾

〈耽羅文化史〉³⁾에 제주도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소개한 유적·유물은 전부 청동기 시대 이후의 것으로, 과거 日人们이 빗살무늬토기시대와 무문토기시대의 시대적 성격 및 그 선후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후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신석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재차 일깨워 준 것은 1973년 文基善이 금번 발굴 보고하는 北村里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점렬무늬 토기편을 채집, 정식 보고하면서였다.⁴⁾

文基善은 보고문 중에 철기시대 打撚무늬토기편을 빗살무늬토기로 혼동하기도 하였으나, 앞서의 토기편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여러 유적에서 보이는 암날 점렬무늬 토기 형식과 통하는 것으로 신석기시대 토기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鄭永和가 文基善이 金海式 打撚무늬토기를 빗살무늬토기로 혼동한 점을 들어 이 유적에 신석기시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⁵⁾

1) Im, H. J. and Pearson, R., 1970,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on Cheju Island, Korea〉,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 Ethnological Sciences*, pp. 199~203.

2) 金元龍, 1976, 〈濟州島의 先史文化와 住民〉, 《耽羅》 10, pp. 42~45.

3) 金宗業, 1986, 《耽羅文化史》, 조약돌, pp. 20, 21.

4) 文基善, 1973, 〈濟州道無文土器文化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pp. 125~138.

5) 鄭永和, 1984, 〈濟州研究의 考古와 전망: 考古學的 側面〉, 《耽羅文化》 3, pp. 13~48.

금번 濟州大學校의 발굴조사는 북촌리 유적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계기가 되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참여자인 李清圭와 康昌和는 1984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적을 답사하여, 동년 봄에 이 유적 부근이 쓰레기 매립터로서 완전 매몰의 위기에 있음을 목격하고, 이의 시정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文교수가 채집한 것과 같은 押捺點列무늬토기편을 채집하고 신석기시대 유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석기시대 이후 여러 시대에 걸쳐 문화층이 퇴적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중첩이 이 유적의 시대성을 판단하는데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발굴조사는 1986년 5월 27일에서 6월 10일까지는 15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단장 : 前 濟州大學校 博物館長 沈汝澤 教授

책임조사원 : 濟州大學校 史學科 李清圭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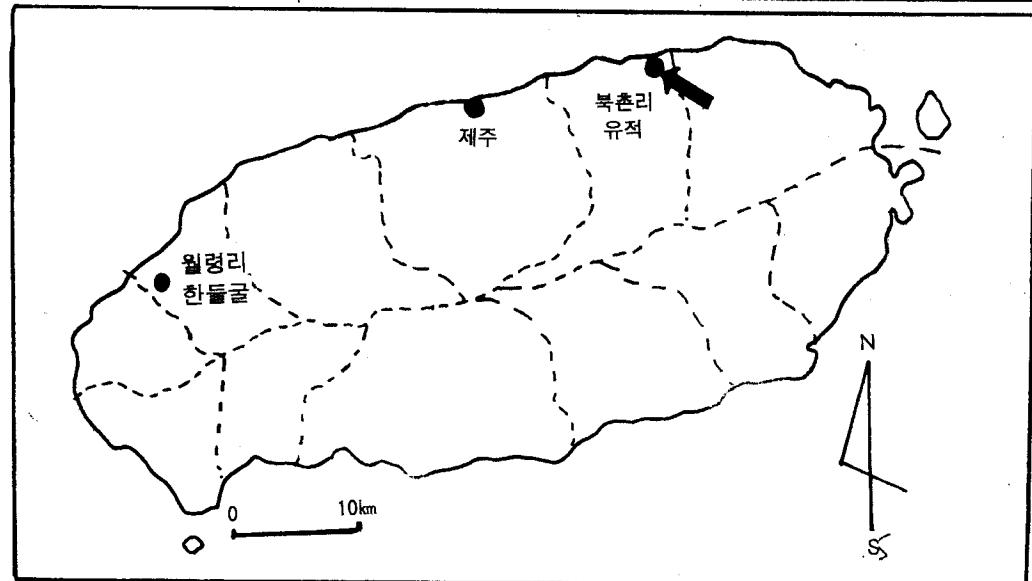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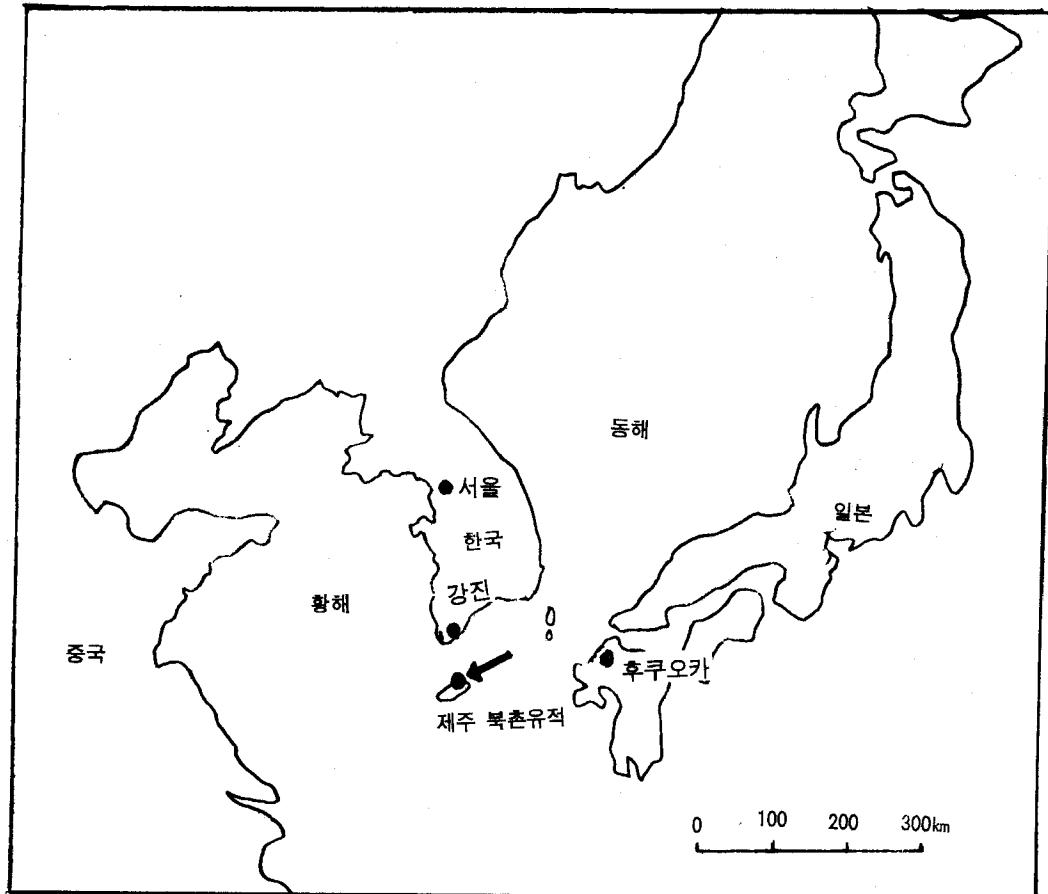
보조조사원 : 濟州大學校 史學科 學生

康昌和, 康在吉, 玄文弼, 高才元, 張齊根, 金賢哲, 姜成鎬, 梁允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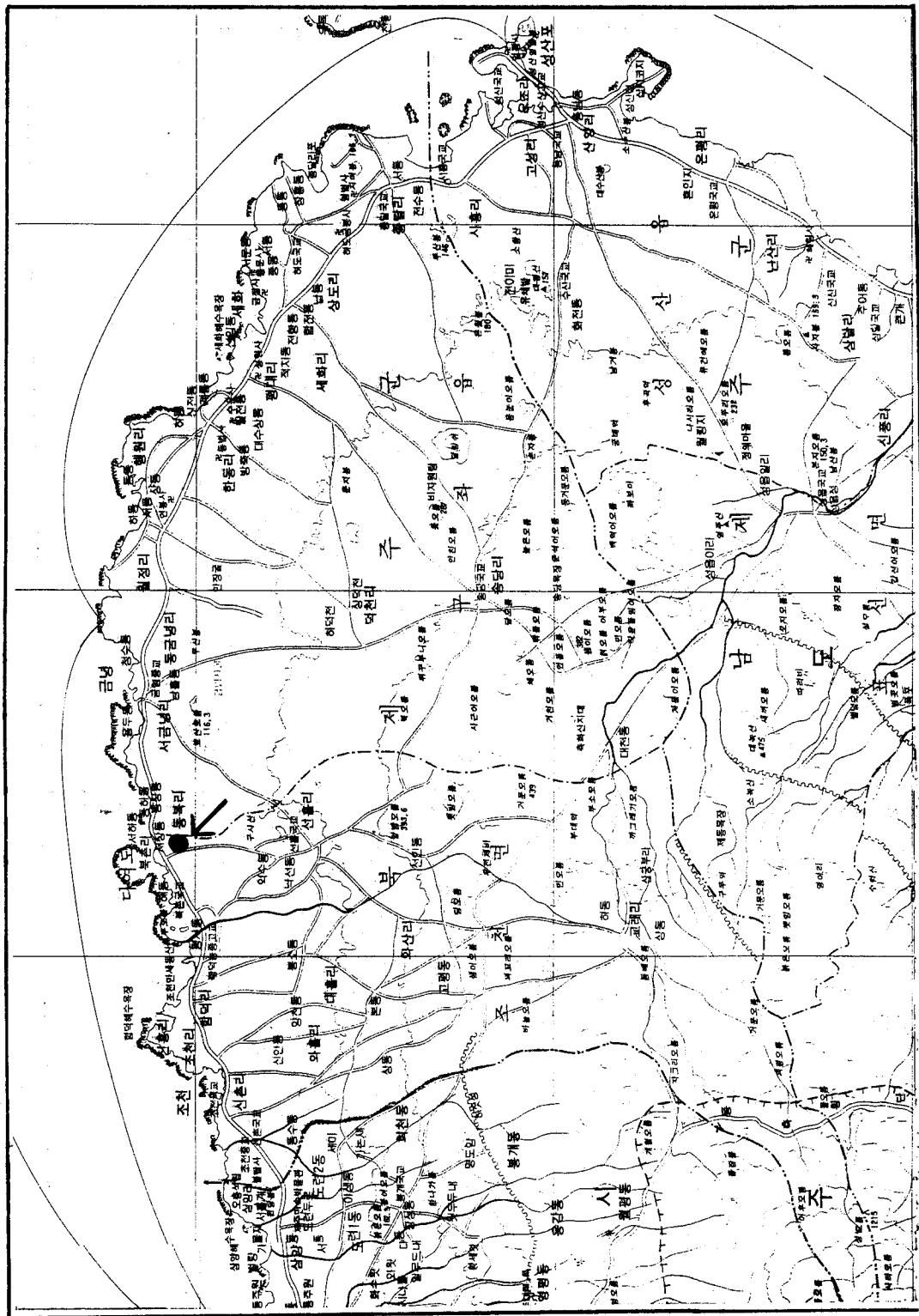
발굴조사후 유물 정리 및 실측에는 康昌和, 高才元, 유물사진은 제주대 박물관의 姜彰彥이 수고하였으며 원고 작성 및 편집은 李清圭가 담당하였다.

이 밖에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은 서울대 任孝宰 교수의 도움을 입어 일본 京都產業大 山田治 교수가 수고하여 주셨는바, 이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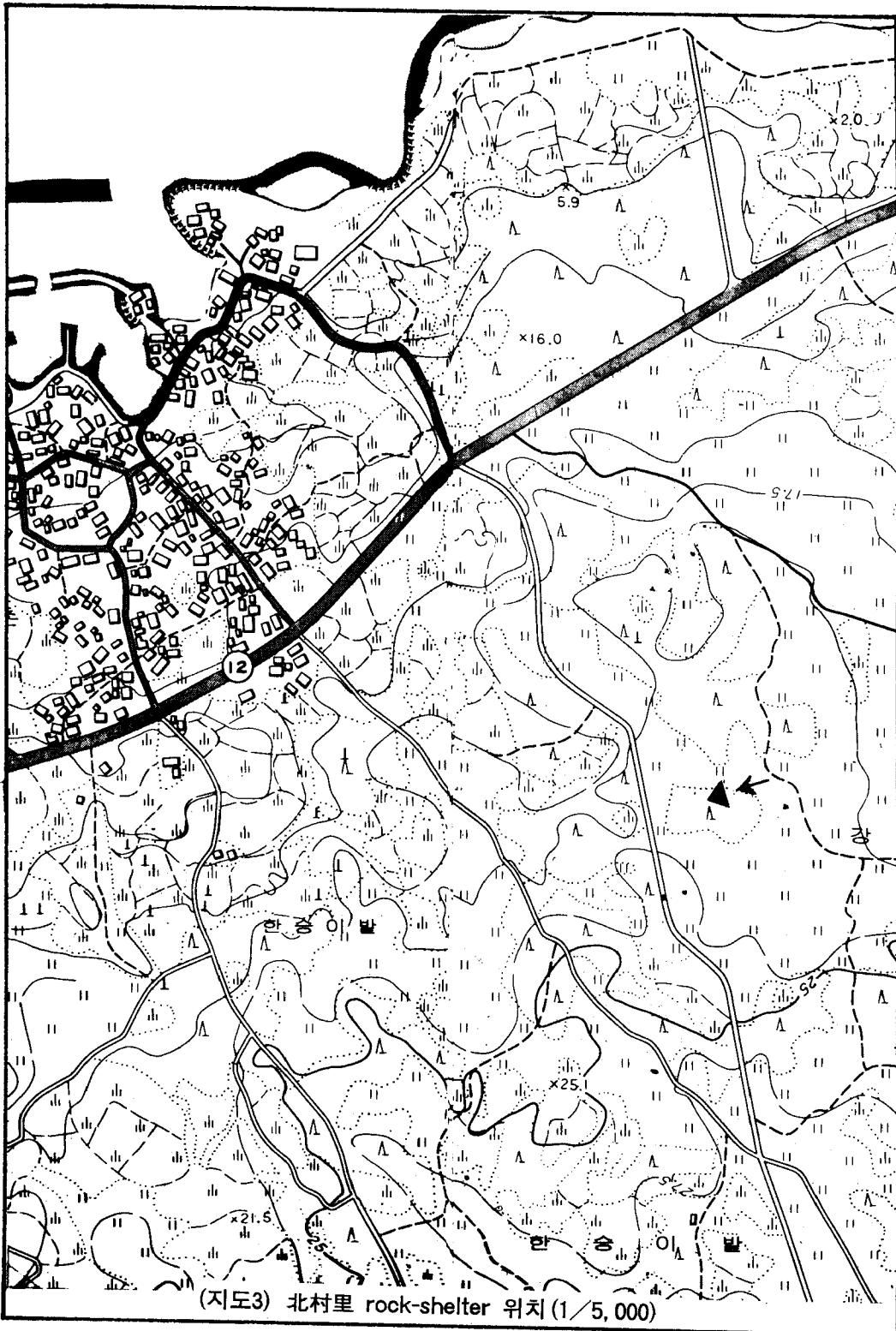
그리고, 이 보고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제약된 예산으로 발굴한 결과를 정리한 것 이므로, 발굴의 주요 목적인 신석기시대 단계의 문화내용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연 유물에 대한 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후 따로 정리하여 보고할 것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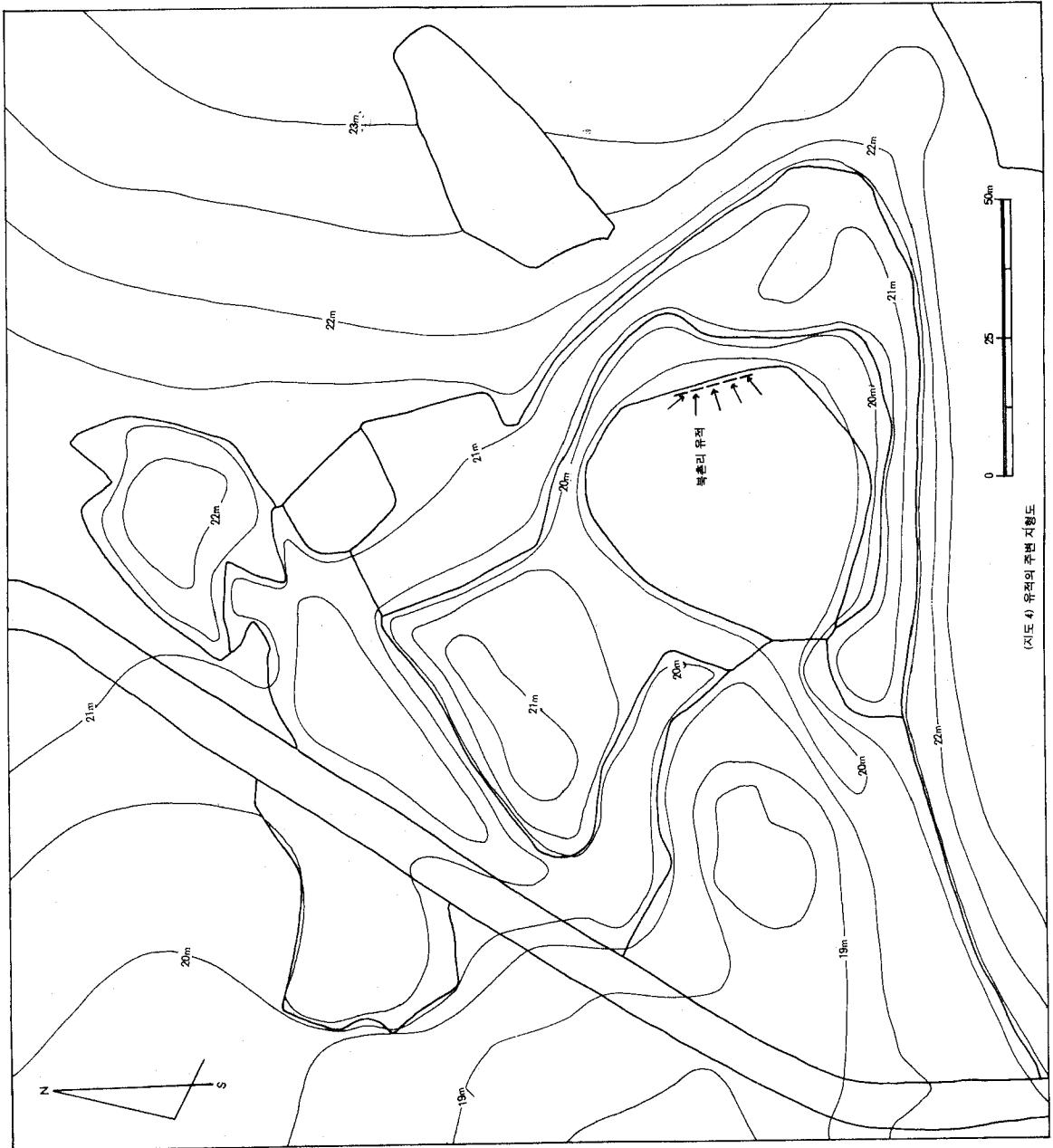
(지도 1) 북촌리 유적의 위치



(지도 2) 북춘리 유적의 위치(175, 000분의 1)



(지도 4) 유적의 주변 지형도



제2장 유적의 위치

유적은 제주도 동북 해안 지역의 북제주군 朝天邑 北村里에 있으며, 數理上의 위치로 대략 동경 126도 70분, 북위 33도 30분에 해당한다. 가까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비슷한 위도상으로 일본의 후쿠오카가 있고, 경도상으로는 전남 康津이 있다. (지도 1)

유적이 위치한 제주도 동북부 해안지역은 제주도 중에서도 가장 한반도 남해안 지방과 가깝게 마주 보는 지역이다.

교통편으로는 제주도 동부 해안 일주도로를 따라 20km 가서(제주시청을 기준) 북촌리 마을에 일단 도달한 다음, 마을의 동쪽으로 벗어나 150m 이른 점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비포장도로를 300m 올라간 도로 동편 인접한 곳에 있다. (지도 2)

마을에서 직선거리는 300m이고 당시 유적 거주인들이 어로 및 조개채취를 한 해안가에서는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유적의 주변은 해발 2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상으로 현재 소나무 및 잡목의 숲이 형성되어 있고 일부 밭으로 조성된 곳도 있다. (지도 3, 4)

제3장 유적의 현상과 발굴방법 (그림 1 : 사진1-5)

유적은 이곳 마을 사람들이 고두기 언덕이라 부르며, 용암 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최대 직경 50m의 핵몰지가 형성된 동북쪽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발굴 조사 당시는 유적의 입구 가까이까지 대부분이 쓰레기로 매립되어서 유적의 주변 原狀이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다.

유적은 절벽 아래가 움푹 꺼져 들어가, 눈비를 피할 수 있게끔 된 이른바 rock-shelter 또는 바위그늘 집자리이다. 주거지의 정면 길이는 11m, 입구에서 안쪽 까지의 거리는 3m로 입구는 정남쪽으로 트였다.

발굴 착수 당시 유적의 바닥면은 조개 및 동물뼈가 혼입된 퇴적층이 쌓여, 비교적 평坦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유적 동쪽 및 안쪽으로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지피거나 일시적으로 기거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발굴은 퇴적층을 1.5m×1.5m의 방형 팟트와 0.5m의 둑으로 구성된 바둑판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팟트의 구획방향은 바위그늘의 방향에 맞추었으며, 각 팟트 및 각 충위별로 유물의 출토 양상을 확인하였다.

단 앞서도 말했듯이 퇴적층의 휘손 상태가 지극히 심할 뿐만 아니라 퇴적층의 두께가 워낙 얕아 정확한 소속 충위가 확인되지 않는 토기편 등의 유물도 상당량이 있었으며, 이것이 이 보고서에 토기 등의 유물을 충위별로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술하지 않은 주요 이유가 된다.

제4장 유적의 구조와 충위(그림 4: 사진 6-12)

앞서도 밝혔듯이 이 바위그늘의 정면 길이는 11m,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폭은 3m 내외이고 맨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m로서, 정면이 햇빛이 바로 들어 오는 정남쪽으로 트였다.

서쪽 바닥면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한 암반으로 평坦면을 이룬 반면, 동쪽은 원래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잔돌층 위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고르게 다듬었다. 이렇게 고른 동쪽의 잡석층 위 여러 지점에 검정 재가 있었으며, 탄화된 열매 씨앗등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이 구역에서 부엌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 모습은 대체로 유적의 한쪽 절벽이 완만하게 굽어진 것을 따라, 초승달 모양을 이루며, 대략 환산된 유적의 면적은 30㎡이다.

발굴에 의해 확인된 바닥층에서 쌓인 퇴적 층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유적의 동서 및 남북 중심축을 중심으로, 유적의 전체적 수준에서 기술한 것으로 각 퍽트마다 개별적 양상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1) 제1층

표토층으로 지하 15-25cm까지의 조개 및 동물뼈의 파편이 비교적 많은 양이 섞인 흑갈색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다.

2) 제2층

갈색 사질토층으로 표토 아래 30-45cm까지로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이고 郭支폐층에서 출토된 바 있는 郭支 B式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3) 제3층

표토아래 35-55cm로서 다소 밝은 흑갈색 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적은 양이 섞여 있으며, 주로 郭支 A式 토기가 출토되었다.

4) 제4층

표토 아래 52-72cm의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서 조개편이 3층보다 많아진다. 이 층 위에서 인공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골아가리 무문토기편이 이 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제5층

맨 아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화석처럼 서로 엉켜 붙었다.

표토 아래 67-83cm까지이고 신석기시대 유물이 원상대로 출토되며 바로 밀바닥으로
는 신석기시대 당시의 주거 바닥으로 이어진다.

이 층위에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시료의 조개편 덩어리를 채취하였다.

제5장 토 기

이 유적에서 출토하는 인공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기편이며, 상당량이
교란된 층위에서 확인되었지만, 토기 형식과 原狀의 출토 층위에 따라 여러 시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남한지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대구분의 체계로 볼 때,^V 북촌리 출토 토기는

- 1) 신석기시대 2) 청동기시대 3) 原三國時代, 혹은 삼국시대 전기 4) 삼국시대 후기
혹은 통일 신라시대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대 소속의 대응은 현단계의 제주도 선사문화 연구성과로서 명
확하게 단정짓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李清圭가 “濟州島 土
器에 대한 一考察”⁶⁾에서 설정한 제주도 지역의 시기구분 체계에 따라 이 유적 출토
토기를 기술하고자 하는 바,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I기 : 대체로 신석기시대 후기 혹은 말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압날 점렬
무늬토기 단계로 남해안지방의 半卵形 二重口緣土器도 공반
- 2) II기 : 대체로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남한지방의 공렬토기가 출토하는 단계
- 3) III기 : 대체적으로 남한지방의 原三國時代, 혹은 삼국시대 전기로 김해식 타날
무늬토기와 郭支 A式 外反口緣 무문토기가 출토하는 단계
- 4) IV기 : 대체적으로 남한 지방의 삼국시대 후기 혹은 통일신라기에 해당된다고

6) 李清圭, 1987, 〈濟州島 土器에 대한 一考察〉, 〈耽羅文化〉 6, pp. 117~139.

추정되는 단계로 郭支 B式 深鉢形 토기 및 陶質土器가 출토하는 단계.

제1절 Ⅰ기

I 기에 속하는 토기의 대부분은 전체 器形을 복원할 수 있는 예가 거의 없이 단정
지을 수 없으나, 2점의 확인된 바닥편이 전부 圓底인 점으로 미루어 경남 해안지방
말기 신석기시대 토기의 동일한 圓底의 다소 두툼한 半卵形 혹은 포탄형으로 이해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口緣部가 끝이 살짝 外反되고 있다. 큰 그릇인 경우는 脊體部
로 갈수록 배가 불러지며, 중간형은 직립에서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가장 작은 그릇은 동체로 갈수록 보다 급격히 좁아들어 楠形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3종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름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大形은
25cm 이상 30cm 미만이고, 中形은 20-25cm, 小形은 15-20cm이다.

그릇 두께는 대부분 0.6cm 내외로 얇은 것은 0.4cm의 것도 있다. 胎土에 섞인 모래
알갱이는 작은 것은 0.1-0.2cm에서 큰 것은 0.3-0.5cm의 것이 있다.

토기 색깔은 대부분 적갈색으로 간혹 흑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整面수법으로
그릇 안쪽에 조각날로 정면한 粗痕文이 대부분의 토기편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토기
의 형식은 구연부 장식의 수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연부에 일정의
원형, 삼각형의 끝을 가진 施文具를 눌러 2-4열의 점렬문을 장식한 암날 점렬무늬토
기, 둘째는 띠엄띄엄 일정한 간격으로 시문구를 눌러 파내듯 일렬로 무늬를 장식한
토기, 세째는 점토띠를 한겹 붙인 이중구연토기, 네째는 위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대체로 남해안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기타의 각종 장식의 토기, 그리고 다섯째는 민

무늬의 토기이다.

이를 편의상 각각 I, II, III, IV, V식이라 하고 이에 따라 출토 토기의 내용을 기술하겠다.

1. I식 토기

구연부 무늬 형태는 施文具의 끝 모습과 누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늬 형태에 따라 I식 토기는 여러 종류로 細分된다. 아울러 그릇 형태 및 표면의 整面手法 및 胎土 등에 따라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A류

[A-1류] (그림 3-①~③, 4-①~③, ⑥, ⑦, ⑨ 사진 16, 17-①~⑥)

살짝 外反된 口緣이 팽창하면서 脊體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구연부에 3열의 삼각 점렬무늬가 시문되었다. 삼각끝의 시문구를 세로로 비스듬히 눌러 이등변 삼각형 끝이 윗쪽으로 가게 하였다.

입지름은 25-28cm로서, 곁면에 훑듯이 살짝 整面한 흔적이 희미하게 보이고 안쪽에는 평행 조흔무늬가 있다. 기벽의 두께는 0.6cm내외로서,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것으로 간간히 현무암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일부 흑갈색 반점이 있으나 명갈색을 띠고 있다.

[A-2류] (그림 4-④⑤ : 사진 17-⑦⑧)

거의 직립한 구연이 맷밋하게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구연부에 4열의 삼각 점렬무늬가 시문되었다. 삼각끝의 시문구를 세로로 비스듬히 눌러 위쪽의 삼각 부분이

보다 많이 놀린 것이다.

입지름은 18.5-21cm로 中形에 속하며 겉과 안쪽 면에 정면 혼적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것으로 자잘한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밝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의 두께는 0.6cm.

2) B류

[B-1류] (그림 5-①~④ : 사진 18-①~④)

입술면이 평탄하고 거의 직립한 구연에 맷밋하게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구연부에 2열의 삼각첨렬무늬가 시문되었다. 삼각꼴의 시문구를 가로로 비스듬히 눌러 원쪽으로 이등변 삼각형 끝이 향하게 하였다.

입지름은 22-28cm로서, 겉면에 정면한 혼적은 보이지 않으나 안쪽에 평행 조흔무늬가 확인된다. 器壁 두께는 0.7-0.9cm이고, 태토는 다소 모래 알갱이가 많이 혼입된 사질점토로서 적갈색 및 흑갈색을 띠고 있다.

[B-2] (그림 5-⑤ : 사진 18-⑤)

직립구연에 맷밋하게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구연부에 1렬의 삼각첨렬무늬가 시문되었다. 시문구의 형태 및 시문 방향은 위와 같다.

입지름은 24cm로서 中形에 속하며, 표면에 물손질하였을 뿐 별다른 정면 혼적이 보이지 않는다. 기벽 두께는 0.6cm이고, 태토는 짙은 모래 알갱이가 섞여지고 흑갈색을 띠고 있다.

3) C류

[C-1류] (그림 6-①~③ : 사진 19-①~③)

앞서의 삼각첨렬무늬와 달리 무늬 형태가 정연하지 못하고, 살짝 외반된 구연이 측약되면서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구연부에 들쑥날쑥 3렬의 유사 삼각첨렬무늬가 시문된 종류이다. 시문구의 방향은 A와 같으나 누른 정도가 덜하다. 표면에 별 다른 정면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기벽의 두께는 0.5-0.6cm, 태토는 모래가 많이 혼입된 사질점토로서 황갈색을 띠고 있다. 복원 입지름은 18cm 내외이다.

[C-2류] (그림 5-⑥⑦ : 사진 18-⑥⑦)

전부 입술부분이 없는 구연부 가까운 쪽의 파편으로 소형화된 삼각 첨렬무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문되었다.

그릇 곁면에 살짝 훑은 정면 흔적이, 안쪽에는 粗痕무늬가 있다. 그릇 두께는 0.5cm로 얇고 태토는 비교적 고운 모래가 섞인 것으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C-3류] (그림 4-⑧ : 사진 17-⑨)

입술 부분이 없는 구연부편으로 삼각첨렬무늬가 앞서의 예와 달리 다소 간격을 띠고 시문되어 있다. 그릇 곁면에 살짝 훑은 정면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릇 두께는 0.6cm이고, 태토는 모래가 섞인 것으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작은 파편이어서 器形을 확인할 수가 없다.

4) D류

[D-1류] (그림 6-④~⑥, 7-②③ : 사진 19-④~⑧)

기형으로 볼 때 구연부가 살짝 외반되고 鉢形에 가까운 것과 직립구연에 深鉢形에 가까운 것 두 종류가 있지만, 똑같이 원형 막대끝의 시문구를 수직으로 눌러 만든 원형첨렬무늬가 4열 구연부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릇 안쪽 및 곁면에 아무런 정면수법이 보이지 않으며 두께는 0.6cm이고 복원된 입지름은 20-21cm, 태토는 자잘한 모래가 섞인 점토로 적갈색, 흑갈색을 띤다.

(D-2류) (그림 7-① : 사진 19-⑨)

가운데가 빈 이른바 竹管文의 시문구를 수직으로 눌러 일렬의 원형 점렬무늬를 만든 것으로, 구연부가 살짝 외반되고 팽창하면서 동체로 이어져 薔形에 가깝다. 입지름은 21.6cm이며, 그릇 두께는 0.4cm로 얇은 편이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로서 그릇 곁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있을 뿐이다.

5) E류 (그림 7-④⑤ : 사진 20-①②)

살짝 외반한 구연부가 맷밋하게 동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무가지 끝같은 도구를 예각으로 비스듬히 눌러 밑등의 끝과 언저리가 닿아 만든 점렬무늬가 구연부에 2열 시문된 것이다.

입지름은 24cm로서 중형에 속하며, 태토는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칠은 갈색 및 흑갈색 점토이다. 그릇 두께는 0.6cm이고 그릇 안쪽과 곁면을 정면한 흔적이 분명치 않다.

6) F류(그림 7-⑥⑦, 8-① : 사진 20-③④, 21, 22)

직립구연부가 맷밋하게 동체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입지름이 19, 21, 24.5cm이고, 그릇 두께가 0.6cm 내외이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짙은 적갈색 점토이다.

장식무늬는 ㄷ자형의 시문구를 둔각으로 비스듬히 눌러 方形의 점렬무늬를 구연부에 일렬 시문하여 만들었다.

그릇 곁면에 비스듬히 빗질 정면한 자국이 있고, 그릇 안쪽에는 평행 조흔문이 뚜

렷하게 보이고 있다.

7) G류 (그림 9-① : 사진 20-⑤)

직립구연부가 거의 수직으로 동체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입지름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릇 두께가 0.6cm이며, 태토는 모래가 드물게 섞인 황갈색 점토이다.

C자형 시문구를 거의 수직으로 눌러 아래로 살짝 파듯 떼어 역삼각형에 가깝고 구멍이 깊은 점렬무늬를 만들었는데, 확인된 것은 3렬이나 3렬에서 잘려나갔으므로 4열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그릇 곁과 안쪽 표면에 뚜렷한 정면 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8) H류 (그림 8-②, ③, 9-②~⑤ : 사진 23, 24)

직립에 거의 수직으로 동체로 이어지는 구연부편으로 1점은 입술부분이 잘려 나갔다. 입지름은 19.4, 22, 26cm 등이고, 그릇 두께는 0.5-0.6cm이다.

모두 굽은 모래알이 다소 섞인 적갈색 점토로서 일부 흑색 반점이 있다.

무늬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대꼬챙이로 살짝 후벼 내듯 파낸 것으로, 3렬로 정형화되었다.

또한 그릇 곁면에 조갯날로 비스듬히 또는 가로로 훑듯이 쓸어낸 정면 수법이 특징이다. 안쪽에는 곁쪽보다 다소 폭이 넓은 이빨을 가진 조갯날의 조흔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다.

9) I류 (그림 9-⑥, 10-① : 사진 20-⑥, ⑦)

외반하고 다소 불룩해지면서 동체로 이어지는 구연부편으로, 입지름 19cm, 그릇

두께 0.4cm로서 얇고 소형에 가깝다.

태토는 모래가 드물고 정선이 된 적갈색 점토이다.

무늬는 끝 모양이 정연하지 않은 뾰족한 시문구를 수직으로 눌러 만든 것으로 4열이다. 그릇 안쪽 및 곁쪽에 별다른 정면수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Ⅱ식 토기

구연부 장식에 있어 시문구를 일단 힘있게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훑거나 후벼내는 방식으로 빗방울 비슷한 모양을 만든 것으로 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띠고 일렬로 시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시문구의 형태로 보아 두 종류가 있다.

[Ⅱ-1류] (그림 10-②, 11-①~③ : 사진 25)

무늬가 장방형으로 뚜렷한 것으로 살짝 외반되고 다소 배불러 동체로 이어지는 구연부에 입지를 32cm, 그릇 두께 0.6~0.7cm이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로 그릇 곁면에 별다른 정면 혼적이 없고 안쪽으로 정연한 평행 조흔문이 뚜렷하게 나있다.

[Ⅱ-2류] (그림 11-④, 12 : 사진 26)

무늬가 짚표 혹은 물방울 모양을 한 것으로 직립에 수직으로 동체에 이어지는 구연부편이다. 두께는 0.7cm의 두터운 것과 0.5cm의 얕은 것 두 종류로서 복원 입지를 18, 20, 22, 22.5cm 등이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이며, 그릇 곁면 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Ⅱ-1류와 달리 조흔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시문 방향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훑은 것과 아래에서 위로 훑은 것 두 방식이 있다.

3. Ⅲ식 토기

구연부에 넓적하고 얇은 점토띠를 덧붙여 보강한 이중구연의 형식인데,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Ⅲ-1류] (그림 13 : 사진 29)

외반된 구연에 동체선이 불룩하여지는 것으로 입지름 25-26cm, 그릇 두께 0.6-0.8cm이다.

태토는 모래가 많이 섞인 거칠은 점토로서 적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 곁면에 텁날 같은 조각날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뚜렷하고, 안쪽에는 평행 조흔문이 뚜렷하다.

이중 구연은 그릇 곁면을 정면한 후 덧붙였기 때문에 이중구연 자체에는 정면자국이 없다.

[Ⅲ-2] (그림 14-①~④ : 사진 30-①~④, 27)

직립에 맷밋하게 내려 간 구연부가 특징적으로 입지름이 21cm의 중형에서 32.5cm의 대형이 있고, 그릇 두께는 0.6-0.7cm이다.

태토는 모래가 덜 섞인 적갈색 점토로 정선되었으며, 앞서 Ⅲ-1류와 달리 입술면이 평평하고 폭이 넓다. 기본적인 정면수법은 Ⅲ-1류와 동일하나 한점은 이중구연이 거의 맷밋하고 조각날 정면이 이중구연에도 베풀어져 있다.

[Ⅲ-3] (그림 14-⑤~⑦ : 사진 30-⑤~⑦, 28)

앞서의 예와 달리 이중구연이 뚜렷하지 않고 동체와의 하단 접착 부위가 조잡한

것이 특징이다.

입술면도 뚜렷하지 않으며, 복원 입지름이 16.5, 24.3cm이고, 그릇의 두께는 0.6-0.7cm이다.

태토에는 모래가 많이 섞인 적갈색의 점토이며 그릇 곁쪽 및 안쪽면에 정면한 혼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Ⅲ-4] (그림 14-⑧ : 사진 30-⑧)

이중구연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부 바로 아래에 斜格子무늬가 새김수법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모래가 많이 섞인 거친 명갈색 태토에 소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태토의 두께는 0.7cm이고 표면을 정면한 혼적이 보이지 않는다.

4. IV식 토기

한 두점의 토기편만 확인된 것으로 시문수법이나 장식수법이 앞서의 유형에 들지 않은 것이다.

1) A류 (그림 15-①, ② : 사진 31-①, ②)

직립의 구연부편으로 구연 하단에 손톱모양의 시문구를 살짝 눌러 일렬의 손톱무늬를 시문하였다. 모래가 섞인 거칠은 태토에 두께 0.6cm로서 흑갈색과 적갈색을 띠고 있다.

흑갈색의 토기 안쪽에 희미한 조흔무늬가 보인다.

2) B류 (그림 15-③ : 사진 31-③)

직립구연에 5條의 多齒具를 연달아 눌러 만든 短斜線文이 5줄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새김수법의 빗살무늬토기 구연부에 볼 수 있는 형식이다.

燒成度가 비교적 낮고 표면에 정면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어두운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 두께는 0.6cm이다.

3) C류(그림 15-④, 16-④ : 사진 31-④, 32)

직립구연에 아무렇게나 죽죽 내려 그은 沈線文이 장식되어 있다. 1점은 입술부분 이 없이 동체부와 연결되는 부분의 과편으로 동체쪽이 다소 불룩하여졌다. 태토의 두께는 0.5cm이고 자잘한 모래가 섞인 밝은 적갈색의 점토로 별다른 정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4) D류 (그림 15-⑤~⑧ : 사진 31-⑥~⑧, 33)

조각날을 상호 엇갈리는 방향으로 눌러 빗살무늬 연상케하는 것으로 동체부편 2점, 구연부편 2점이다.

구연부는 거의 직립으로 그릇 두께는 0.6cm로 얇은 편이며, 모래가 다소 섞인 흑갈색 점토를 태토로 하고 있다. 별다른 정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구연부의 바로 밑 2cm 정도는 무늬가 장식이 되지 않았다.

5) E류

[E-1류] (그림 16-①, ② : 사진 31-⑨, ⑩)

직립의 구연부에 사격자 무늬를 엉성하게 살짝 긋는 수법으로 장식한 것이다. 그릇 두께는 0.6, 0.7cm로 구연부는 거의 수직으로 동체로 이어지며 태토는 모래가 다소 섞인 갈색의 점토이다.

그릇 内外面에 뚜렷한 정면 수법이 보이지 않는다.

(E-2류) (그림 16-③, ④ : 사진 34-①, ②)

동체부에 정연한 사격자무늬를 훑듯이 시문한 것이다. 그릇 두께는 0.5cm로 얇은 편이며 내외면에 아무런 정면 자국도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모래가 다소 섞인 흑갈색 점토이다.

5. V식 토기 (그림 16-⑥~⑪ 17-①~⑥ : 사진 34-⑤~⑨, 35, 36)

대체로 직립을 이룬 구연부편으로서 무늬가 장식되지 않는 민무늬 형식이다. 일부는 그릇 곁면을 비스듬히 조갯날 등으로 擦過狀으로 훑은 예도 있고, 그릇 안쪽으로 평행 조흔문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 기형을 알아볼 수 있는 구연부편은 아무런 정면자국도 없으며, 입지름 27.8 cm에 거의 수직으로 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릇 두께는 0.8cm로 두터운 편이고 태토는 다소 모래가 섞인 흑갈색 점토이다.

6. 바닥편 (그림 17-⑦, ⑧ : 사진 34-③, ④)

확인된 底部片은 2점 뿐으로 모두 둥근바닥이다.

1점은 바닥 두께가 0.8cm로 얇은 것으로 다소 자잘한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를 태토로 하고 있다.

다른 1점은 바닥두께가 다소 두터워 1.2cm이며,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를 태토로 하고 있다.

두점 다 안쪽에 조흔문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제2절 Ⅱ 기

무문토기 수점이 이 단계에 속한다. 粗質 토기를 I 식, 마연토기를 II 식으로 하여 기술한다.

1. I 식 토기

전부 바리형으로 구연부 또는 입술면의 장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I-1류 (그림 18-①~③ : 사진 37-①~③)

구연부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바깥에서 器壁의 2분의 1정도의 깊이로 구멍무늬를 눌러 장식한 것이다.

큰 것은 복원 입지름 17cm, 그릇 두께 0.7cm이며,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적갈색 점토이다.

작은 것은 그릇 두께 0.4cm로 태토는 모래가 섞인 명갈색 점토이다.

2) I-2류 (그림 18-④~⑦ : 사진 37-④~⑦)

입술면에 텁날 장식이 있는 것으로, 2점은 일정치 않은 간격으로 띄엄 띄엄 골 장식이 있는 반면에 작은 기형의 1점은 촘촘하게 비스듬히 나 있다.

전자는 두께 1cm로 큰 것이고 후자는 두께 0.4cm 밖에 안되는 바리형이다.

2. II 식 토기 (그림 18-⑨ : 사진 37-⑧)

목이 다소 짙고 外反한 短頸의 小形 圓底壺이다. 그릇 두께는 0.4cm로 비교적 고

운 점토를 태토로 하고 있다. 그릇 곁면을 반들거릴 정도로 마연하고 있다.

3. 바닥편(그림 18-⑧)

1점으로 바닥과 동체의 경계가 심하게 축약되어 전형적인 무문토기의 바닥 만든 수법을 잘 보여준다.

바닥지름 8cm, 바닥두께 1cm이며 적갈색의 고운 모래 섞인 점토를 태토로 하였다.

제3절 Ⅲ기 및 Ⅳ기

이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른바 무문토기와 같은 전통적인 산화소성 수법으로 만들어진 Ⅲ기의 郭支 A式 및 Ⅳ기의 郭支 B式 적갈색의 무늬장식이 없는 토기와, 환원 형 소성수법으로 구워지거나 일부 타날무늬가 장식된 陶質 및 陶質類似 토기가 포함된다.

후자인 경우 남해안 지방의 이른바 瓦質과 陶質토기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편의상 전체적으로 도질토기라 하여 기술하고, 후에 따로 보다 구체적인 분류와 서술을 하고자 한다.

전자에 속하는 토기도 이미 곽지폐총의 1979년 및 1984, 1985년 발굴 결과에 의해 다양한 토기가 지점별 충위별로 확인되고 자세하게 보고된 바 있어⁷⁾ 여기서는 전체적인 설명만을 하기로 한다.

7) ① 李白圭·李清圭, 1985,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 1

② 李清圭, 1986, 〈濟州島遺蹟一先史遺蹟地表調查報告〉, 濟州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 2

1. Ⅲ기 꽈지 A식 토기 (그림 19 : 사진 38)

구연부가 대개의 경우 밖으로 크게 벌어지고, 입지름이 바닥지름보다 훨씬 큰 향아리 형태로서 完形의 1점은 입지름 18.5cm, 밑지름 10cm, 높이 2.5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릇의 두께는 1.5-2cm 정도이고, 태토에 짚은 모래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바닥편을 보면 바깥 언저리를 손으로 눌러 축약시키지 않고 그대로 깃깃하게 成形한 것이 대부분이다.

2. Ⅳ식 꽈지 B식 토기(그림 20, 21 : 사진 39)

여전히 산화염으로 소성된 것이어서 적갈색을 띠나, 앞서 A식 토기보다 태토가 정선되고 단단하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고, 꽈지폐총의 예를 보면 完形의 경우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거의 같으나, 이 유적에서는 완형이 없어 확인은 되지 않았다.

그릇의 두께는 0.8-1cm 정도이며, 태토에 혼입된 모래의 입자가 보다 고와지고 정선되었다.

바닥편을 보면 동체와 두께가 거의 같고, 바닥과 동체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이 보인다.

3. Ⅲ, Ⅳ기 陶質土器

1) 동체부편(그림 22 : 사진 40)

대체로 항아리 동체부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색깔과 硬度로 보아 적갈색 軟質, 회색 연질, 그리고 회청색 硬質로 크게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께는 0.4cm내외의 얇은 것과 0.6-1cm의 두꺼운 것 두 종류로 대별되는데, 연질의 경우는 얕고, 경질의 경우는 대체로 두꺼운 것으로 나타난다.

타날무늬는 격자무늬, 고운 새끼무늬, 集線무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중의 일부에는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橫線文을 그은 것이 보인다.

고운 새끼무늬와 집선무늬는 경질토기에 그리고 격자무늬는 연질토기에 주로 보인다.

2) 구연부, 저부 및 손잡이

[구연부편]

태토의 질과 색깔에 따라 앞서의 동체부처럼 적갈색 연질과 회청색 경질로 구분할 수 있다.

(1)은 외반되고 얕은 목이 중간에서 크게 단을 진 短頸壺의 口頸部, 삼국시대 초 혹은 원삼국기의 경남의 城山⁸⁾ 및 金海 府院洞⁹⁾ 패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입지름 13.5cm, 그릇두께 0.5cm, 적갈색 연질 (그림 23-② : 사진 41-①)

(2)는 단경호의 직립 구경부로 입지름 16.5cm, 그릇두께 0.5cm, 회청색 경질(그림 23-③ : 사진 41-②)

(3)은 단지의 외반구연 구경부로 입지름 10cm, 그릇두께 0.5cm, 회청색 경질(그림 23-④ : 사진 23-③)

8) 文化財管理局, 1976,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9) 東亞大學校博物館, 1981, 〈金海府院洞遺蹟〉, 古蹟調查報告 5

[바닥편]

- (1) 은 高坏의 나팔형 굽 하단부편으로 바닥지름 17.3cm, 그릇두께 0.5cm, 적갈색
연질(그림 23-⑤, 사진 41-⑤)
- (2) 는 항아리 혹은 深鉢에 가까운 器形의 平底 바닥편으로 바닥지름 11.2, 13.5cm,
그릇두께 0.8cm, 회청색 경질(그림 23-⑥, ⑦ : 사진 41-⑥, ⑦)

[손잡이편] (그림 23-① : 사진 41-④)

입술처럼 납작하게 휘어지고 중간에 홈이 파 있는 형식으로 폭 15.5cm이다.

제6장 골각기와 석기

대부분의 유물이 교란된 충위 또는 유적 내부 가장 자리 표면에서 수습된 것이다.
여기서 소개된 것 이외에 용도 및 가공의 혼적이 명확하지 않은 석기도 있으나, 여
기서는 생략하였다.

[골각기] (그림 24 : 사진 42~46)

대체로 사슴 등의 동물 다리뼈를 세로로 얇게 쪼개 만든 것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갈린 홈 자국이 한쪽 양 옆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완형은 3점으로 길이 15-16.5cm, 폭 2.5~3.5cm이며, 그밖에 10점의 부분 조각이
있다.

[석기]

(1) 끝 부분을 마연한 石斧形 공이이다. 길이 8.2cm, 폭 6.5cm, 두께 1.8cm(그림 25-③ : 사진 47-①)

(2) 장타원형의 평면과 타원형 단면의 모양으로 조아 다듬은 것으로 양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화강암 종류로 길이 10.5cm, 폭 2.8cm, 두께 2.2cm(그림 25-① : 사진 47-②)

(3) 단면 장방형으로, 기다랗고 납작하게 만들어진 현무암제 소형 석기로 숫돌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길이 8.5cm, 두께 11.3cm, 폭 2.2cm(그림 25-② : 사진 47-③)

(4) 화강암 종류의 숫돌이다. 주로 한쪽 면만 매끈하게 갈리고, 횡단면이 납작한 장방형을 이룬다. 길이 5~8.2cm, 폭 3~4cm, 두께 1.5~2cm(그림 25-④~⑥ : 사진 47-④, ⑤)

(5) 앞서보다 큰 것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숫돌이다. 역시 한쪽 면만 매끈하게 갈려 있다. 길이 6.5, 11cm, 폭 6.5, 7cm, 두께 5.5, 5.5cm(그림 25-⑦, ⑧ : 사진 47-⑥, ⑦)

(6) 납작하고 넓적한 돌의 한 면을 심하게 사용하여 웁푹 패인 숫돌이다. 길이 11cm, 폭 8cm, 두께 15cm. (그림 25-⑨ : 사진 47-⑧)

(7) 한가운데에 공이로 두들겨 흠이 나있는 홈돌로서, 납작 평평의 원판형, 두툼한 원형, 납작 길죽한 형, 그리고 두툼한 부정형 등 모양이 다양하다. 크기는 13×10×3.5cm, 10.7×8.8×7.5cm, 10.2×5.5×2.8cm, 7.2×4.8×4cm(그림 26-①~④ : 사진 48-①~④)

(8) 매끈하게 전면을 갈아 만든 것으로 기다란 원판형의 평면에 횡단면 타원형의

모양으로 한쪽 면이 움푹하게 갈려 갈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무암제 길이 10.5cm, 폭4.5cm, 두께2.5cm(그림 26-⑥ : 사진 48-⑥)

(9) 횡단면 반원형의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제 갈돌, 현재길이 11.2cm, 폭10.5cm, 두께6.5cm(그림 26-⑤ : 사진 48-⑤)

(10) 대형의 갈판으로 전부 현무암제이다. 한쪽 면이 비교적 평평하게 갈려 있으며, 크기는 41.5×24.5×9cm, 38×20.5×10cm, 38.5×10cm(그림 27 : 사진 49)

제7장 編 年

여기서는 이 유적의 1기층의 절대연대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거의 화석화된 조개편과 모래 그리고 점토가 뒤엉켜 형성된 최하층의 1기층에서 조개편이 덩어리를 1kg 정도 채집하여 서울대 任孝宰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일본 京都產業大 山田治 교수에게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밝혀 내었다.

1987年 11月 19日

測定番號	試料名・採取地	測定結果
KSU-1512	貝・濟州道 朝天 北村里	2920 ± 25 B.P.

rockshelter 50~70cm 最下層

新石器時代 押捺點列文土器片 共伴

이러한 절대연대와 근접하는 유적이면서 북촌리처럼 반란형의 토기 특히 이중구 연 토기 및 압날 점렬무늬토기가 출토하는 유적을 찾아보면, 남해안 지방의 경남 金

海水佳里 패총 최상층¹⁰⁾, 부산 金谷洞 패총¹¹⁾ 그리고 전남 黑山島 패총¹²⁾을 들 수 있으며, 그 연대는 다음과 같다.

유적	측정번호	측정연대
김해 수가리 1층	N-3451(일본 isotope 협회)	3130±80 B. P.
	N-3453	3390±70 B. P.
부산 금곡동	N-2135	3580±75 B. P.
신안 대흑산도		3420±120 B. P.

이러한 자료를 검토할 때, 북촌리 유적을 포함한 위의 유적 모두가 이중구연토기 를 비롯한 토기형식에 있어 相似性을 보여주고 연대 자료 또한 대체로 3,500-3,000 B. P. 범위에 모두 들어간다.

이러한 점에서 북촌리 1기층의 방사성탄소연대 자료는 상당한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아울러서 이 연대에 북촌리 문화는 한반도 남해안 지방과 상호 관련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압날 점렬무늬토기가 우리나라에 있어 빗살무늬토기보다 오랜 형식이라 는 학계 인식도 있음을 고려할 때¹³⁾, 이 1기층의 상한 연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 못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금후 보다 확실한 연대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0)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4

11) 金廷鶴·鄭澄元, 1980, 〈金谷洞栗里貝塚一岩蔭住居遺蹟一〉,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3

12) 金元龍·任孝宰, 1968, 〈南海島嶼考古學〉, 東亞文化研究叢書 1

13) 註10) 報告書

제8장 종합고찰 : 1기의 집자리와 토기를 중심으로

북촌리 유적은 용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형성된 전형적인 바위그늘 집자리(rock-shelter)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집자리터는 용암동굴이 발달한 제주도 곳곳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이른 것은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¹⁴⁾, 정식발굴조사에 의해 명확하게 구조가 확인된 것으로는 이 북촌리 유적이다.

제주도내에 북촌리 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지표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翰林邑 月令里 한들굴 유적이 있다.¹⁵⁾ 이 유적은 바위그늘이 아닌 동굴 입구 집자리인 점이 북촌리 유적과 다르지만, 똑같이 자연의 암반 지형을 이용하여 눈비와 바람을 막는 집터로 활용되었다.

또한 유적이 위치한 곳이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점은 한들굴 유적도 마찬가지이어서, 식량을 구하려 조개 채취 및 어로 작업을 하려 해안까지 1,000m정도 걸어가야 된다. 이처럼 해안에서 떨어졌음에도, 집자리로서 유용한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위그늘 혹은 동굴 입구를 택하여 집자리로 삼은 것이다.

북촌리 유적의 입구는 정남향으로서 햇볕이 잘 들어 오며, 입구에서 안쪽 벽까지의 길이가 3m, 입구의 정면 길이 11m로서 추정되고, 대체적인 넓이는 30㎡ 미만이다. 이러한 넓이에는 1인당 5㎡ 혹은 3㎡의 접유면적을 고려할 때, 10인을 넘지 못하는 생물학적 가족이 읍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14) ① 註 5)의 논문

② 鄭永和, 1974, 〈舊石器時代 穴居遺蹟에 대하여〉, 《韓國文化人類學》6, pp. 151~156.

15) 李清圭·康昌和, 1987, 〈제주도지방의 선사문화와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第4紀學會誌》1, pp. 47~67.

집자리터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쪽은 잡석을 깔아 만든 부엌 내지 화덕 공간이고, 동쪽의 평평한 암반 위는 일반 생활의 구역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은 바위그늘 집자리 주변의 야외에 나가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의 층위는 후대에 심한 교란을 받아 상당한 부분에서 2~3개 층위가 생략되거나 또는 간층이 간간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5개 층위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하층에서 제1기의 압날첨렬무늬토기가 확인되고, 또한 이 최하층의 방사성탄소연대 자료가 2920 ± 25 B. P.로서 이 유적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하는 남해안 지방의 여러 유적의 경우와 연대적으로 거의 맞물린다. 즉 김해 水佳里 최상층, 부산 金谷洞 패총 하층 및 黑山島 패총의 연대도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촌리 1기층은 신석기시대 말기로 추정되는 위 남해안 유적과 맞물리며, 다음 토기 형식에서 볼 것처럼 이 지방과의 교류가 인정될 수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층위는 5개로 구분되나, 이 유적에서 수습되는 유물의 대부분이 교란된 층위에서 출토되어 엄격한 층위론적인 입장에서 여러 단계별로 출토유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도 여러 유적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유적에는 I 기 이외에 무문토기시대에 속하는 II기, 원삼국시대 이후의 III기 및 IV기의 유물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출토된 토기 형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중 I기에 속하는 토기는 앞서 보듯 5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주로 구연부의 施文手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I식은 누르기 혹은 押捺수법으로 여러 줄의 첨렬무늬를 돌린 것이고, II식은 눌러 훑기 수법으로 한줄의 첨렬무늬를 뼈엄뼈엄 시문한 것이다. III식은 이중구연을 한 것이며, 그리고 IV식은 그 숫자가 앞서의 토기보다 훨씬 적으나, 爪文수법, 새김수법, 조갯날 누르기 수법 및 多齒具 압날 등의 시문수법으로 손톱끝무늬, 유사빗살무늬, 短斜線 集線 무늬 등이 시

문된 것이다.

그릇 형태를 보면 완형의 예가 없어 확실하지 않으나, 발견된 두점의 바닥편이 전부 圓底이고, 동체로 이어지는 구연부편의 형태를 보아 기본적으로 포탄형 혹은 半卵形으로 이해된다.

대체적으로 그릇의 크기는 20-30cm의 범위에 있으며, 20cm 내외의 소형, 20-25cm 내외의 중형, 25-30cm의 대형 크기를 구분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용적은 동체의 배부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크기의 차이가 앞서의 구연부 장식으로 분류한 형식과 일정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그릇의 두께도 대형과 중형의 경우 0.6~0.8cm가 대부분이고, 소형도 이와 비슷하거나 얇아 0.4cm 정도의 것도 있다.

태토는 전부 모래가 섞인 점토로서 적갈색이 主調를 이루고 흑갈색, 명갈색 등이 있다.

한편 그릇 정면 수법에 있어 곁면의 경우 대부분 물순질한 것으로 일부 조갯날 같은 도구로 비스듬히 내리쓸듯이 한 것이 있다. 이 경우 앞서 I식중 H류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고, III식의 이중구연토기도 같은 방식으로 보다 깊게 정면한 자국이 있다.

그릇 안쪽에 平行粗痕文은 수집된 구연부편의 과반수 이상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토기의 여러 속성을 남해안 지방의 토기와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압날무늬 형식의 I식 토기 중 H류와 같은 수법의 예가 흑산도 패총에 보일 뿐만 아니라, III식의 이중구연토기는 흑산도, 김해 수가리, 부산 금곡동 등 남해안 전역에서 발견된다. 이밖에도 IV식 및 V식의 대부분의 토기 형식이 앞서 남해안 지방 여러 유적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중구연토기는 남한지방에서 남해안 지방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제주도

에도 나온다는 것은 제주도를 포함한 이 지역이 이중구연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일정한 문화영역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구연 토기에 대해서는 서북한 지방에서 성행하는 新興洞式 팽이형 토기가 빗살무늬토기와 접촉하여 이룩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¹⁶⁾와 남해안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自生說의 견해가 있다.¹⁷⁾

한편 북촌리 I식의 전형적인 A,B류 등은 지금까지 다른 지방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어 북촌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해안 지방의 빗살무늬토기처럼 전체 기형이 포탄형 및 반란형이고, 태토에 모래가 섞였지만, 기벽의 두께가 북촌리의 경우는 0.6cm 내외가 주종을 이루는데 반하여 남해안 지방의 것은 0.8cm 내외인 것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표면 정면 수법에 있어서 이중구연토기 및 I식 H류의 토기 결표면에 보이는 정면 수법과 그릇 안쪽에 보이는 평행조흔문도 앞서 남해안 지방의 토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행조흔문의 수법은 앞서 남해안 지방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반면 이곳 제주도에서는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기 양상을 종합 정리하면 北村里 1期 토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포탄형 혹은 반란형의 빗살무늬토기의 기형을 갖고 있으며 그중 이중구연토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해안 지방의 말기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형식상 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압날 시문의 삼각 혹은 원형 점렬무늬 토기 등과 같이 제주도 나름대로 발전한 토기 형식이 있다.

그 연대는 북촌리와 남해안 여러 유적의 방사선 탄소연대가 보여주듯이 B.C. 15-10C대로서 남한지방의 빗살무늬토기시대에서 무문토기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이다.

16)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17) 鄭澄元, 1986, 〈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研究(1)－釜山·慶南地方 晚期櫛文土器의 檢討〉, 《釜山史學》 6, pp. 1~38.

제9장 맷 읍 말

제주도에서의 고고학적 연구의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지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여건 속에서 금번의 북촌리 유적의 발굴을 통해 신석기 문화가 확인되고 그의 방사성탄소연대가 검출된 것은 濟州島 考古學 研究史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다.

그러한 중요 유적임에도 금번 발굴조사가 보고서 간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자연유물에 대한 정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탄화열매에 대해서는 일본 前 慶應大 교수인 江坂輝彌의 도움으로 현미경 사진을 얻고 개사초 열매의 일종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 50, 51)

이에 江坂輝彌 선생에 謝意를 표하며, 다른 자연 유물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따로 일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Pukchon-ri Rock-shelter locates on the northern sea-shore area of Cheju Island and is the first excavated neolithic site in this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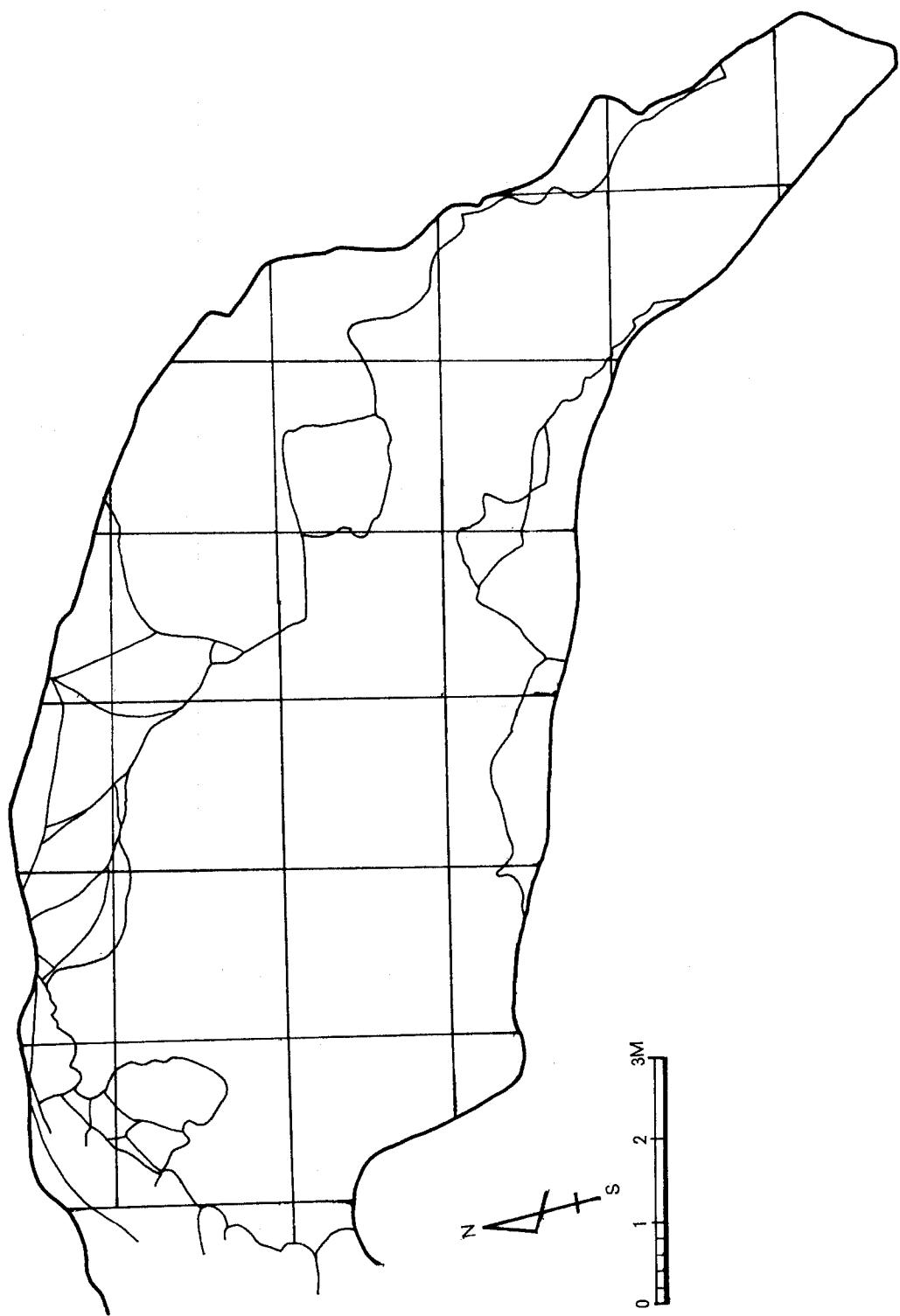
The deposit of this site, which is 50~80cm in thickness, consists of five layers. The lowest layer and surface of the rock-shelter belongs to the neolithic age, 2920 ± 25 B.P. in C¹⁴ date and the other upper layers were deposited from bronze age till Unified-Silla period.

The rock-shelter is 11M long, 3M wide and 2M high. Its floor area is about 30M² and assumed to be divided into two zones, kitchen floor and resting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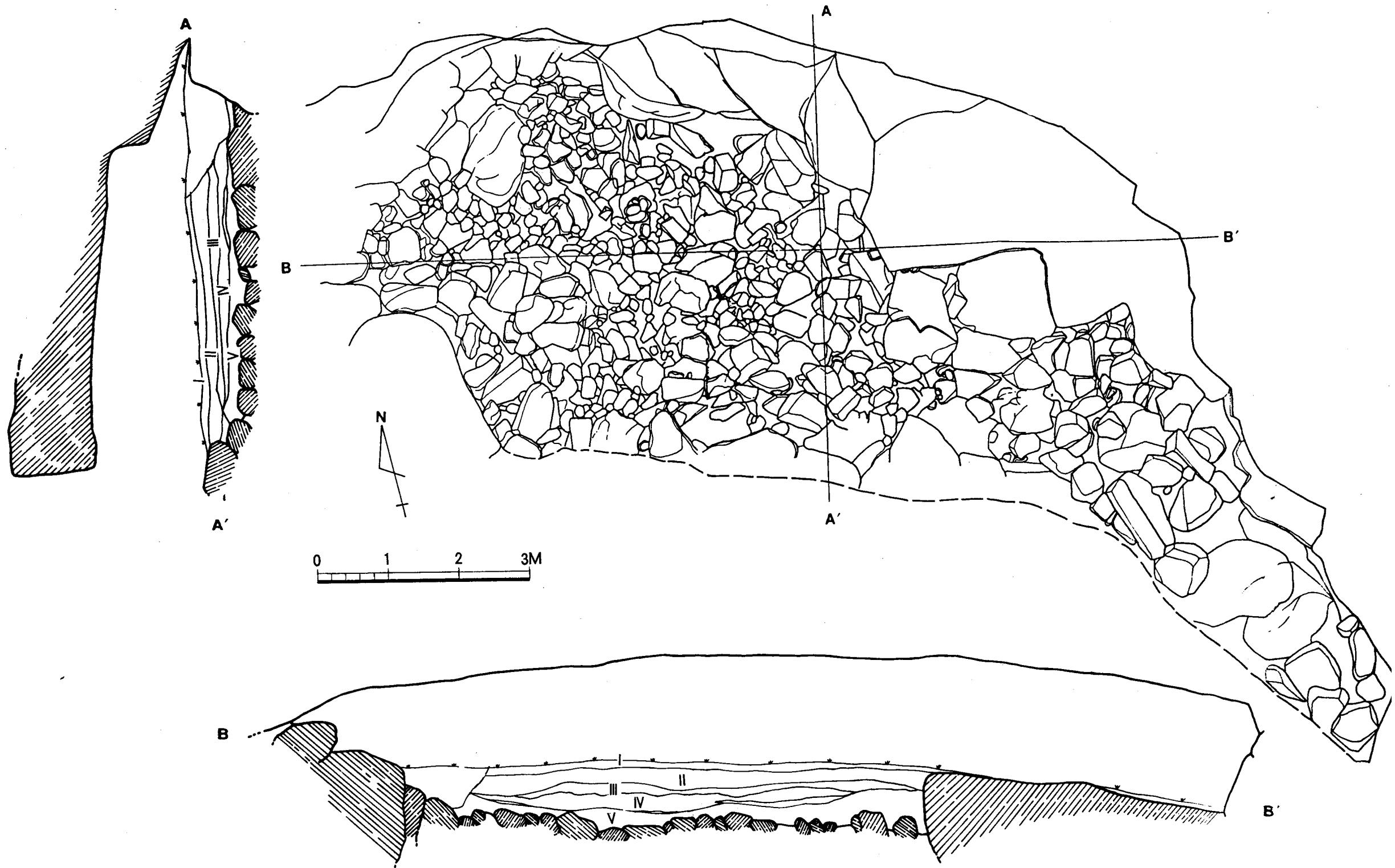
The neolithic potteries in this site can be classified into I, II, III, IV and V type and some of the types including III have been discovered also in the southern seashore area of Korean Peninsula of about same time, 3,000~3,500 B.P. in C¹⁴ date.

Therefore, some relations can be identified betwee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nd Cheju Island in the latest neolithic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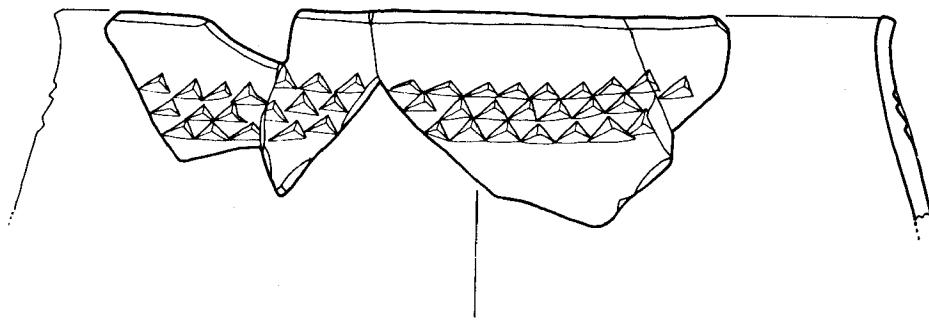
There were also discovered at this site the Mumun-Togi of bronze age, the Kwakchi A and B type potteries of historic period, which had been reported in the excavation report of Kwakchi-ri site, the largest shell-mound in Cheju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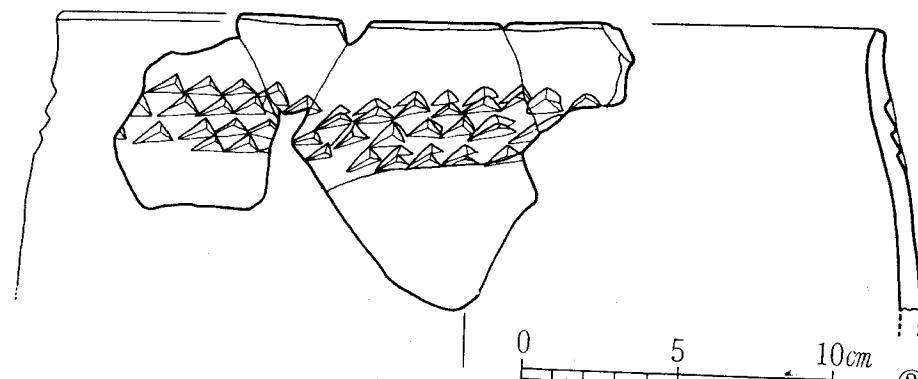
1. 북촌리 rock-shelter | 유적 발굴 Pit 구획도



2.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평면 및 층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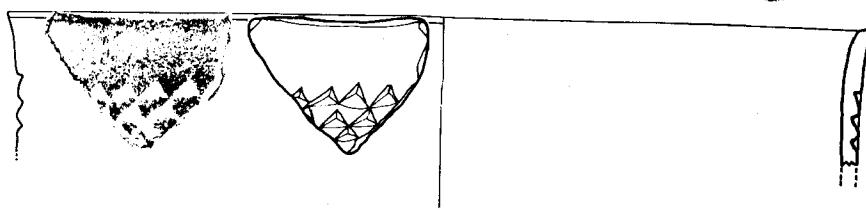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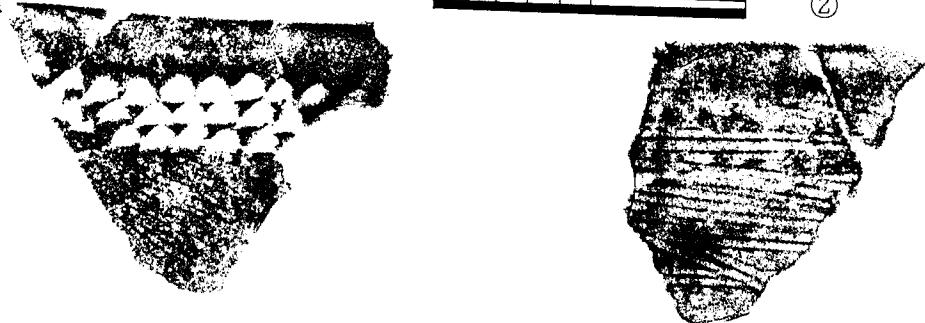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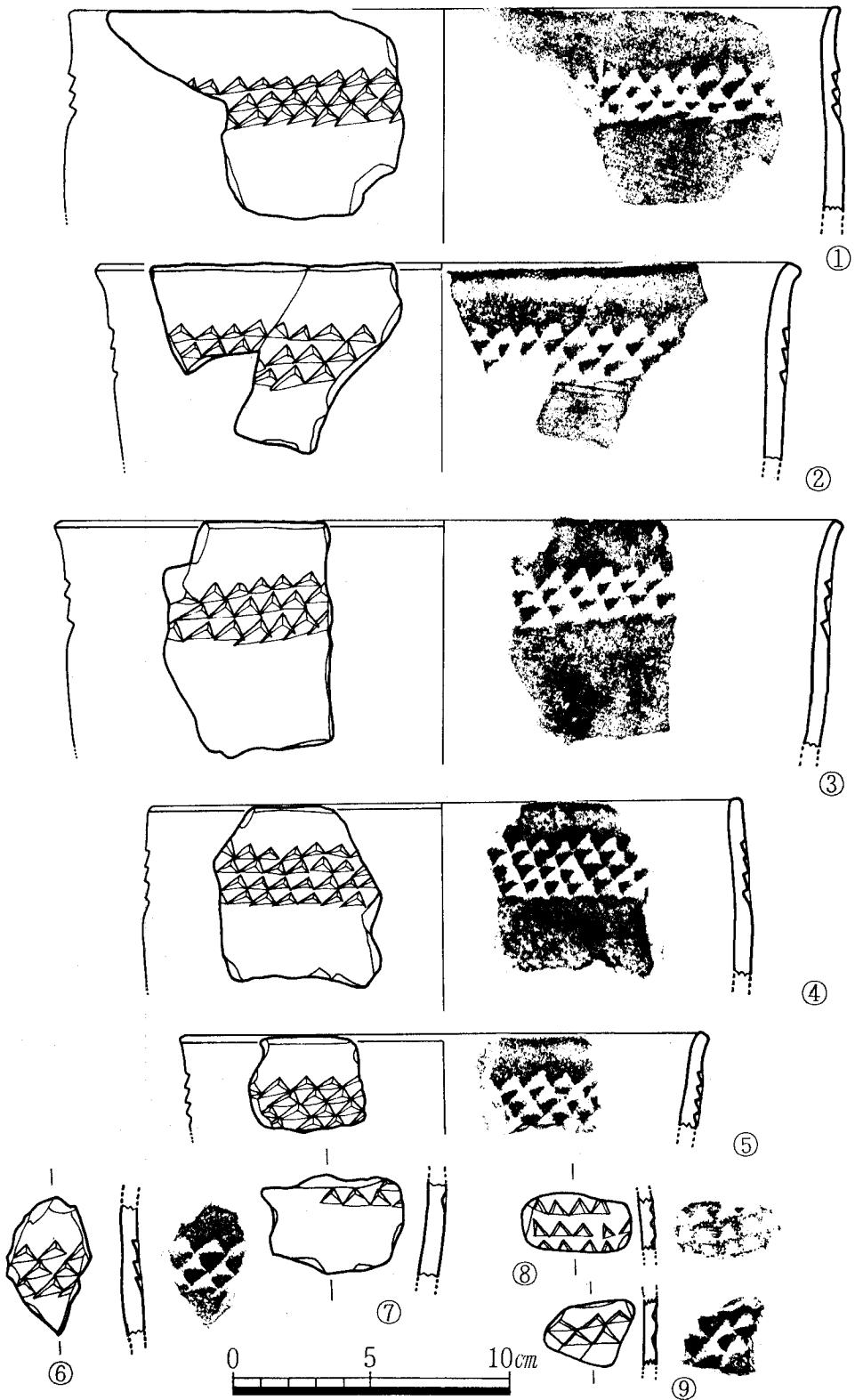
②

0 5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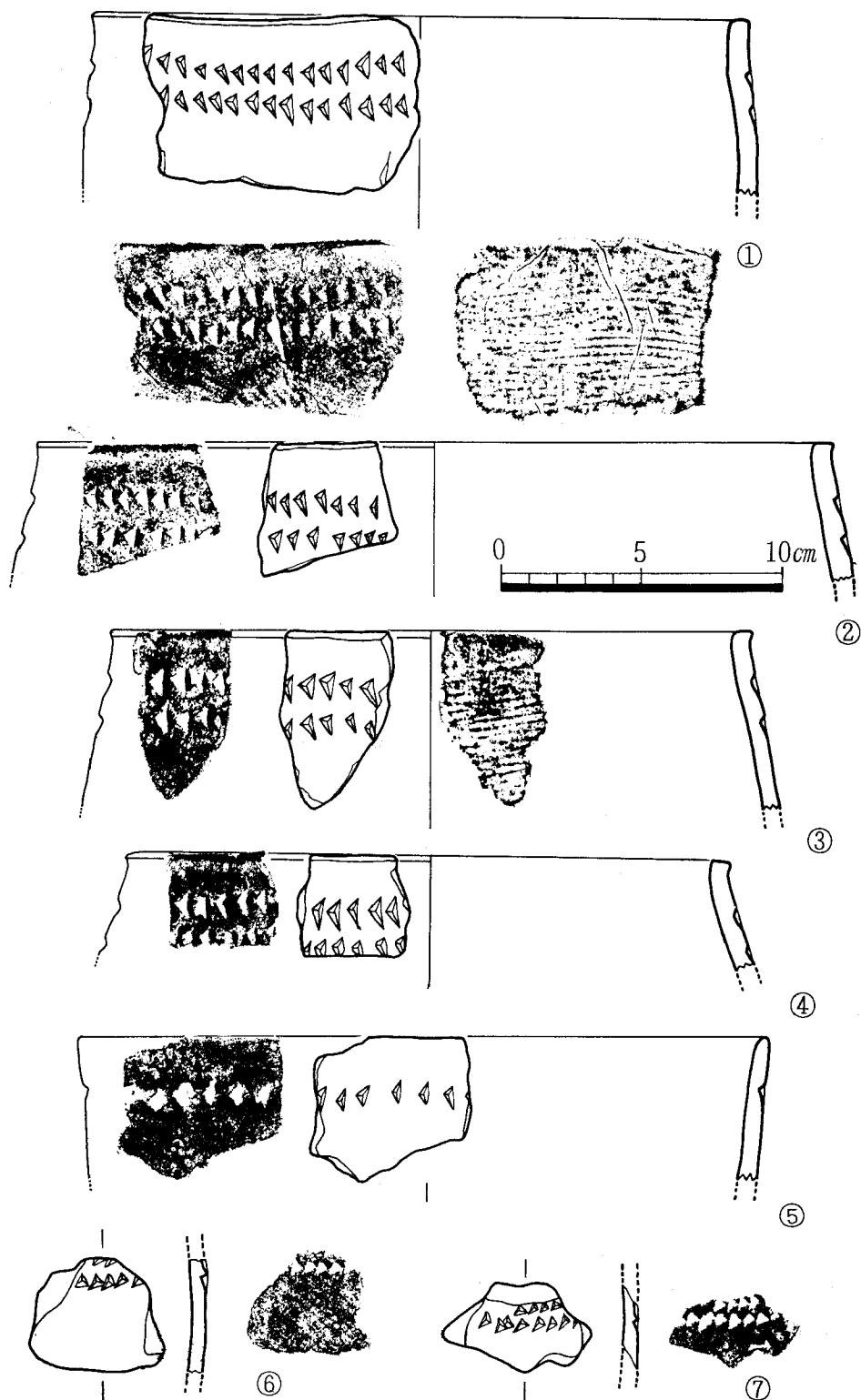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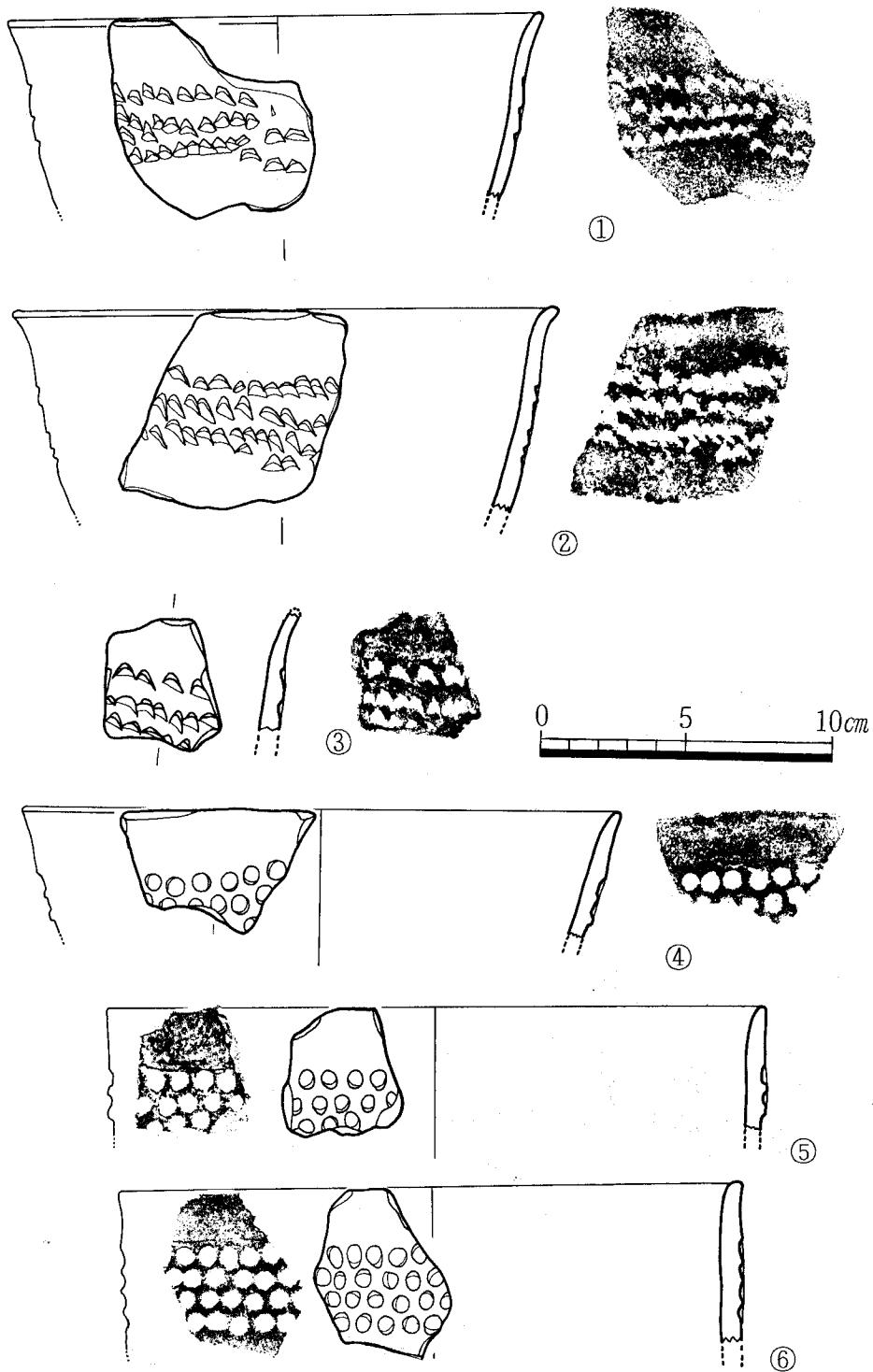
3. 1기 1식 A류 토기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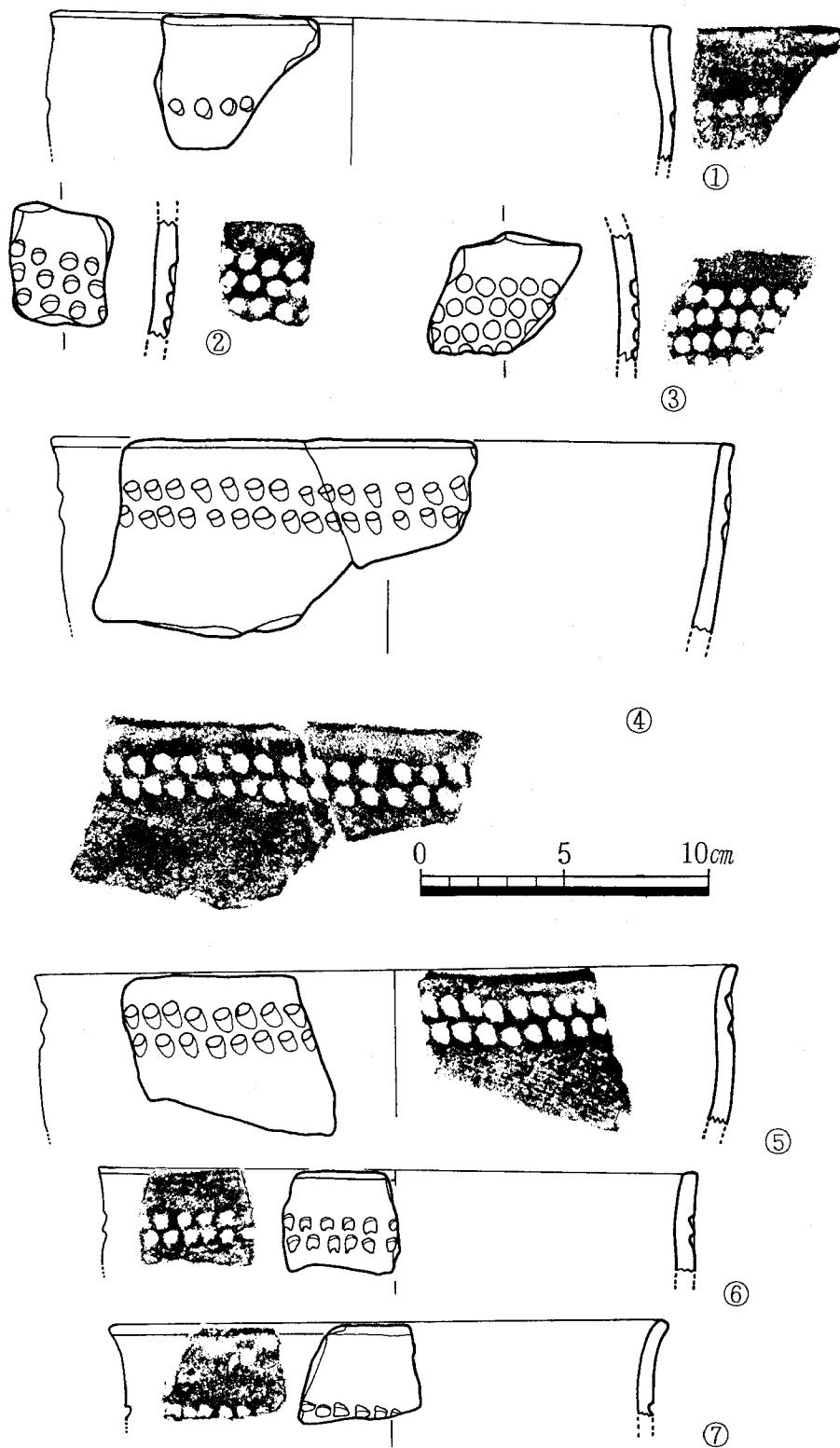
4. 1기 1식 A류 토기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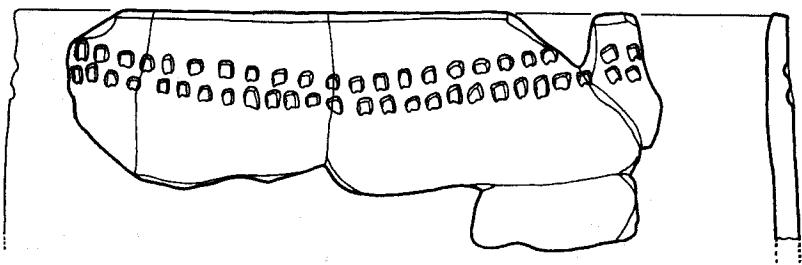
5. I 기 I 식 B, C류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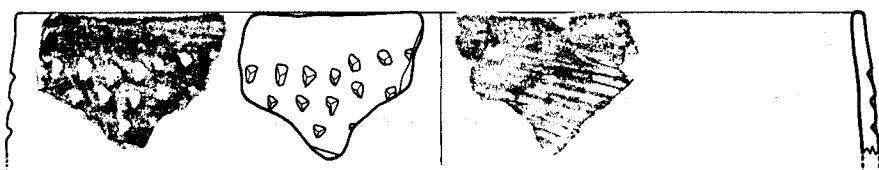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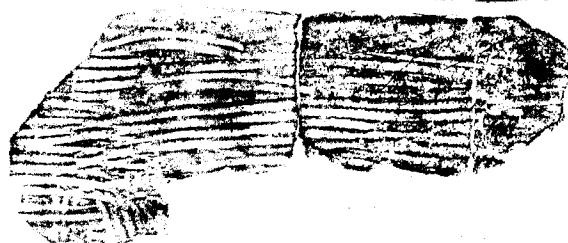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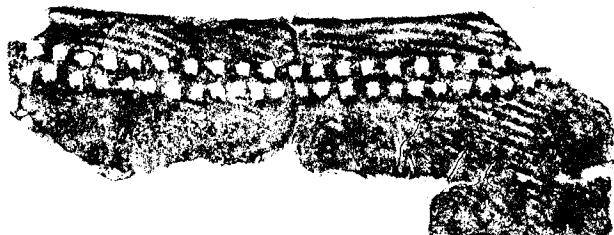
6. 1기 1식 C, D, E류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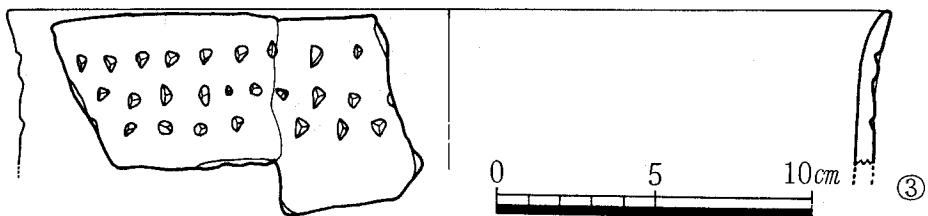
7. 1기 1식 F, G류 토기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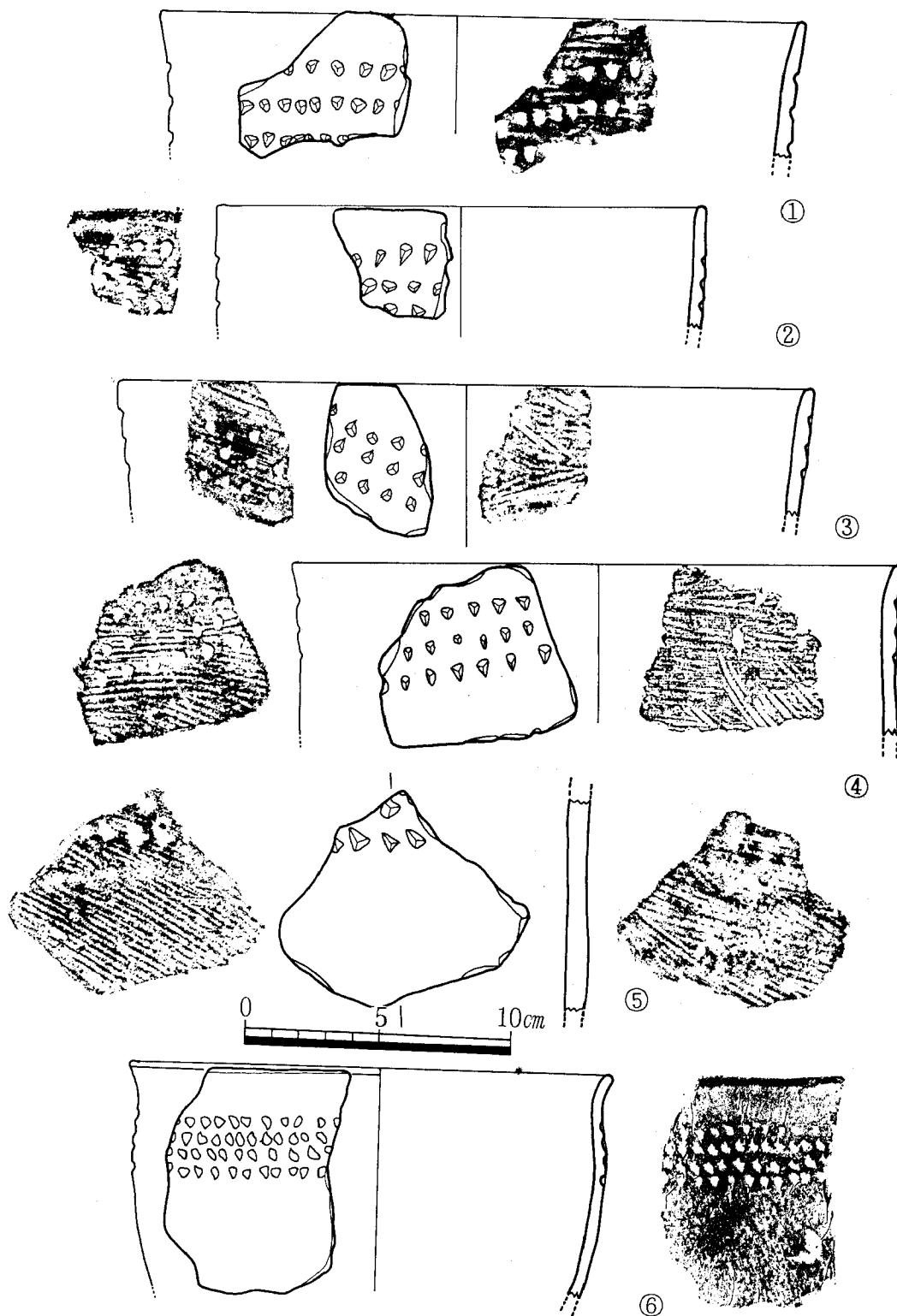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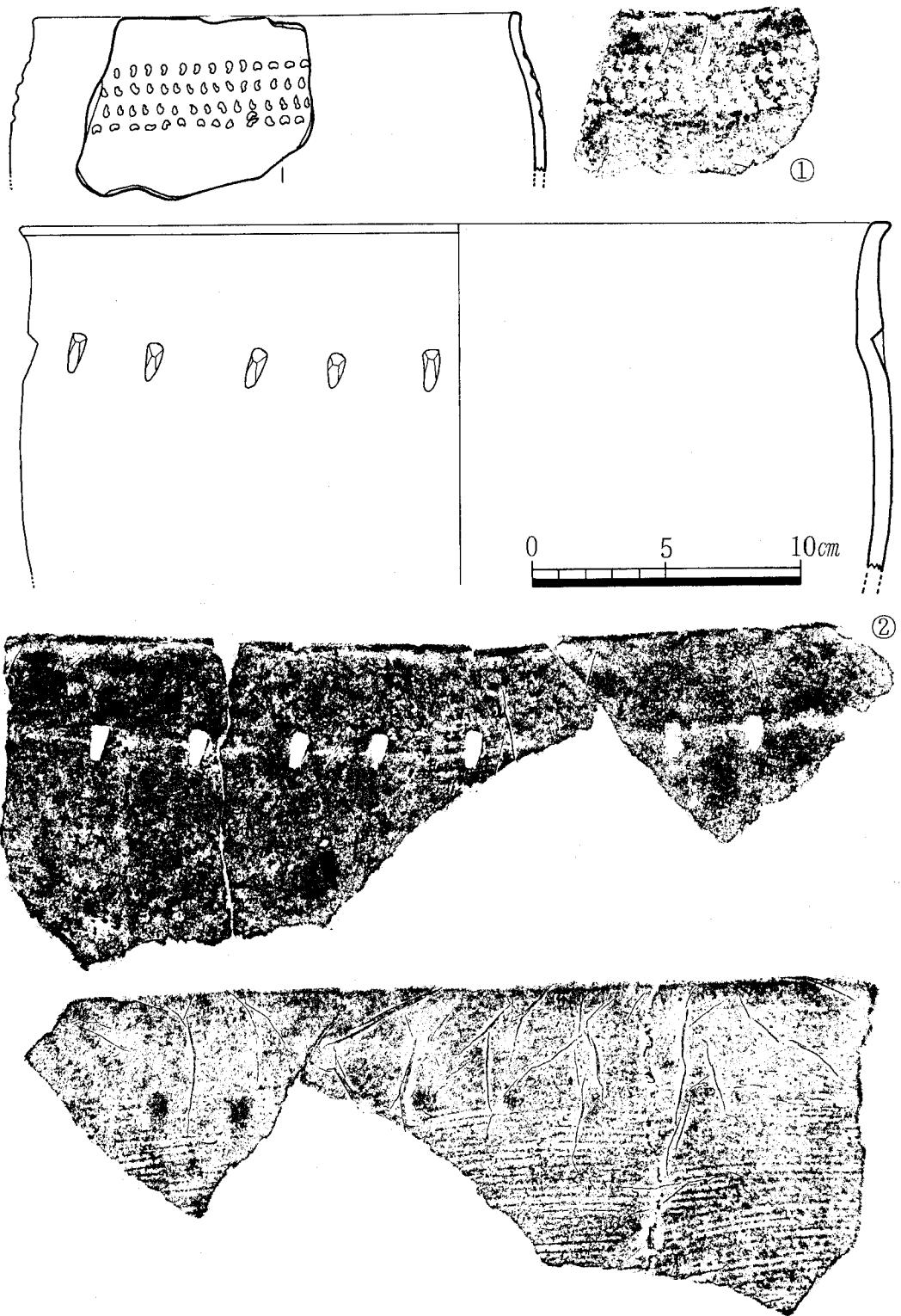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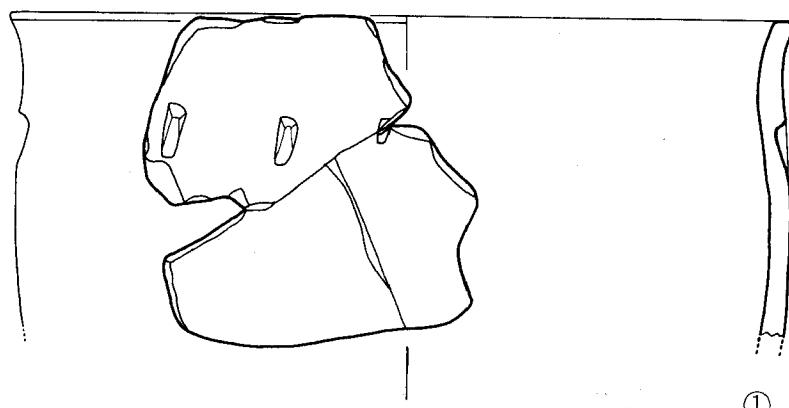
8. 1기 1식 G, H류 토기 시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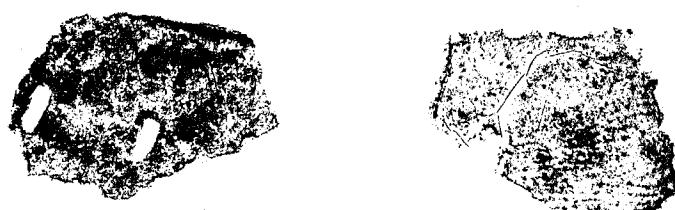
9. 1기 1식 H, I류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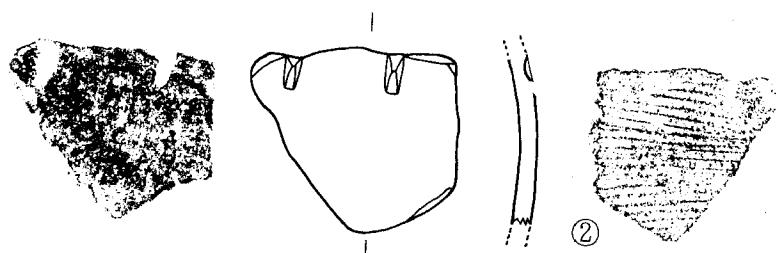
10. Ⅰ기 Ⅰ식 Ⅰ류 및 Ⅱ-1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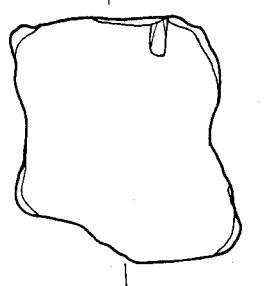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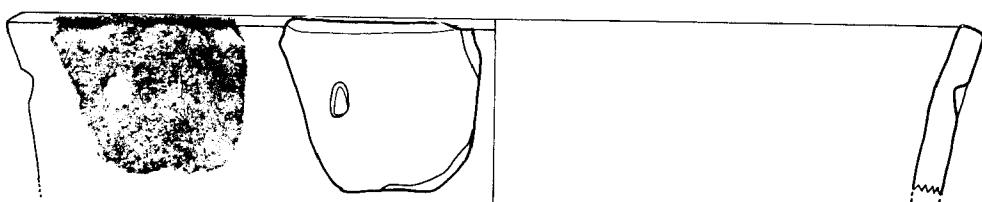
0 5 10 cm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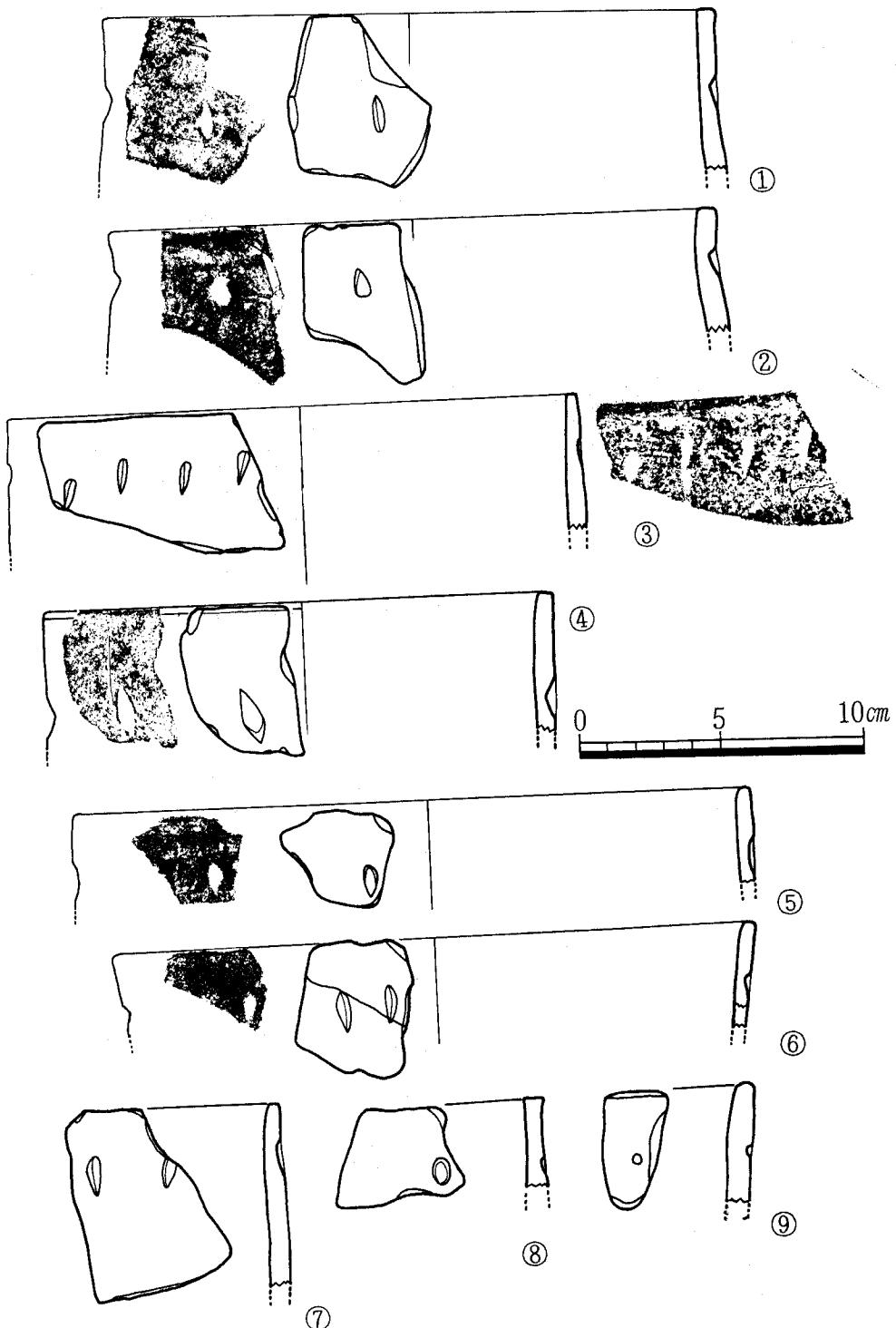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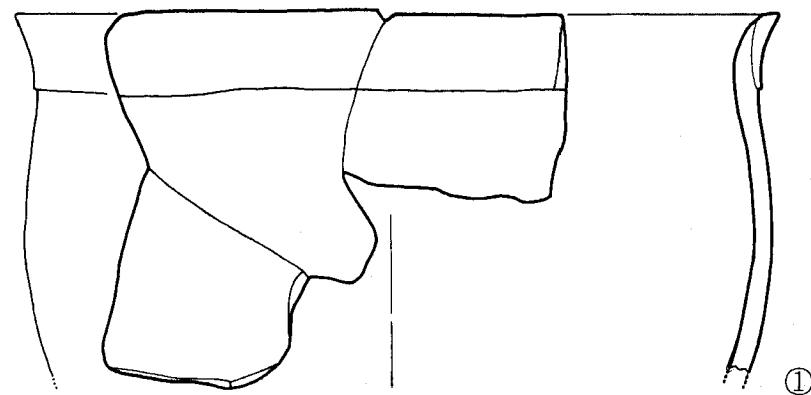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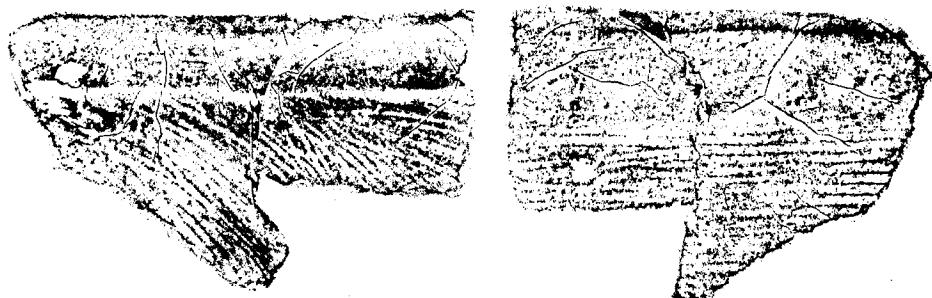
11. 1기 II-1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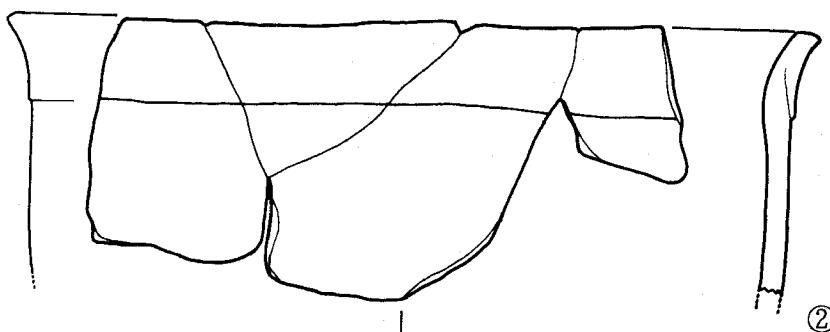
12. 1기 II-2식 토기편



①



0 5 1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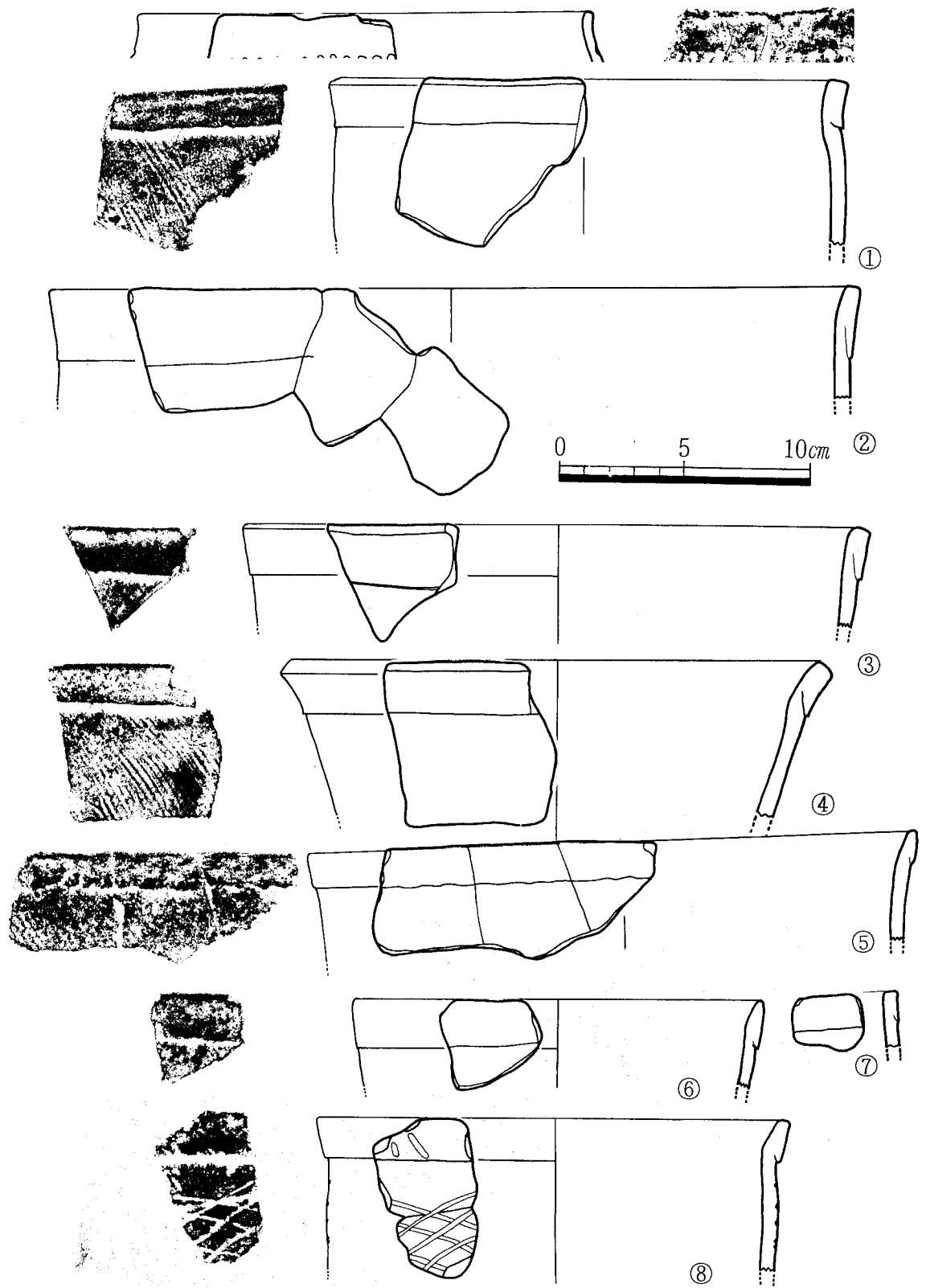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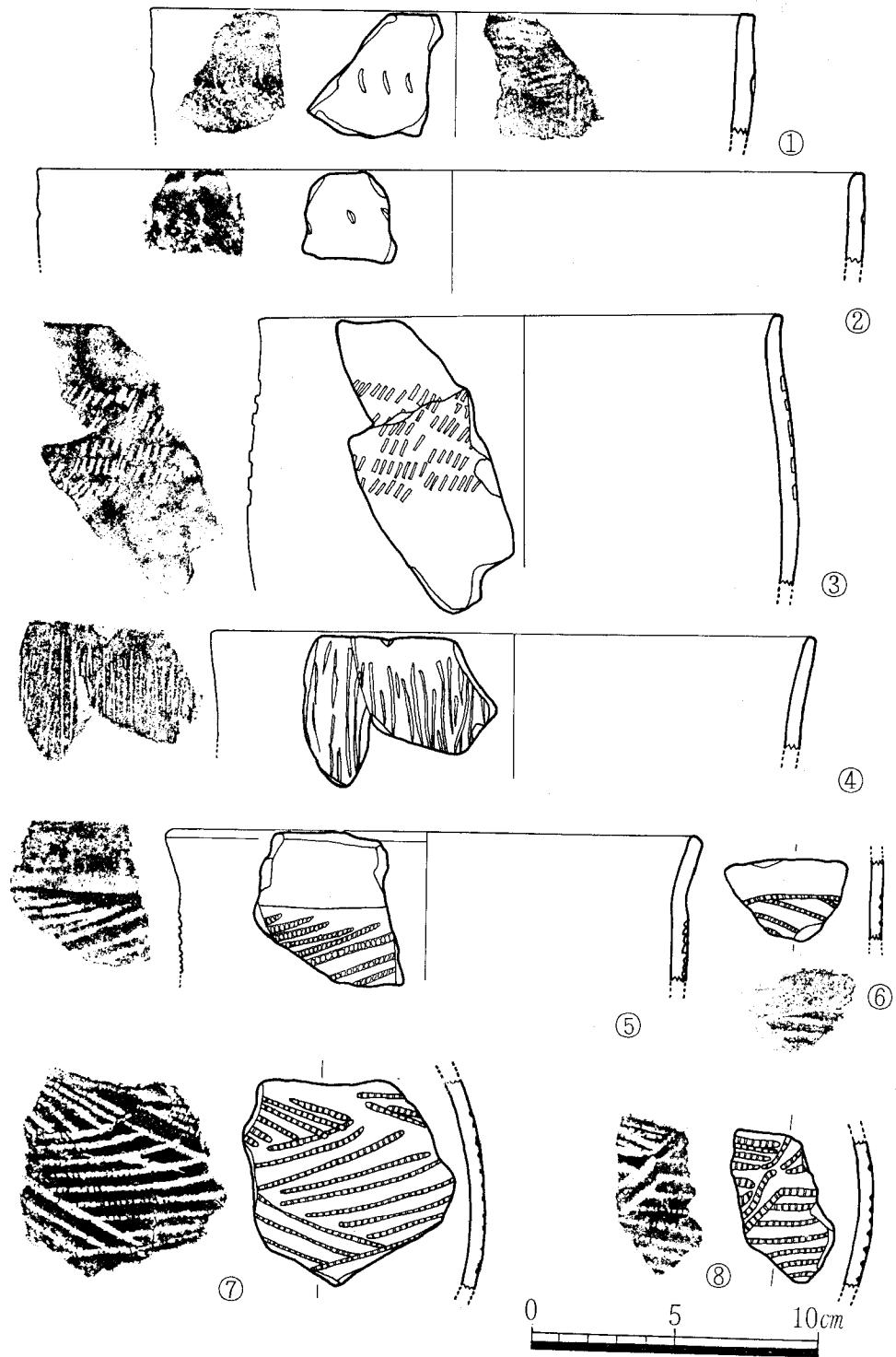


13. Ⅲ-1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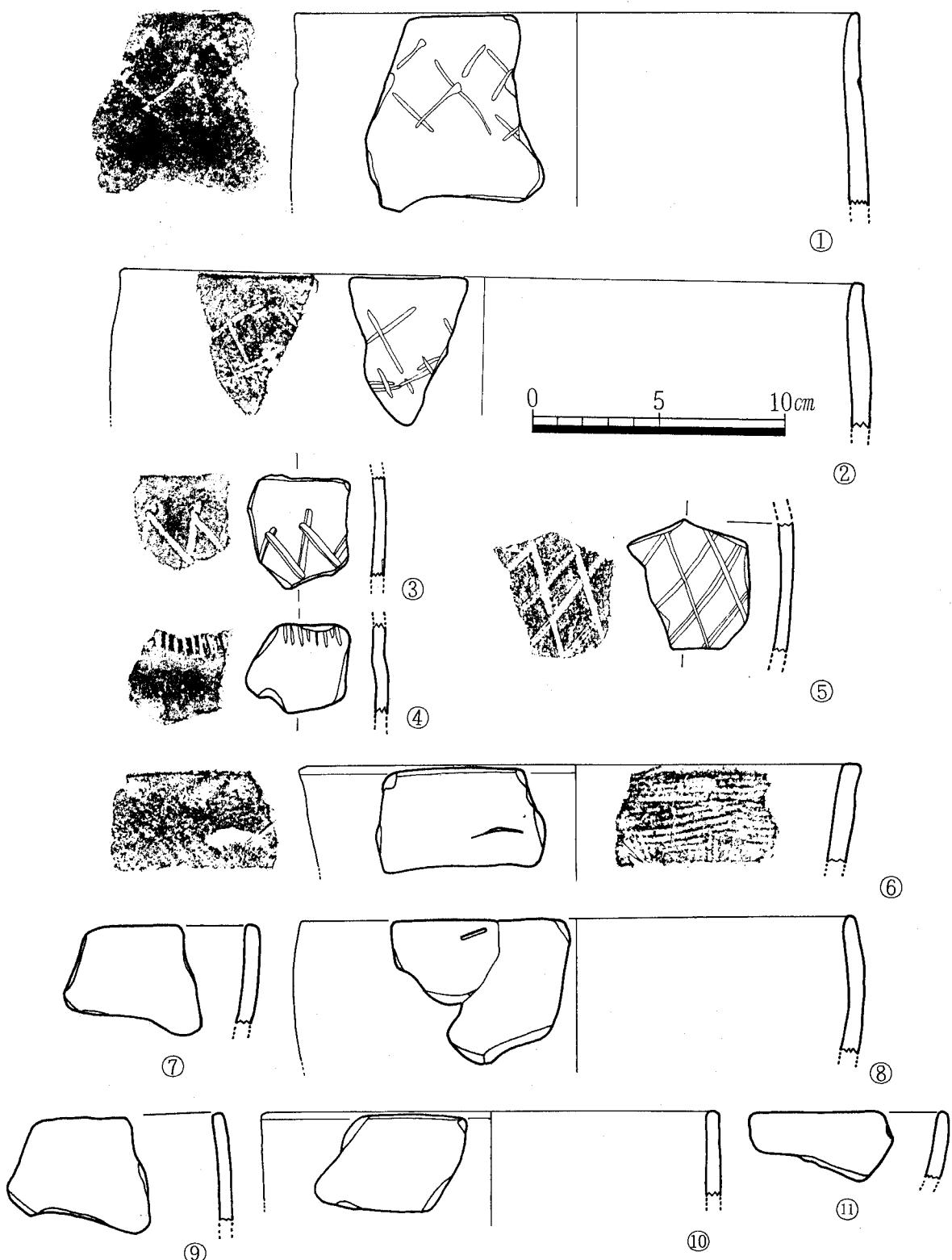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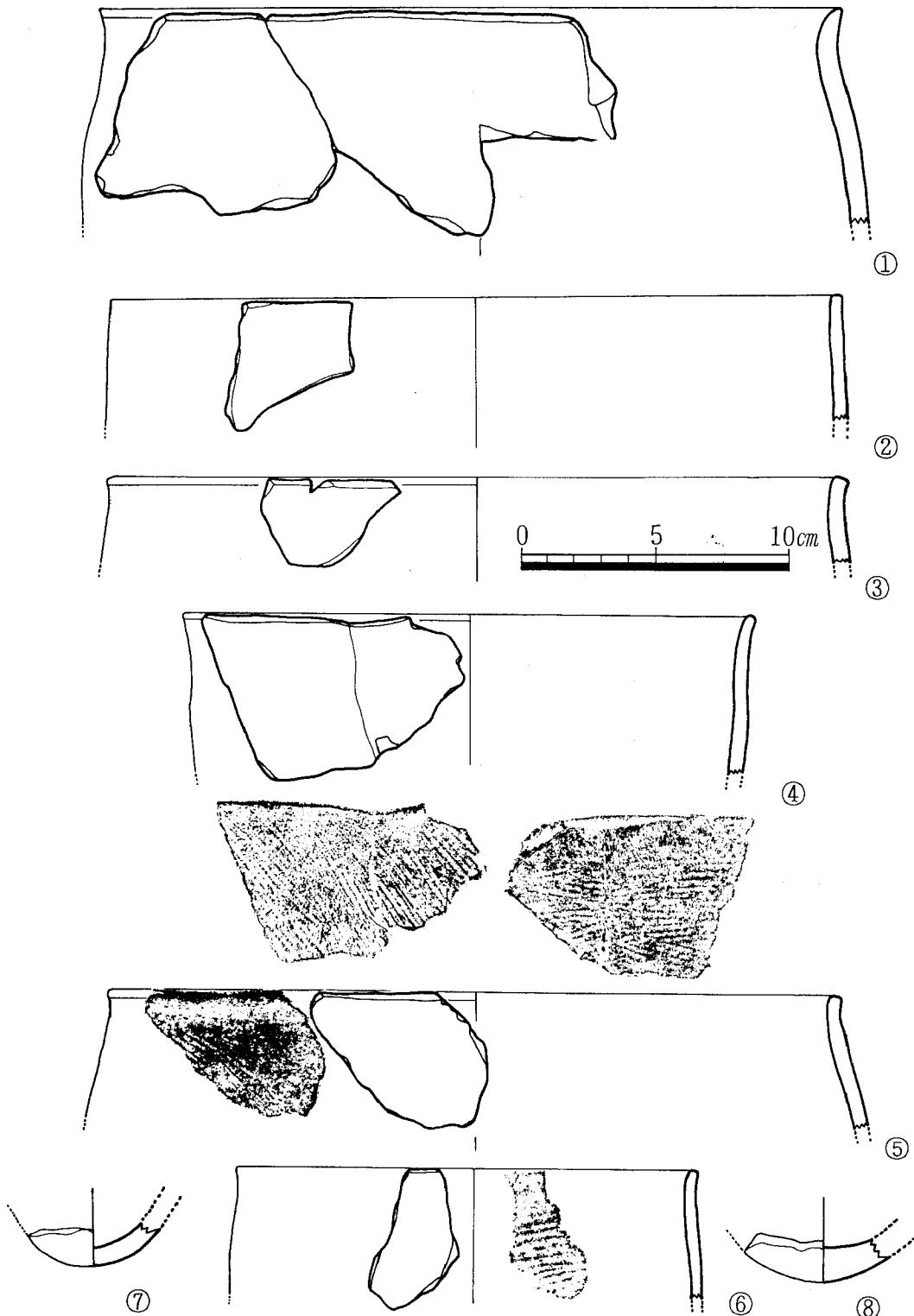
14. 1기 III-2, 3, 4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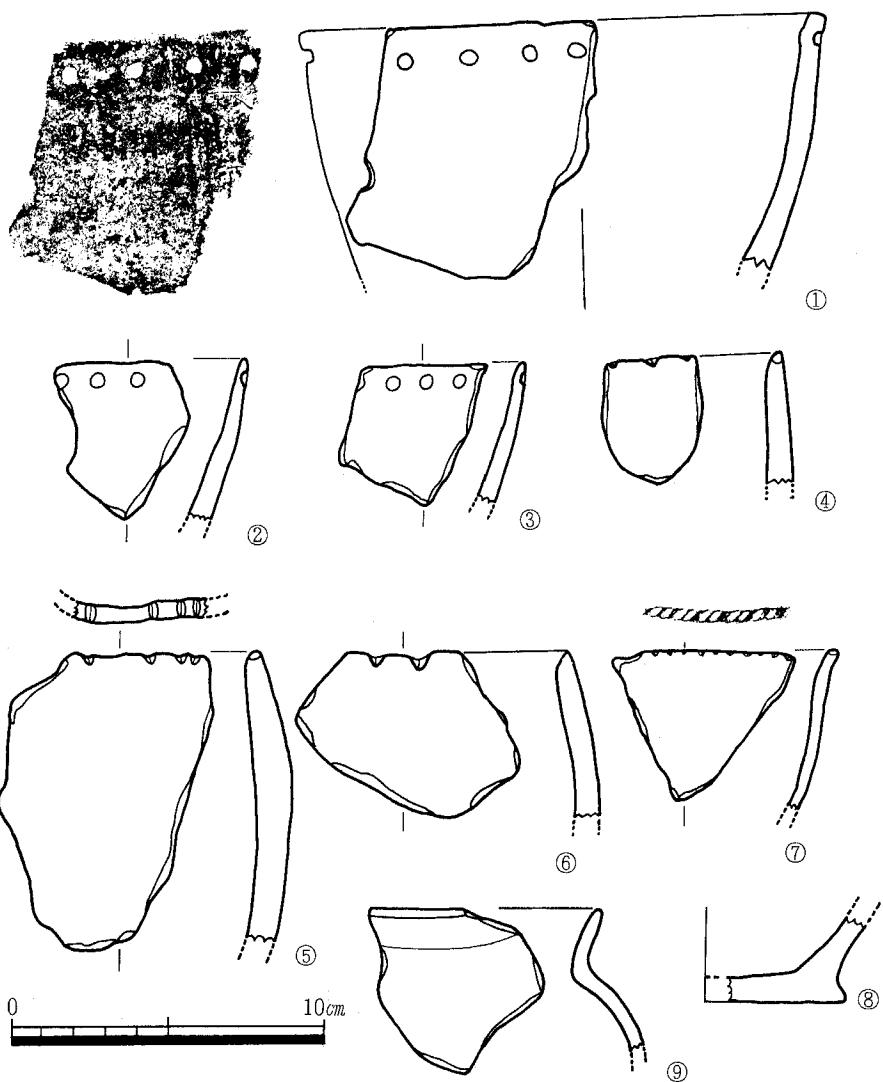
15. I 기 IV식 토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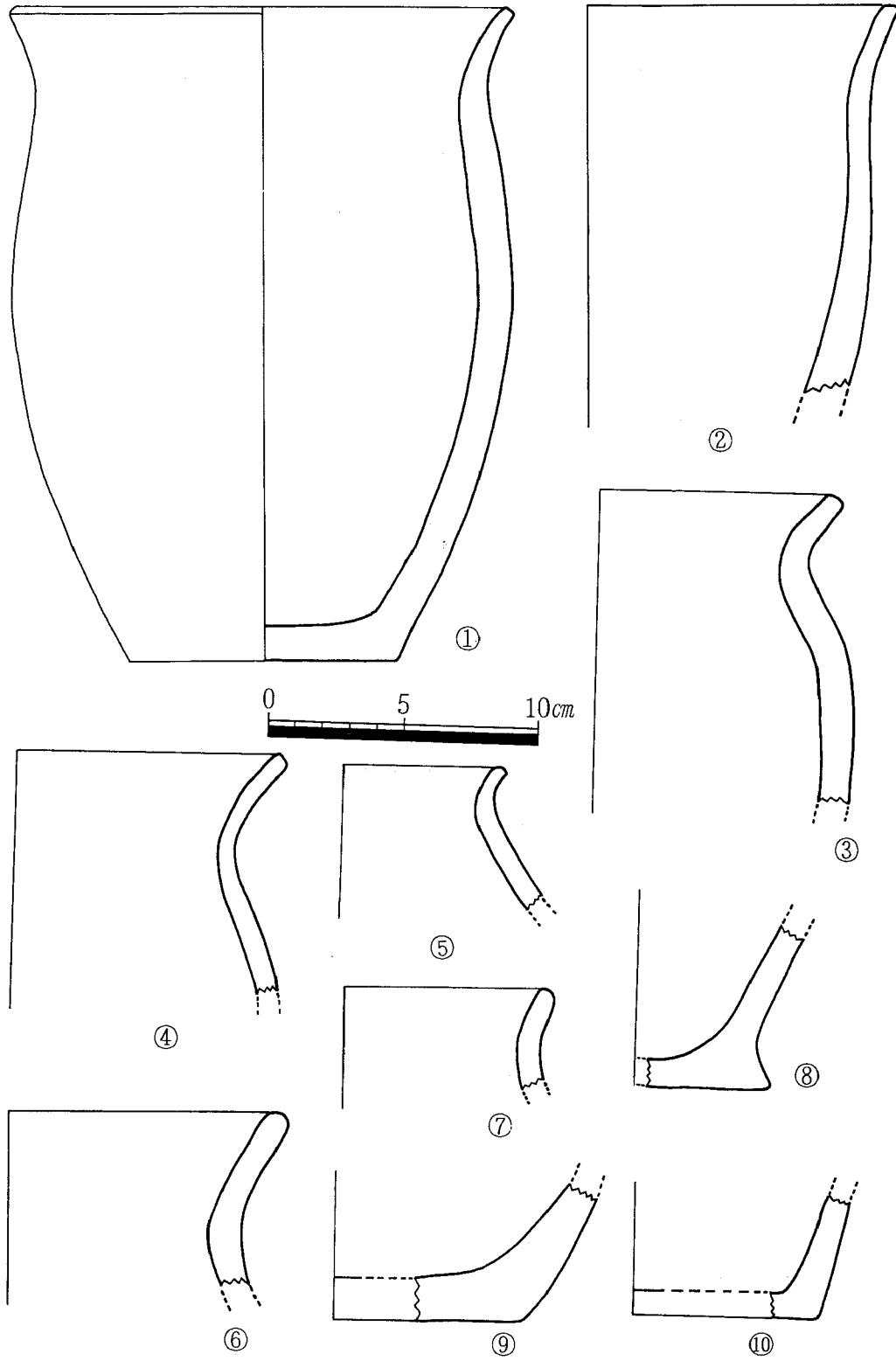
16. I 기 IV, V식 및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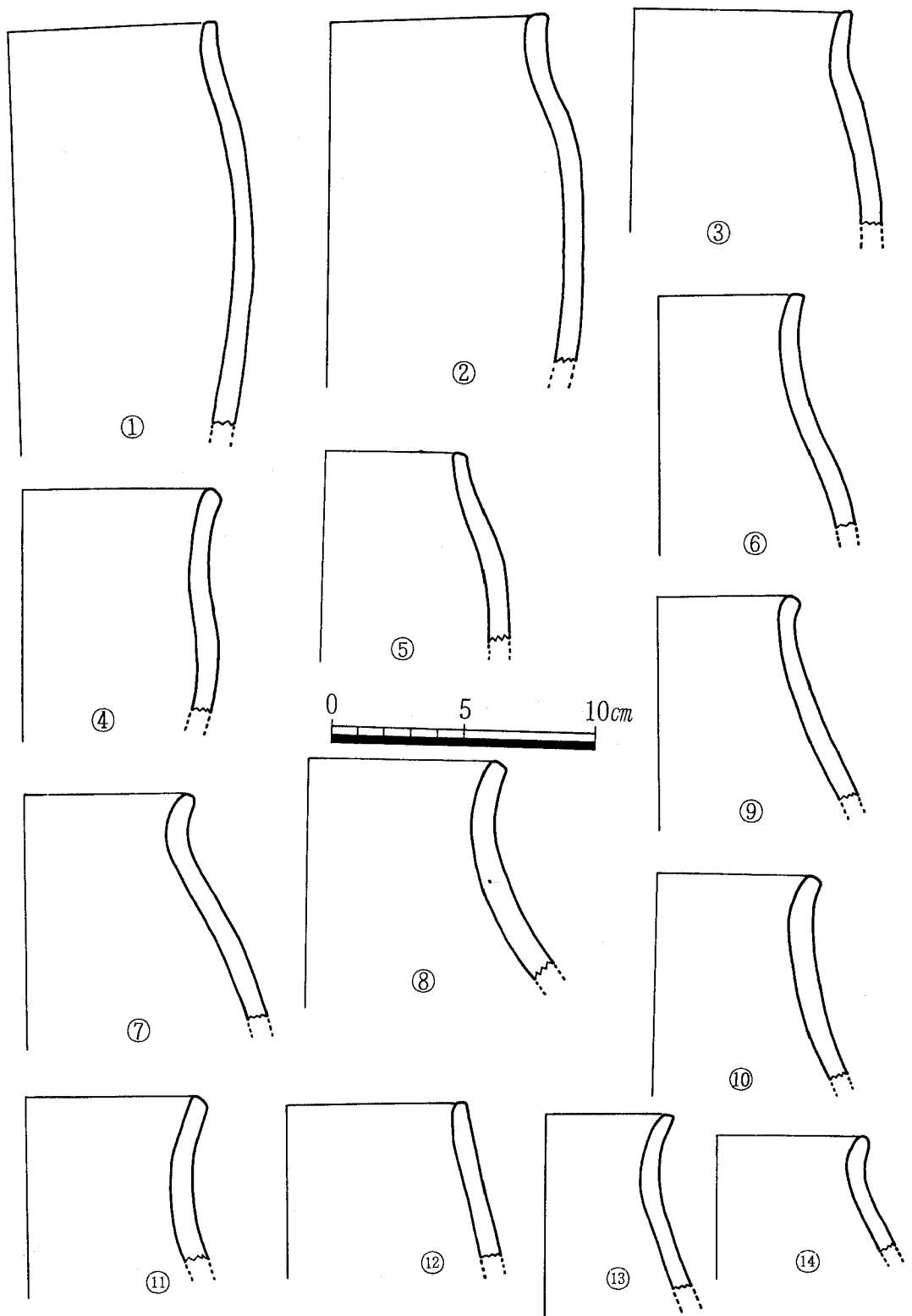
17. 1기 V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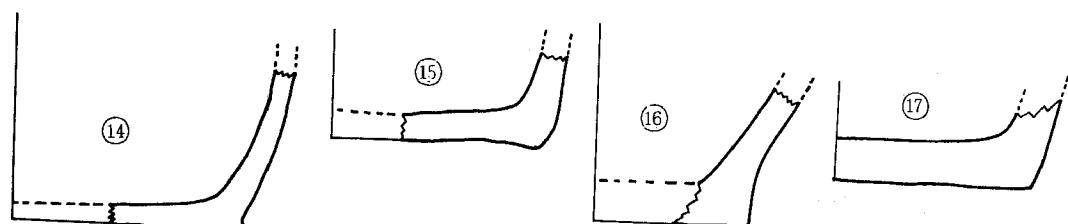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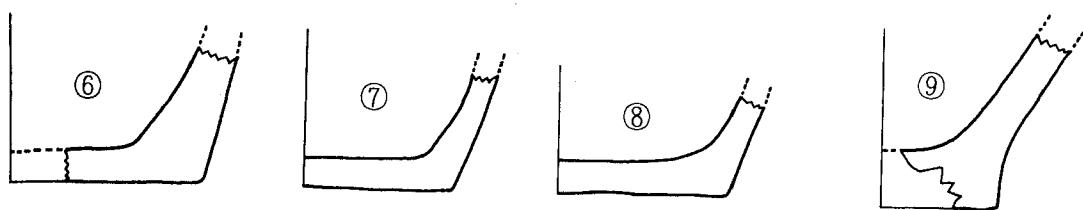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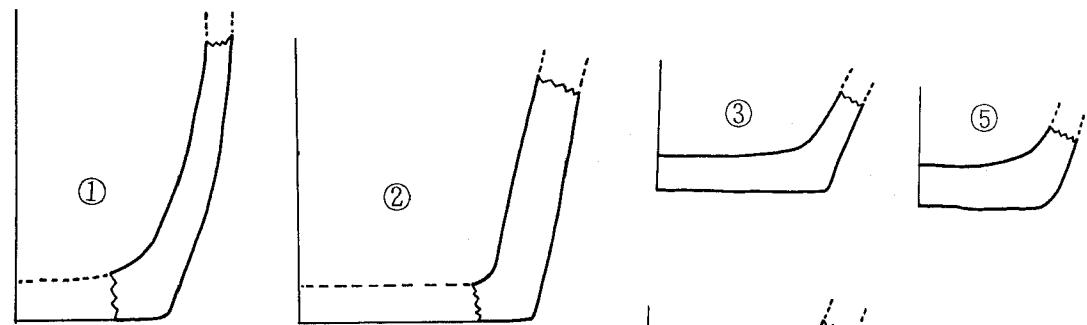
18. II 기 무문 토기편



19. III 기 적갈색 무문토기편 (꽉지 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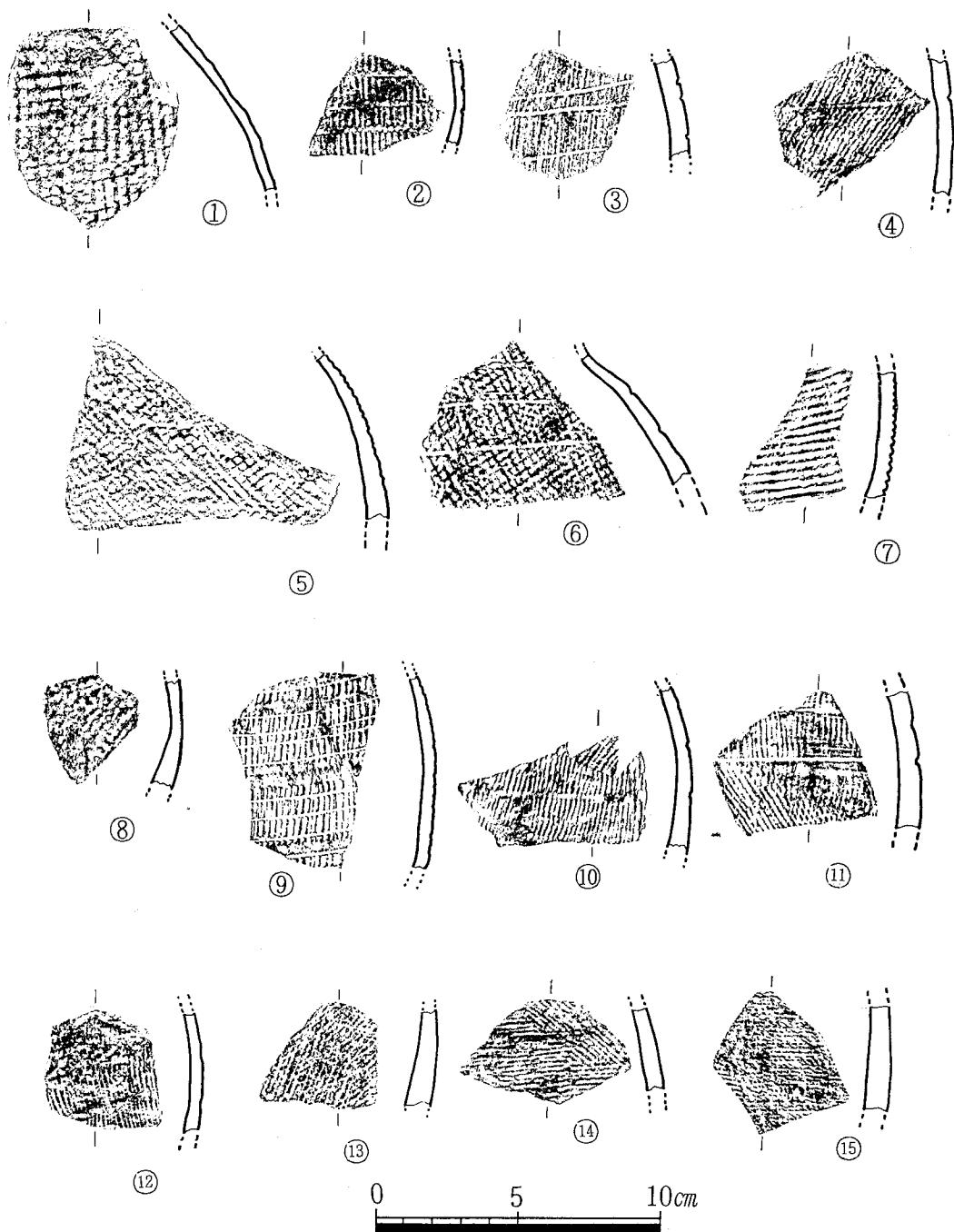


20. I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곽지 B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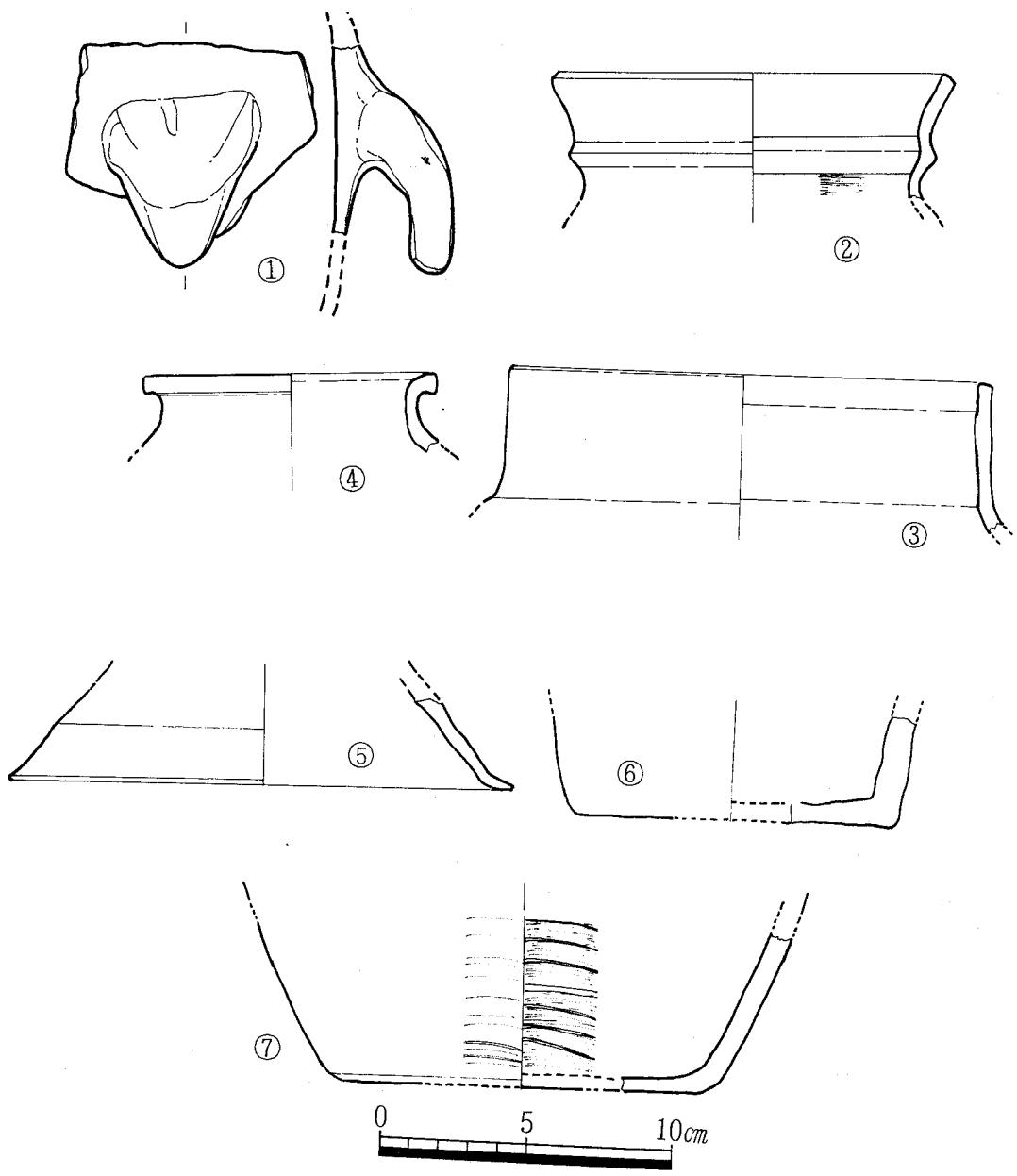


0 5 1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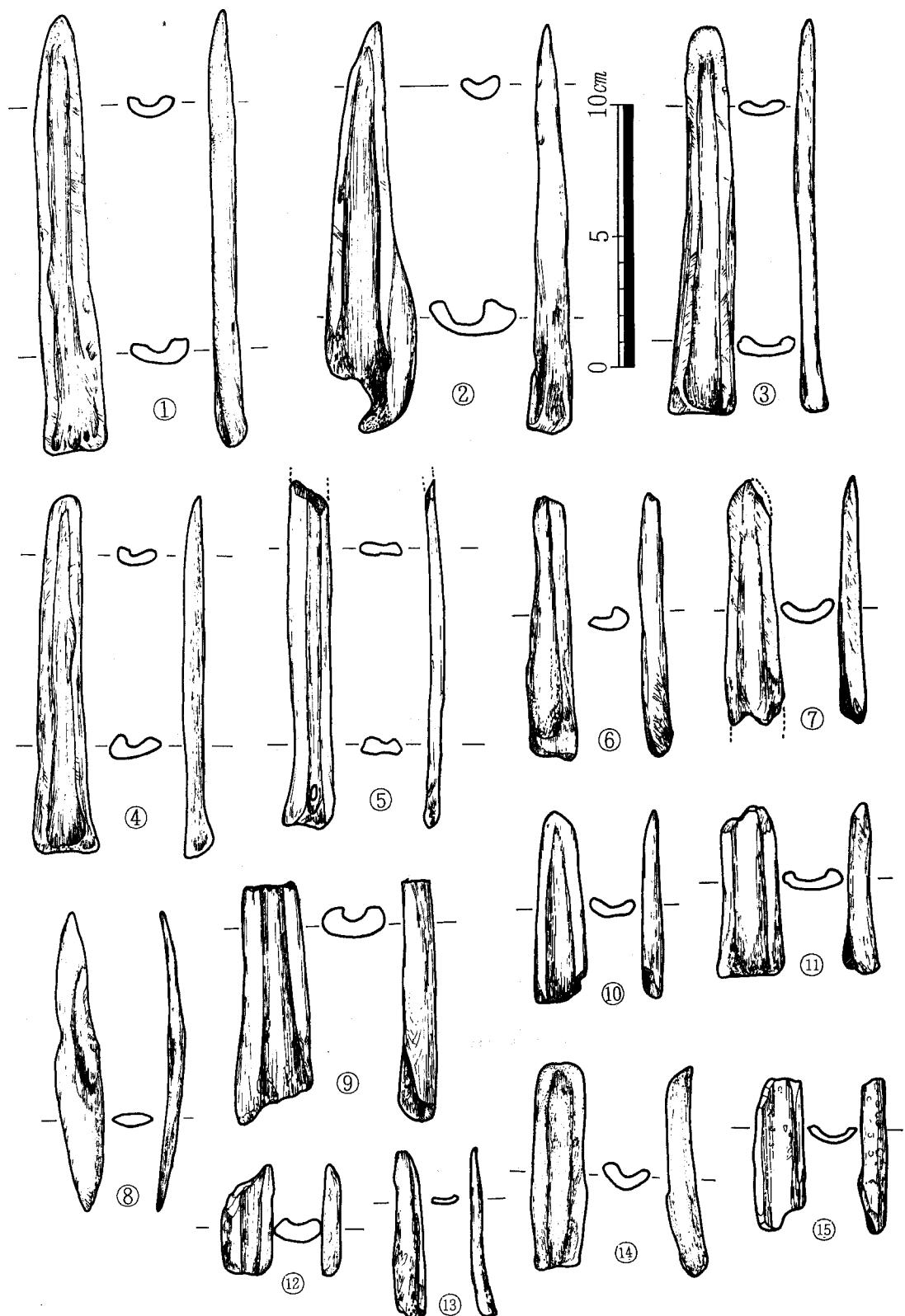
21. I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과자 B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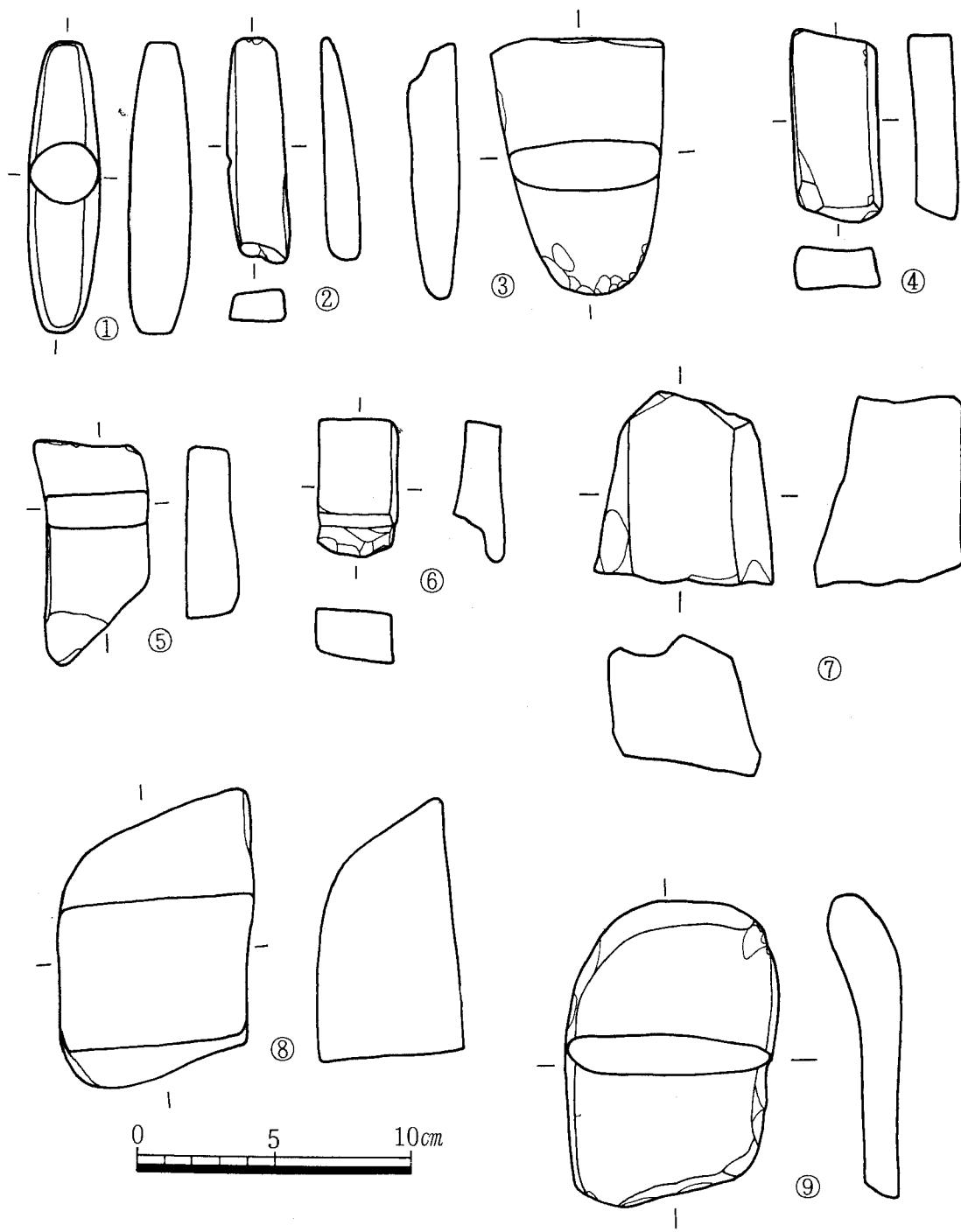
22. III. IV 기 타날무늬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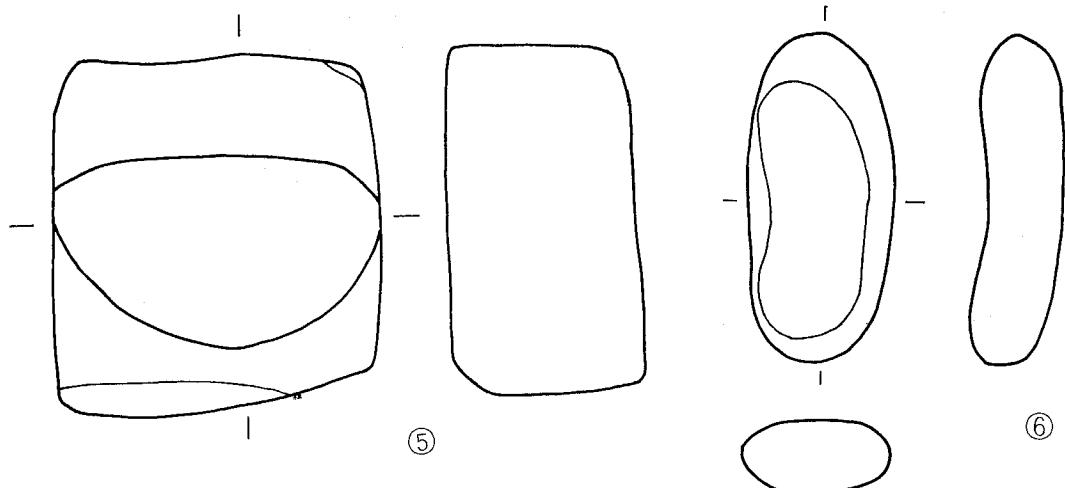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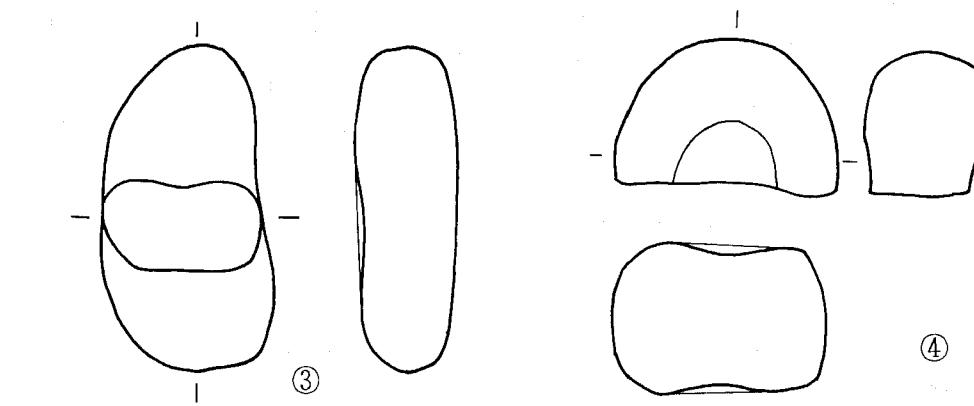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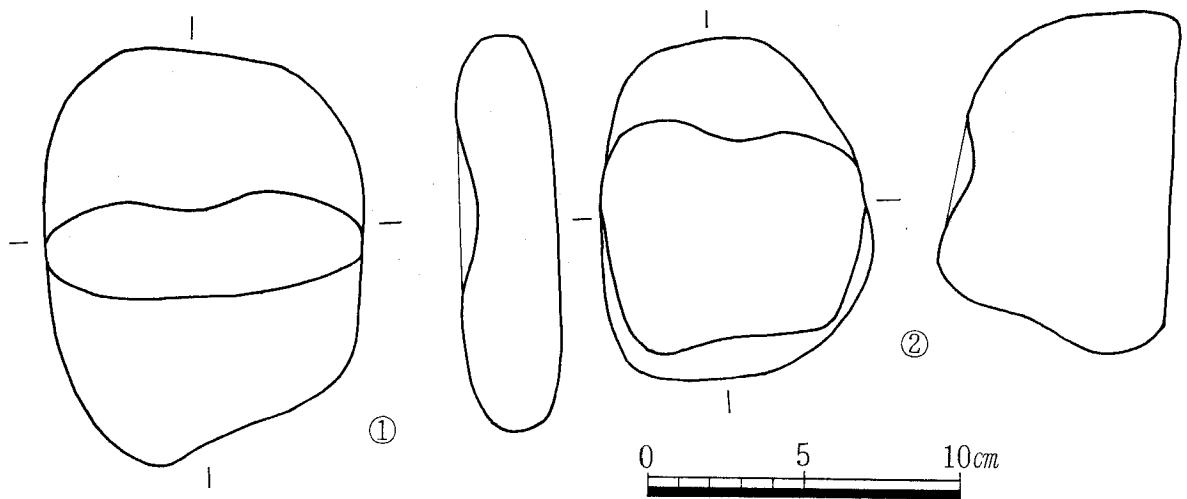
23. III. IV기 적갈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 및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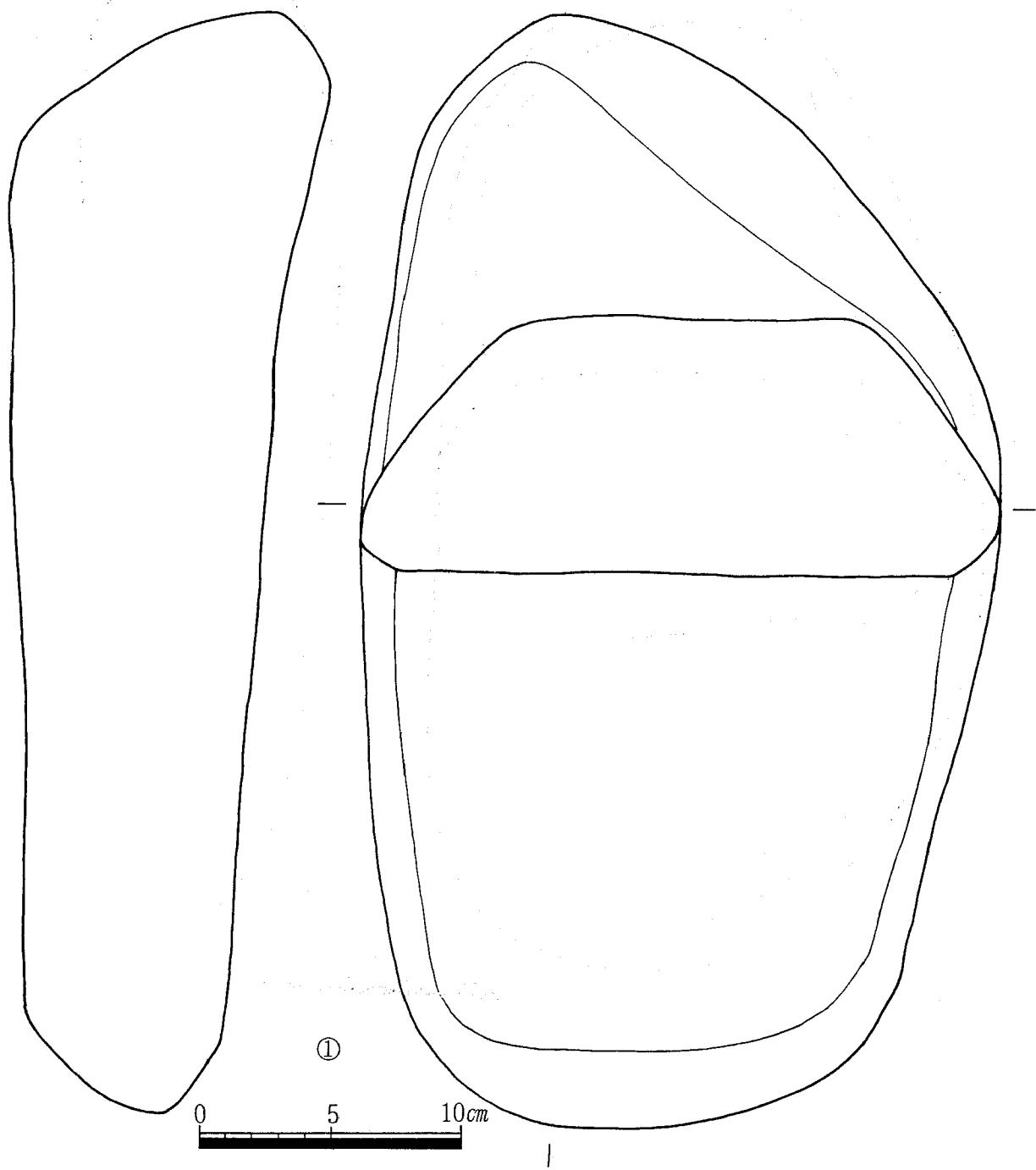
24. 1기 골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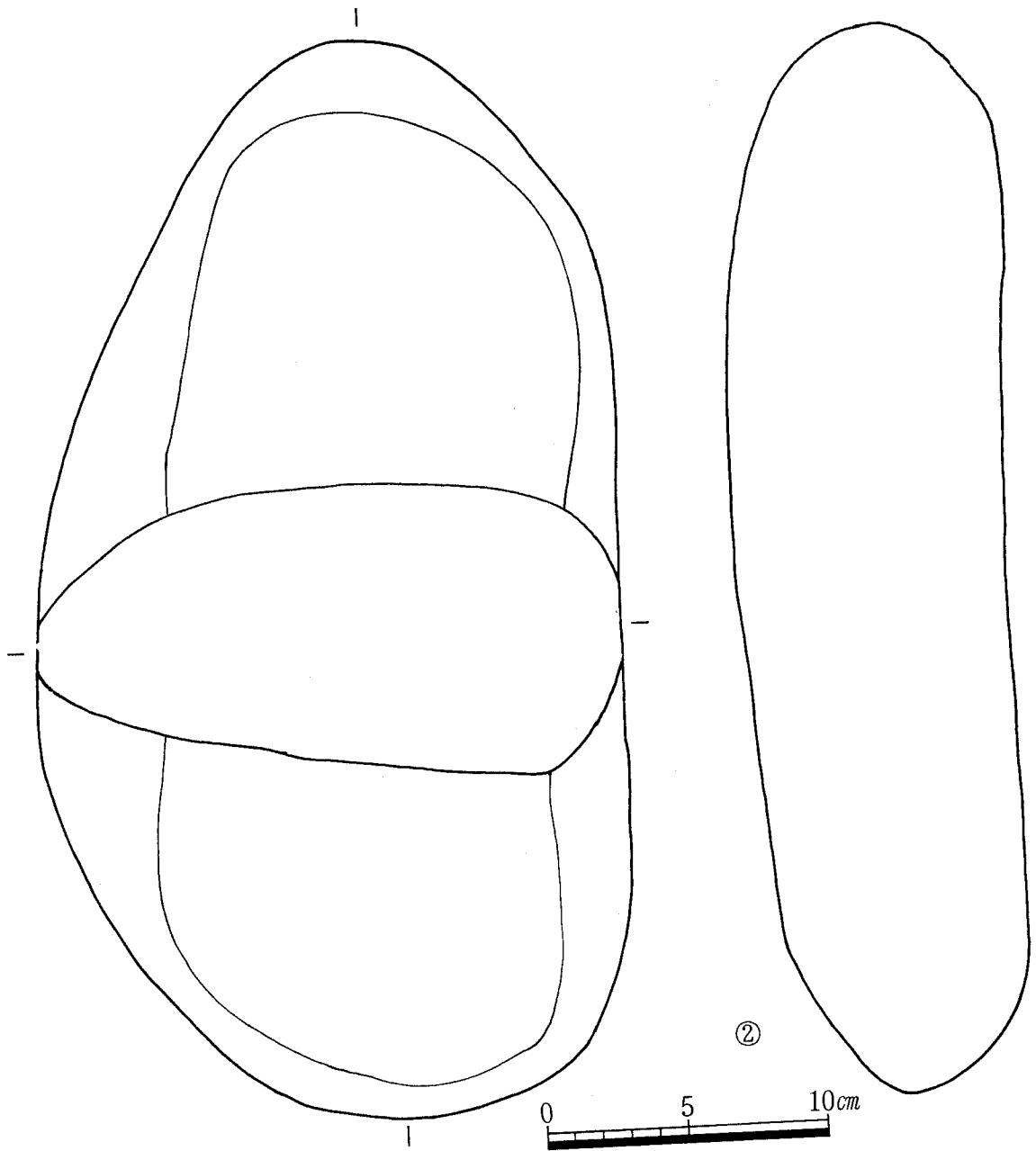
25. 출토 석기 각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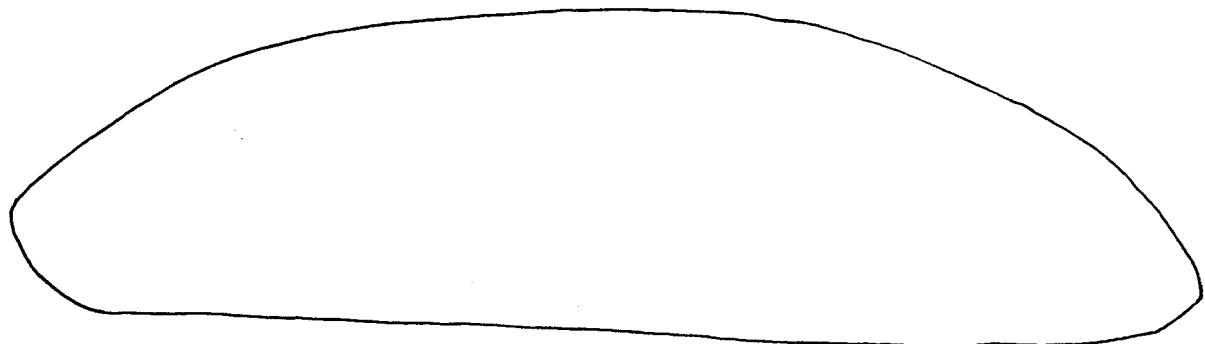


26. 출토 석기 각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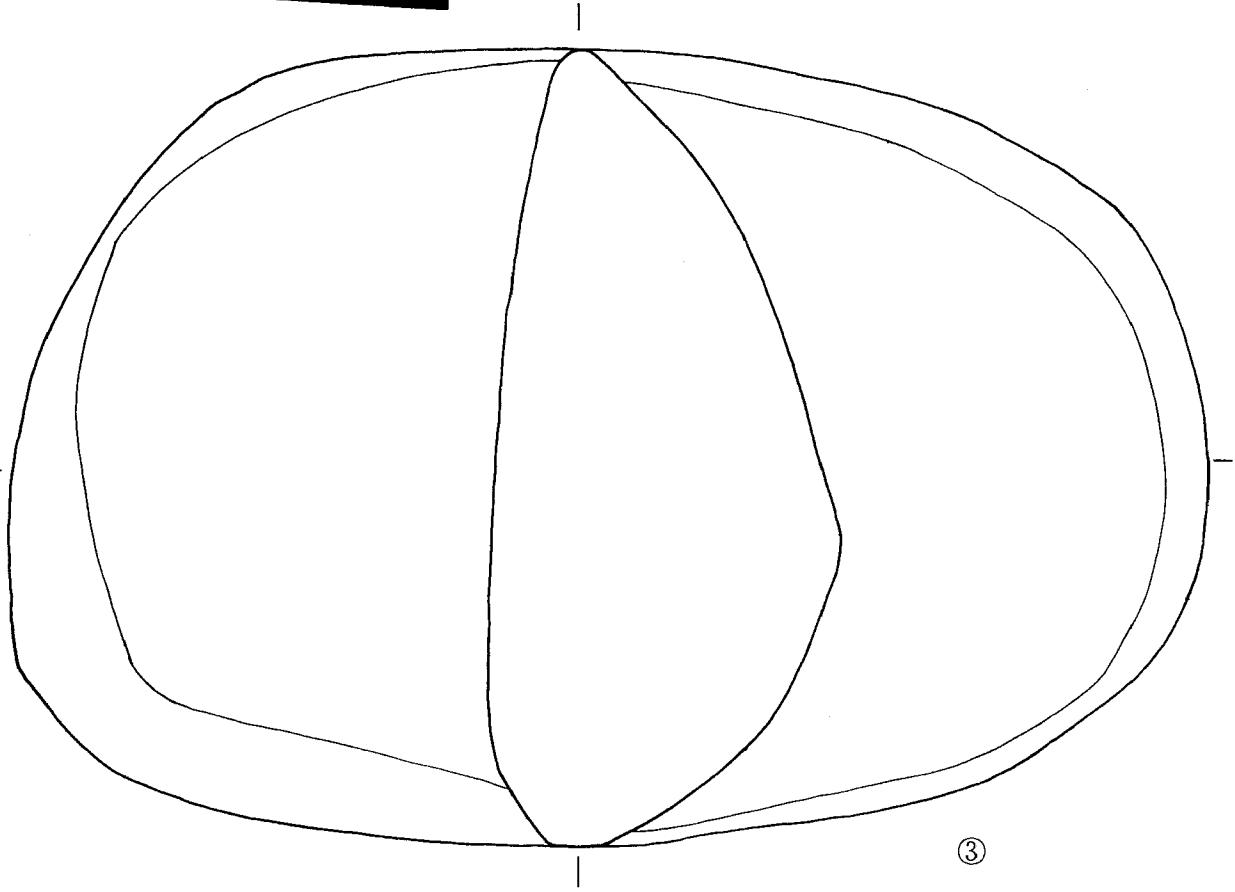


27. 출토 석기 각종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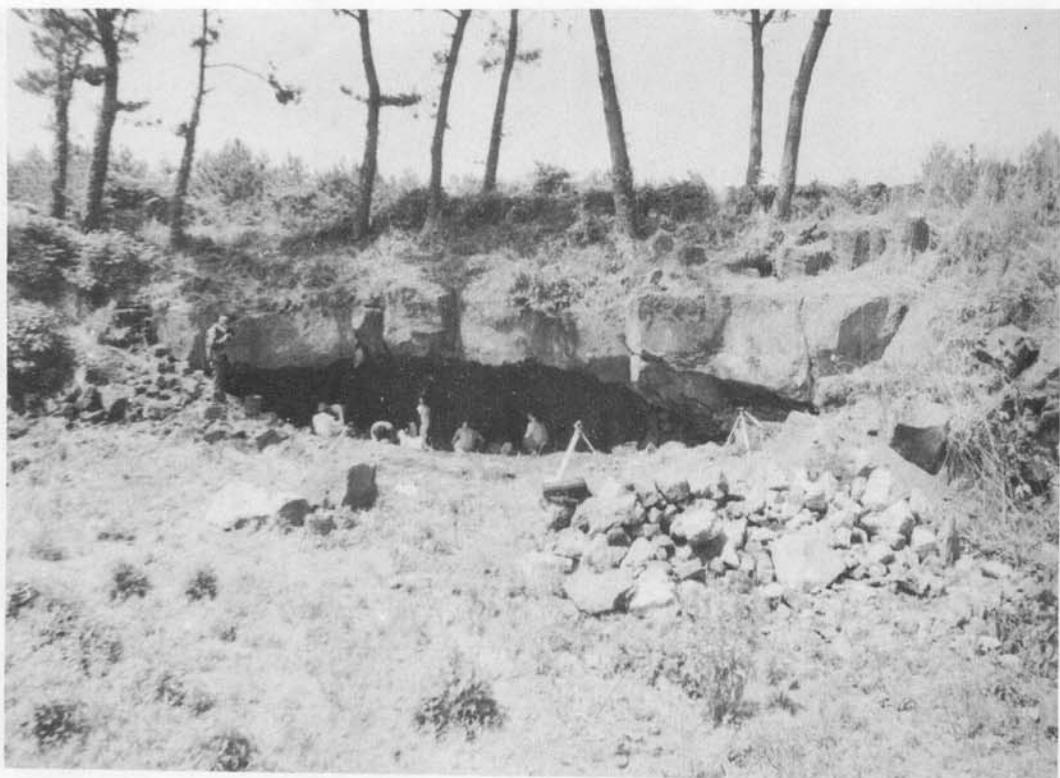




0 5 10 cm

A horizontal scale bar at the bottom left, marked with '0', '5', and '10 cm'. There are small tick marks along the bar between the labeled value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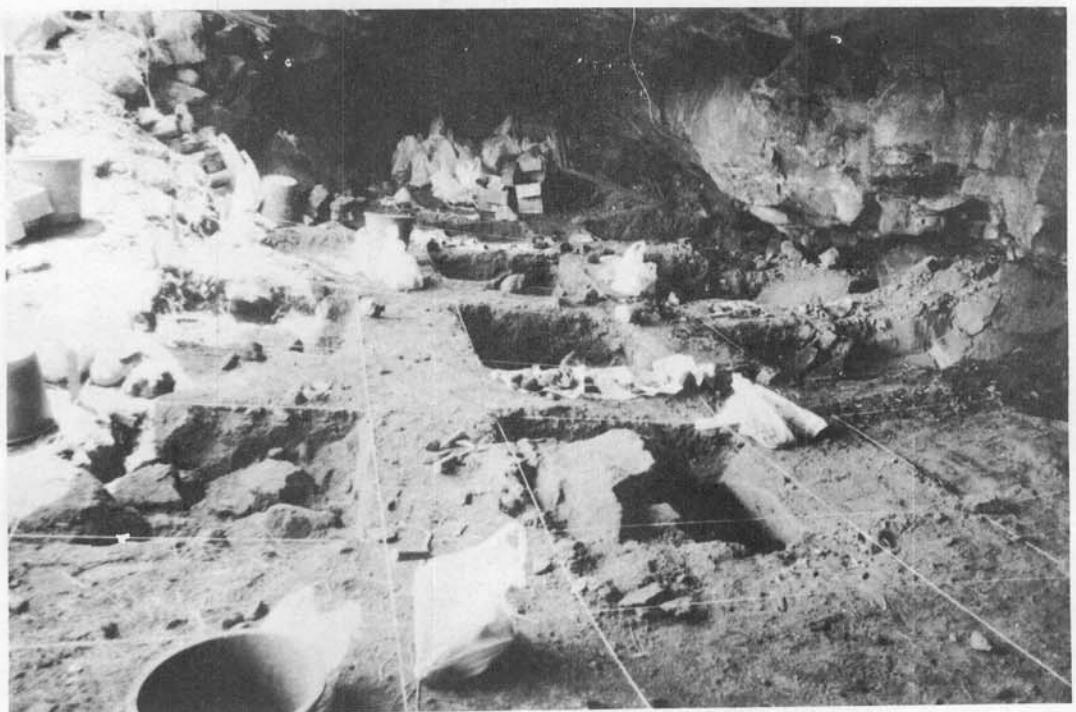
1.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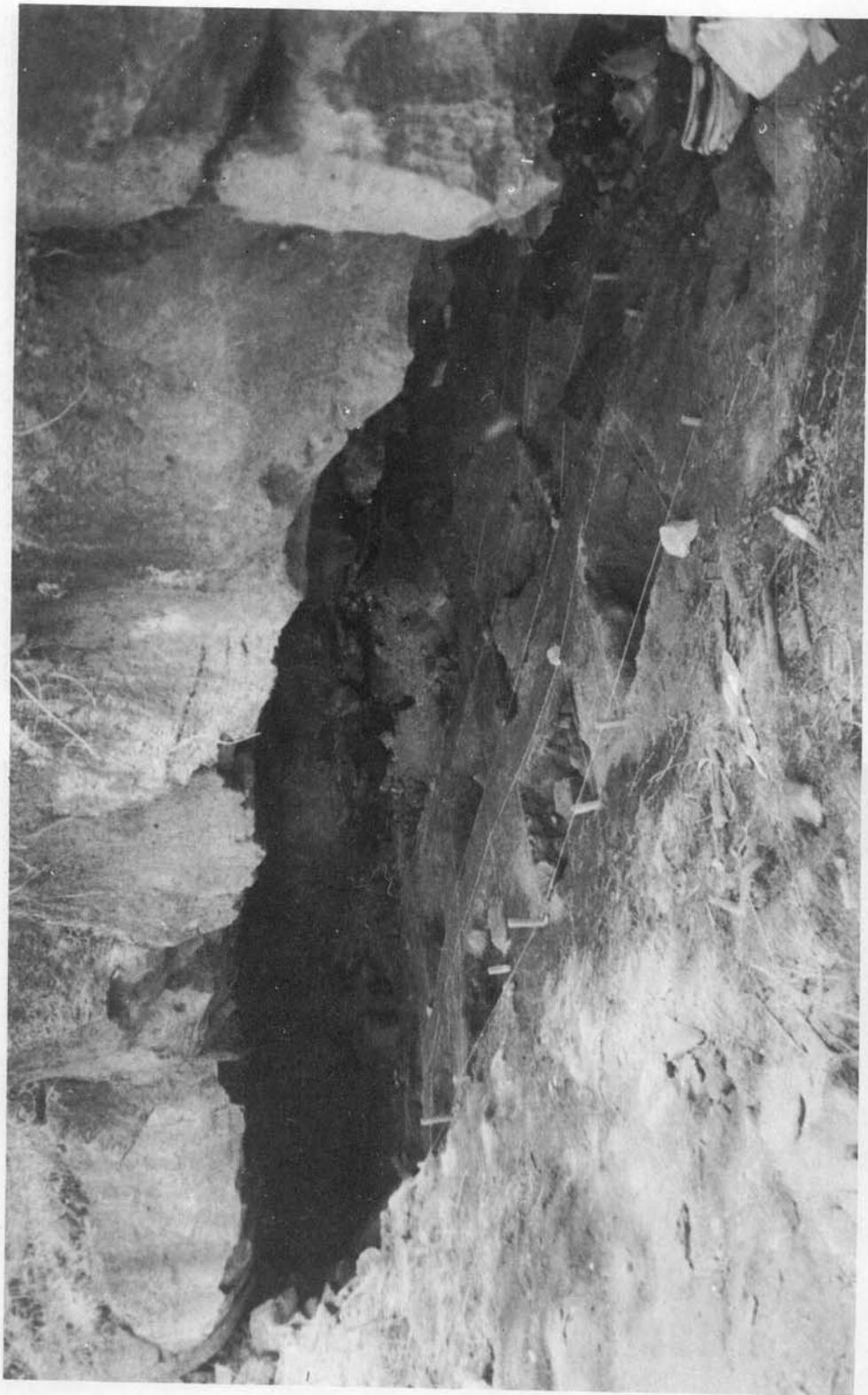
2. 북촌리 rock-shelter 유적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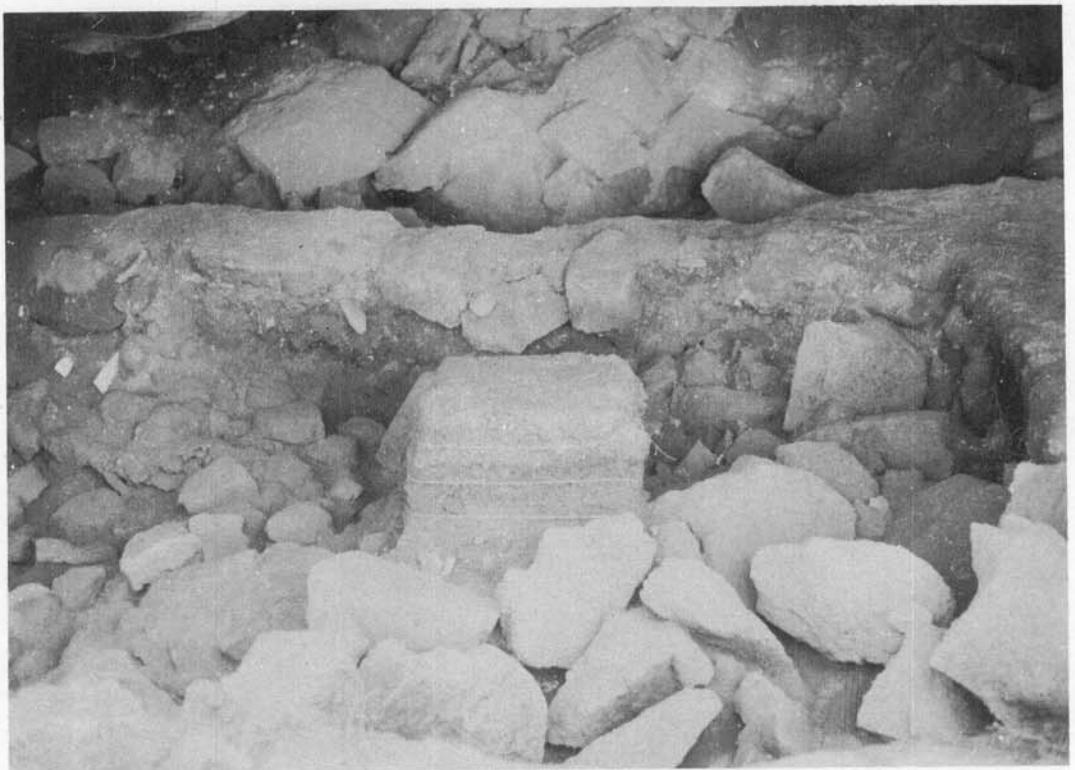
3. 유적 발굴 광경



4. pit 발굴 상황 (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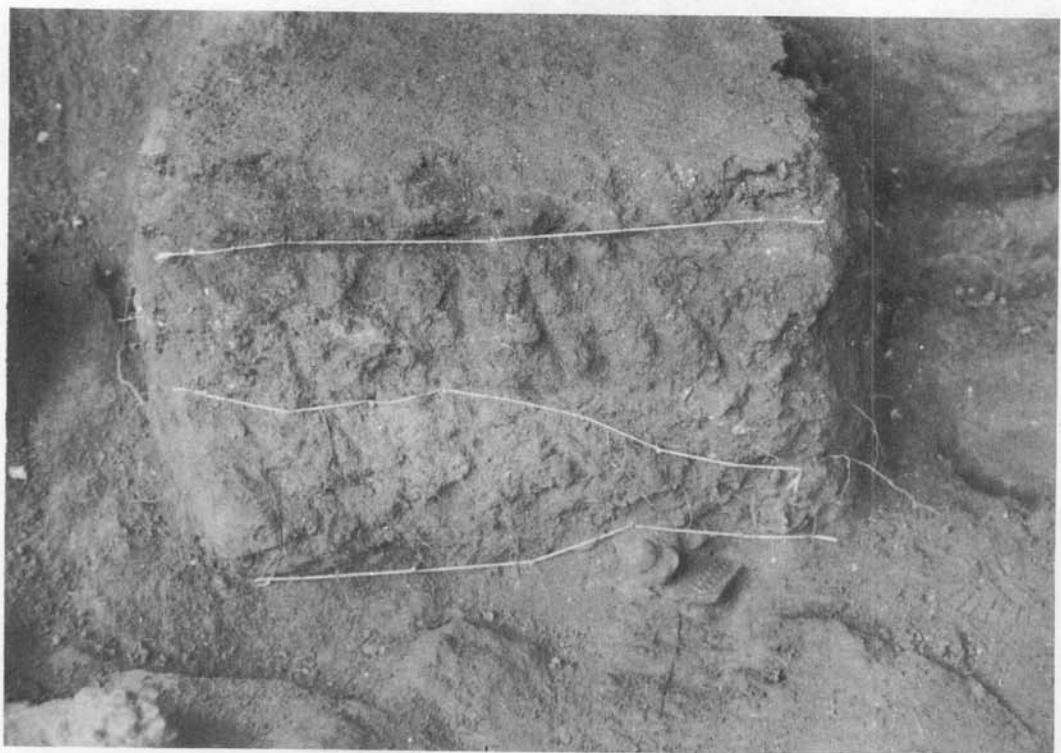
5. pit 발굴 상황(남서쪽 바깥에서)



6. Baulk 일부 제거후 상황(유적 동쪽 구역)



7. Baulk 일부 제거후 상황(유적 서쪽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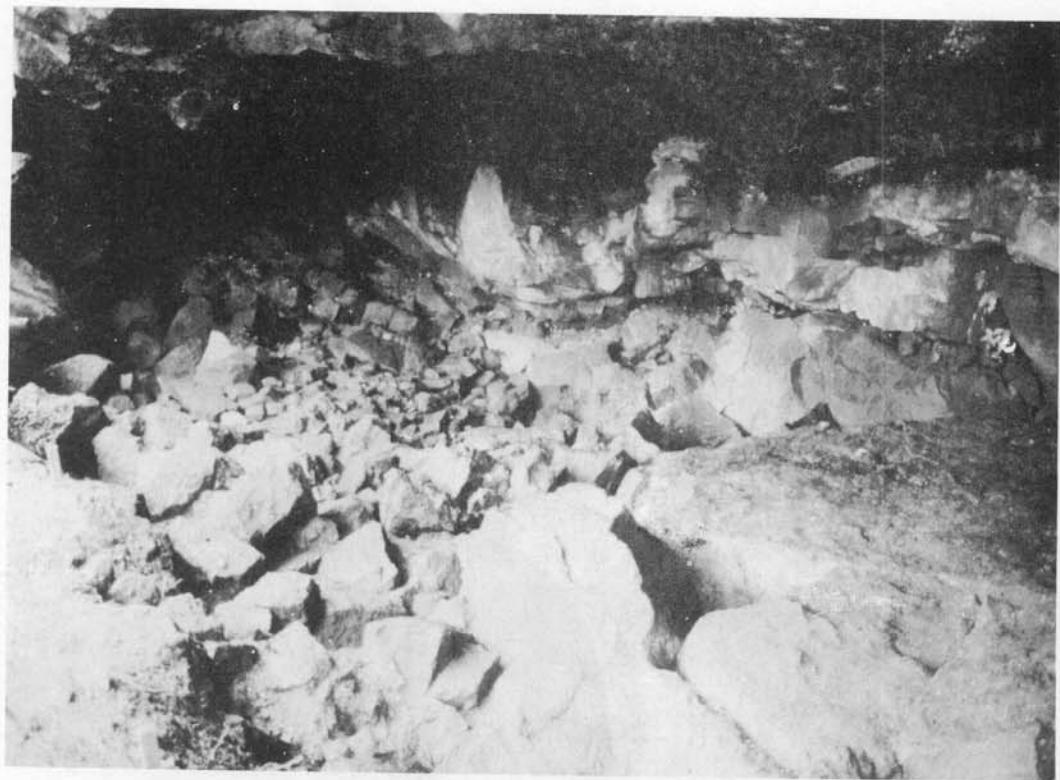
8. 퇴적 층위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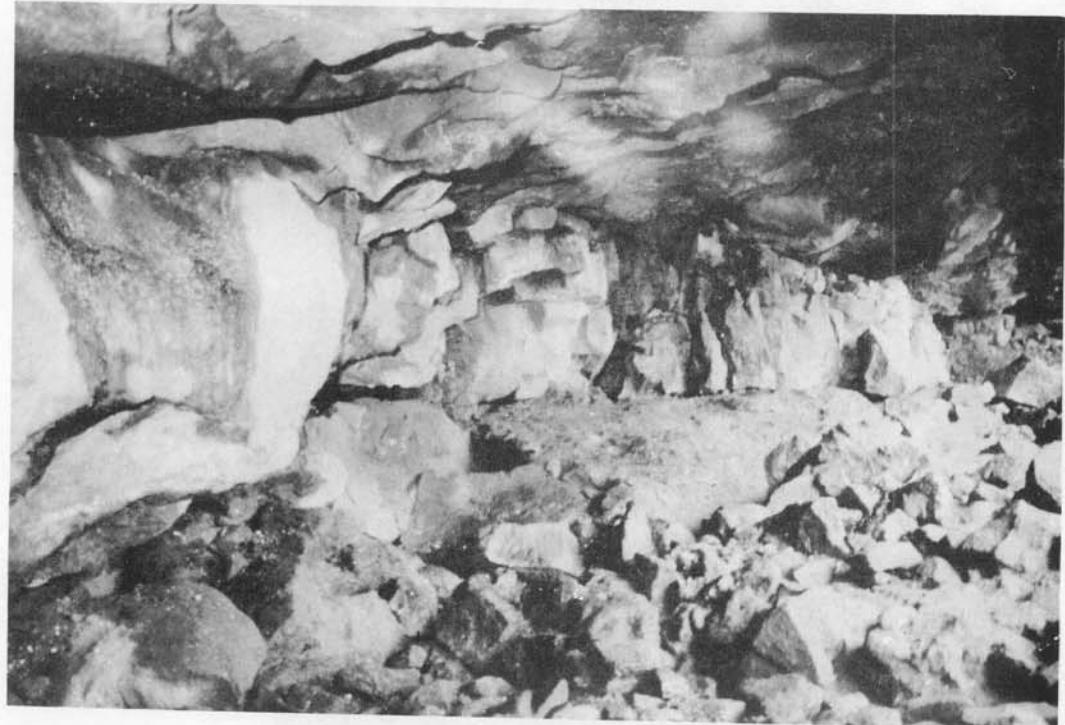
9. 최하층의 압날 점렬토기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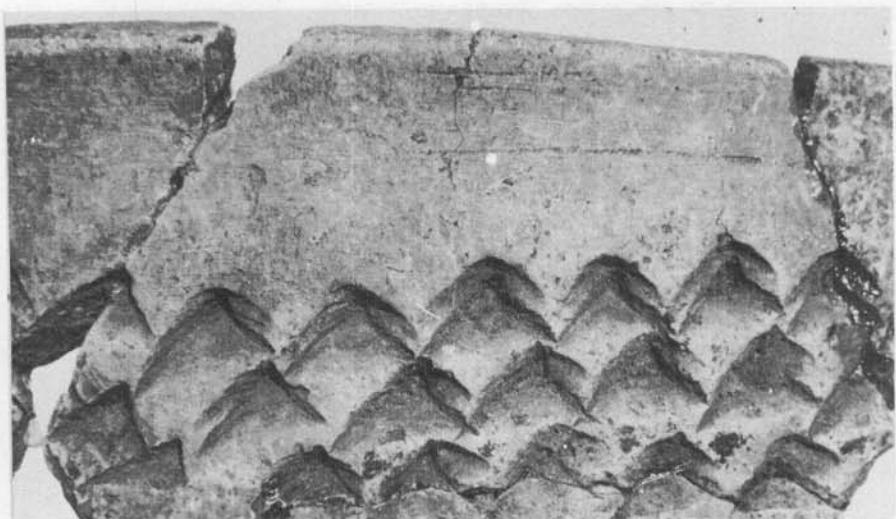
10.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남쪽 바깥에서)



11.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 (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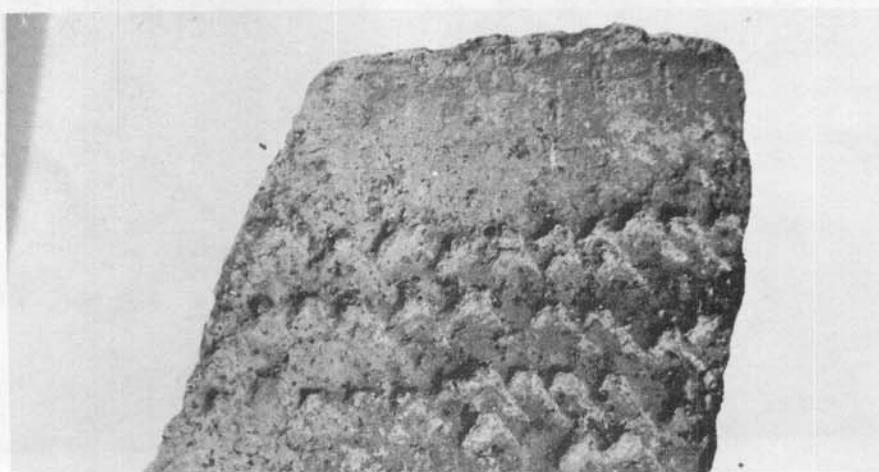
12. 발굴 완료후 유적 내부의 전경 (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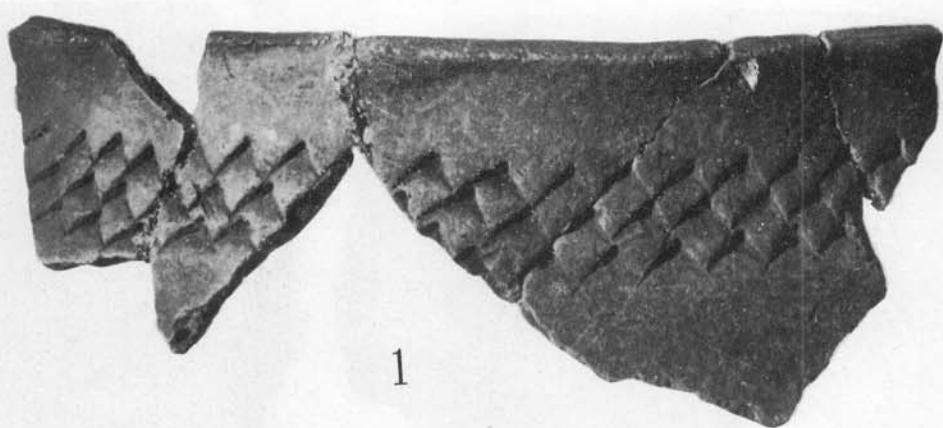
13. 1기 1식 A류 토기 시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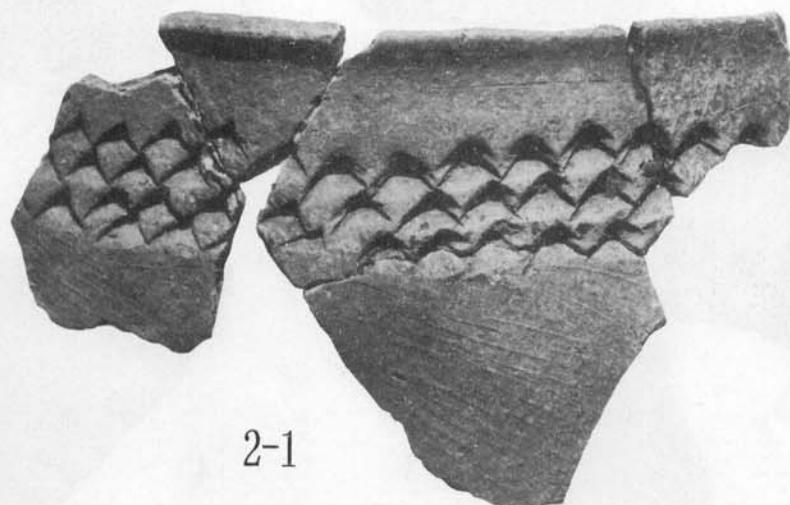
14. 1기 1식 B류 토기 시문 상태



15. 1기 1식 C류 토기 시문 상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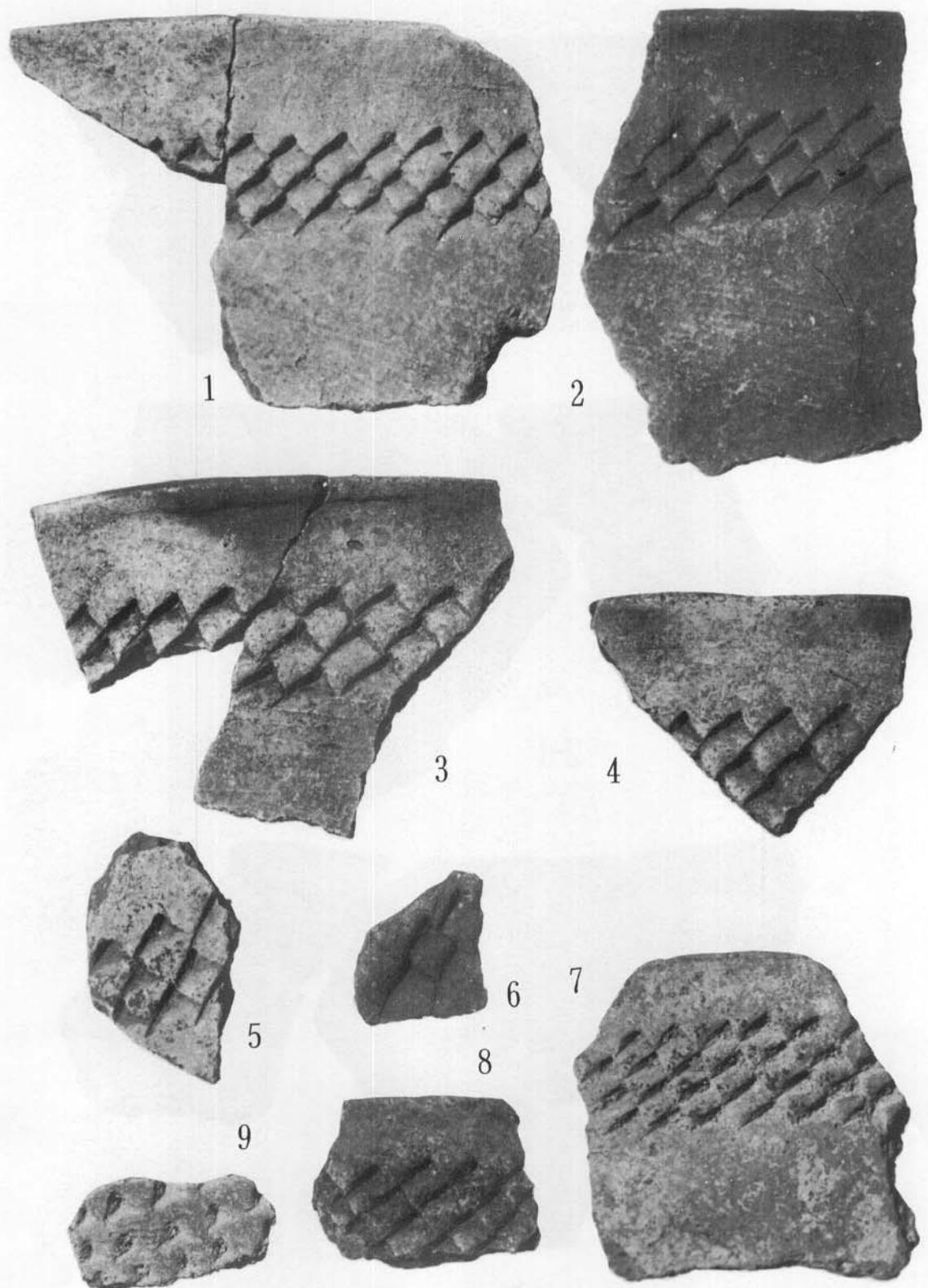


2-1



2-2

16. | 기 | 식 A류 토기편(1)



17. 1기 1식 A류 토기편(2)



1-1



2-1



1-2



2-2



3-1



3-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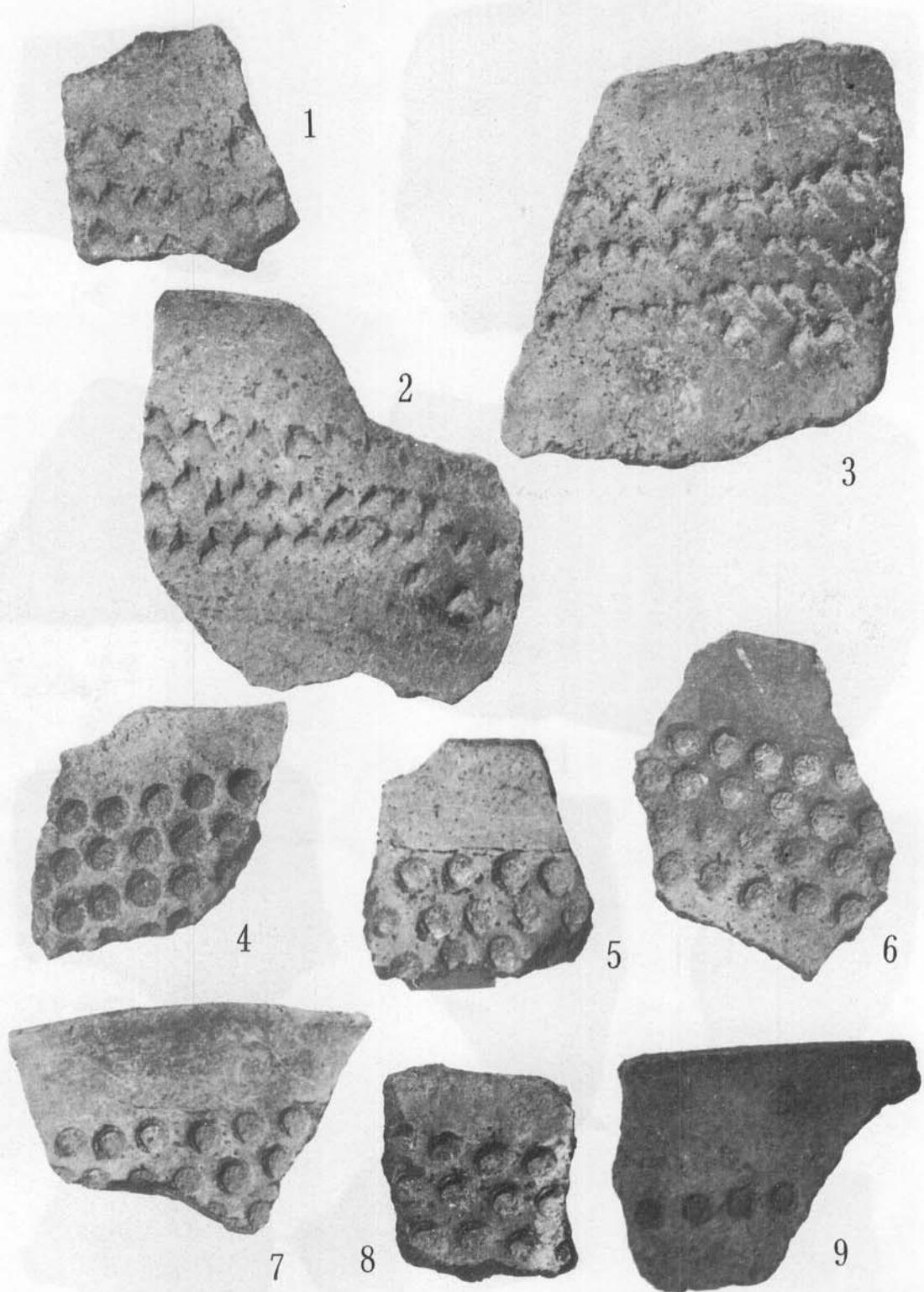
4



18. 1기 1식 B, C류 토기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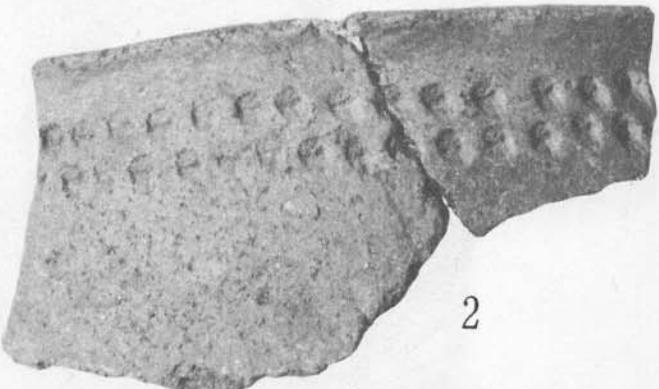
7



19. 1기 1식 C, D류 토기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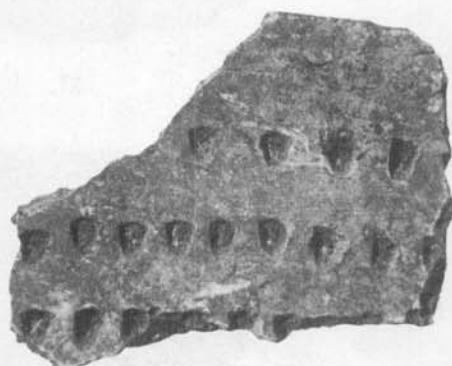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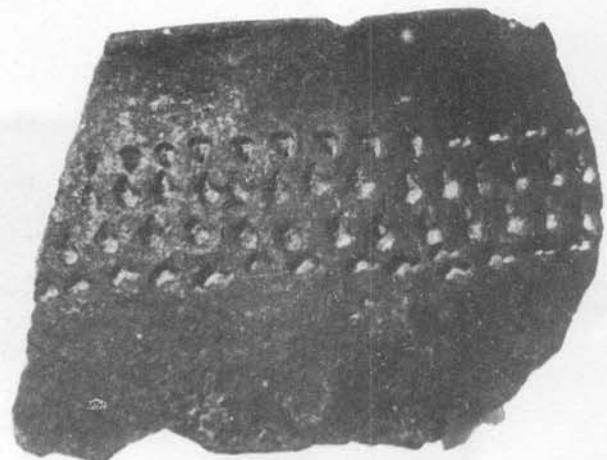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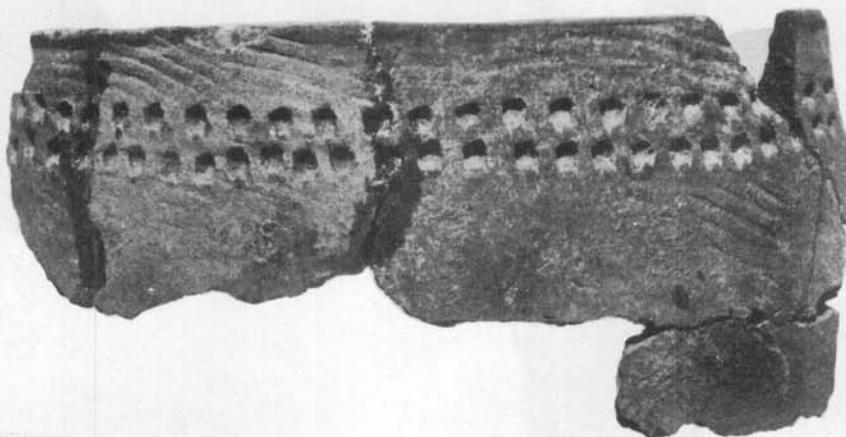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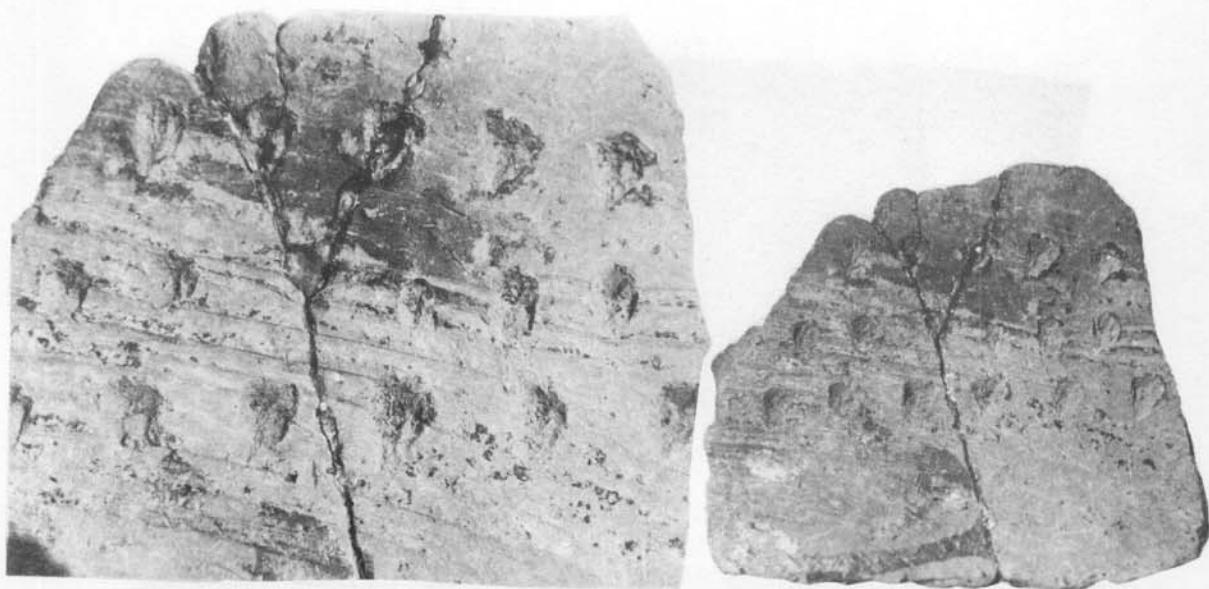
20. 1기 1식 E, G, I류 토기편



21. 1기 1식 F류 토기 시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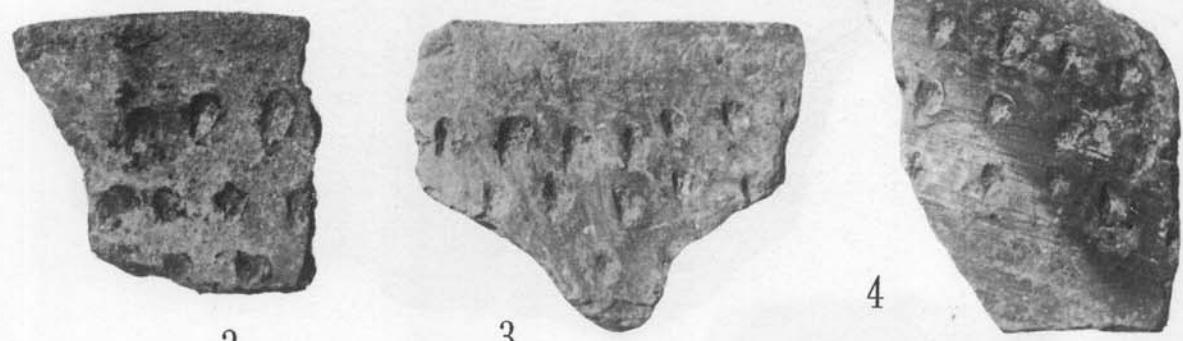


22. 1기 1식 F류 토기편



23. 1기 1식 H류 토기 시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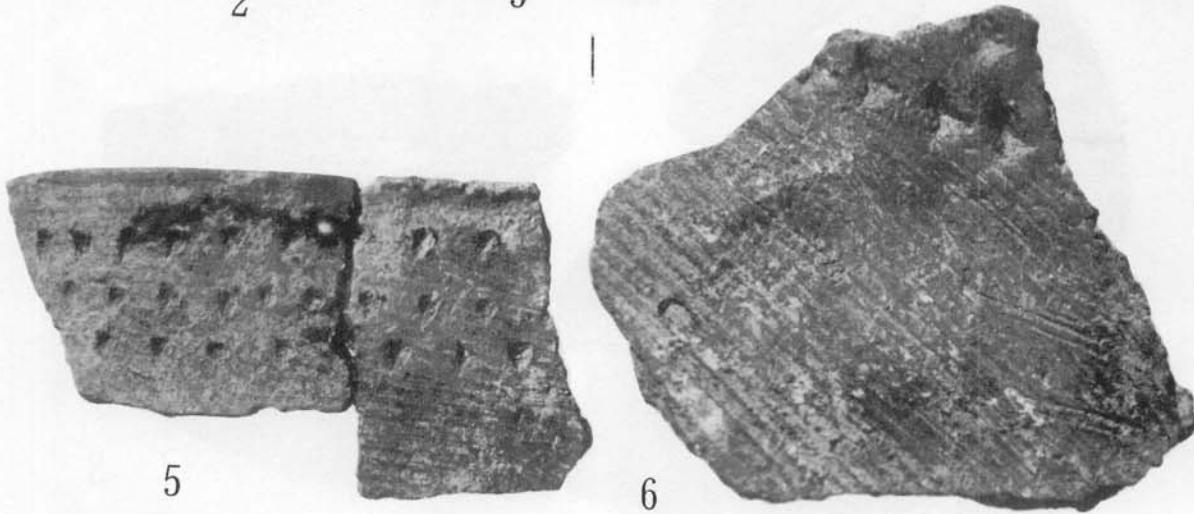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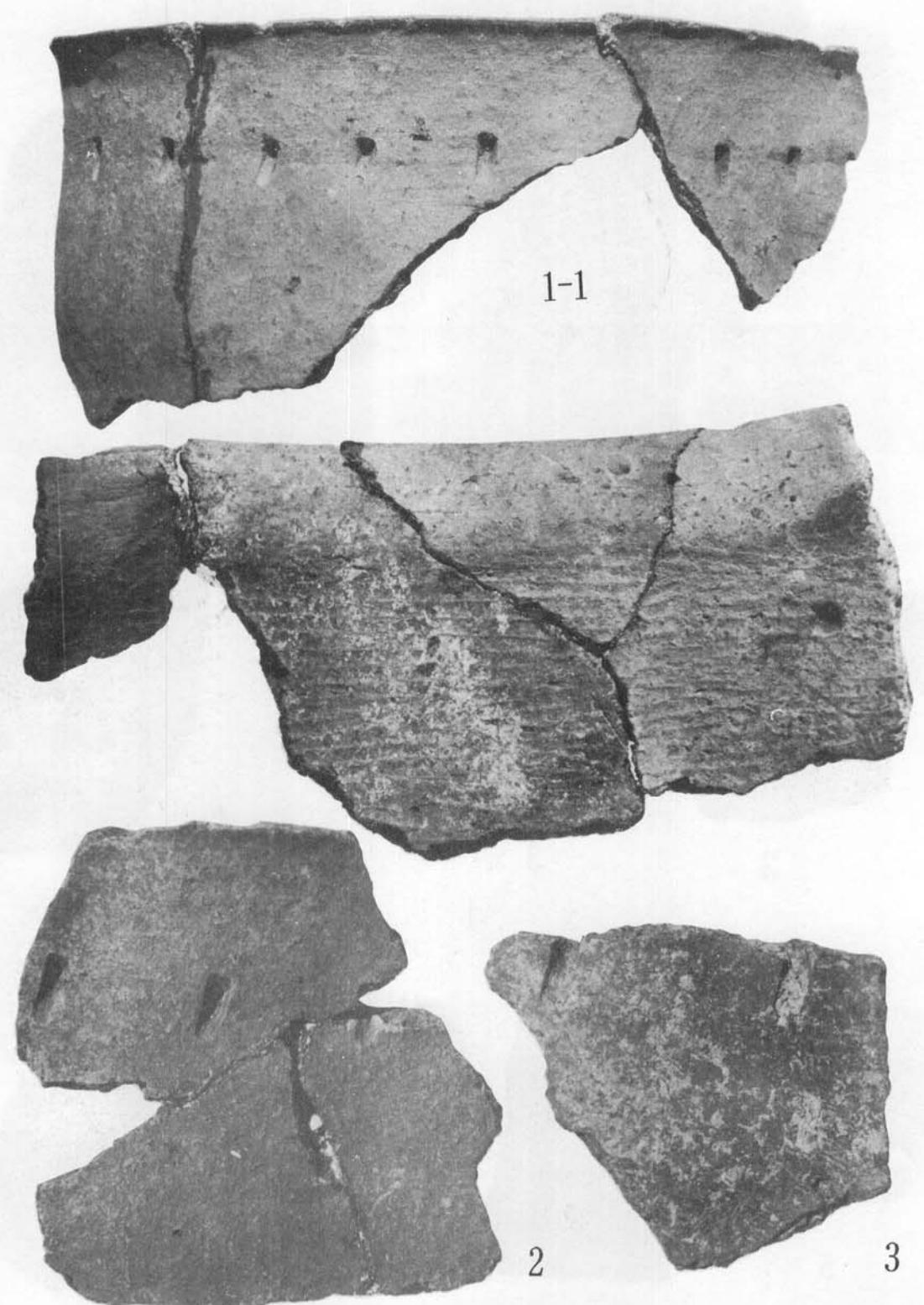
4



5

6

24. 1기 1식 H류 토기편



1-1

2

3

25. 1기 II-1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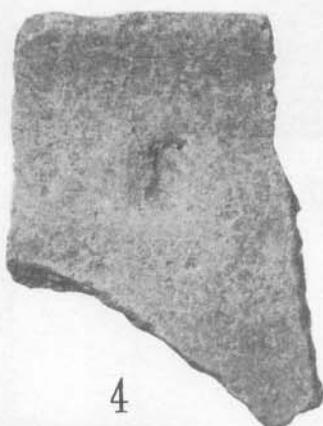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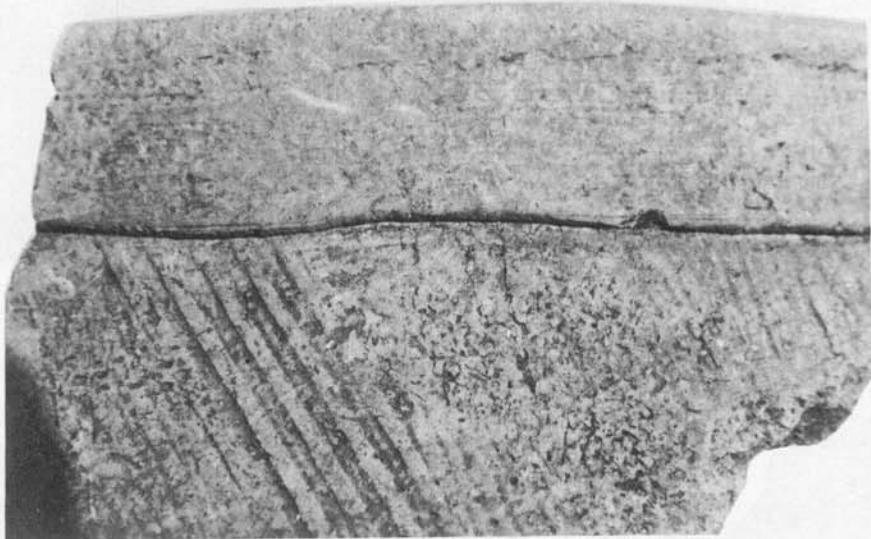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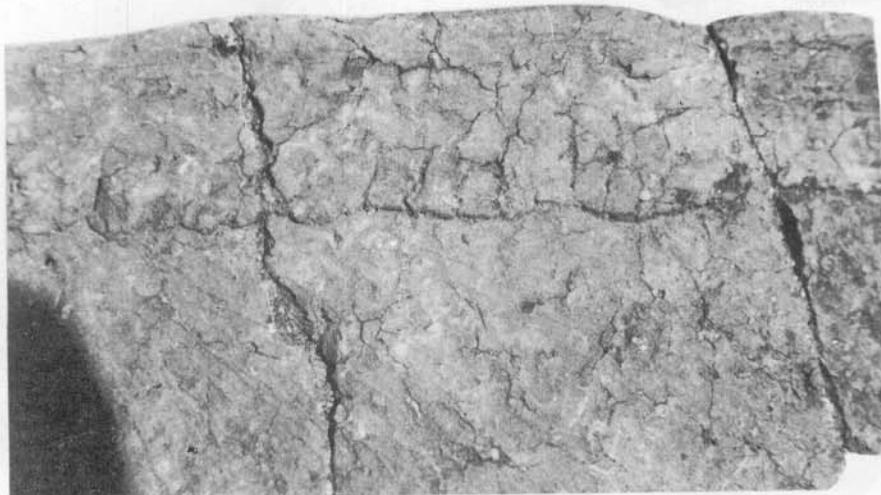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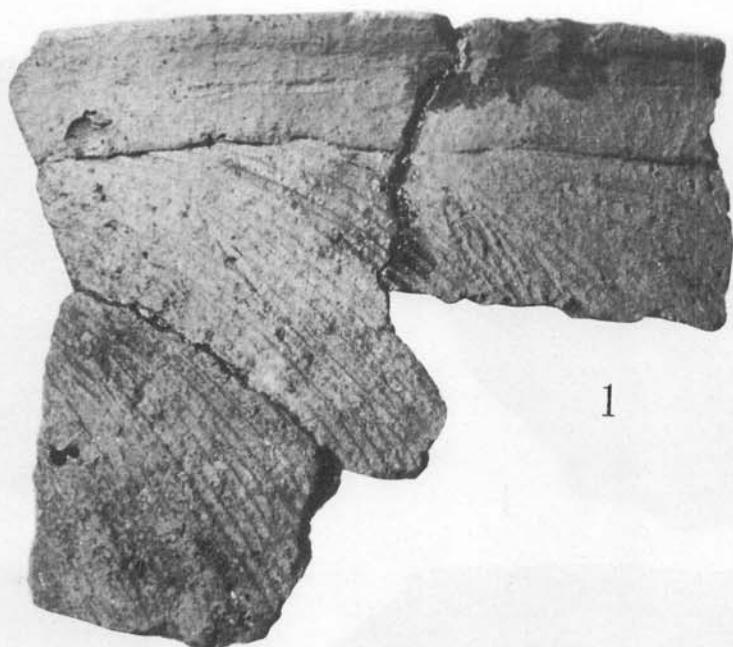
26. I 기 II-2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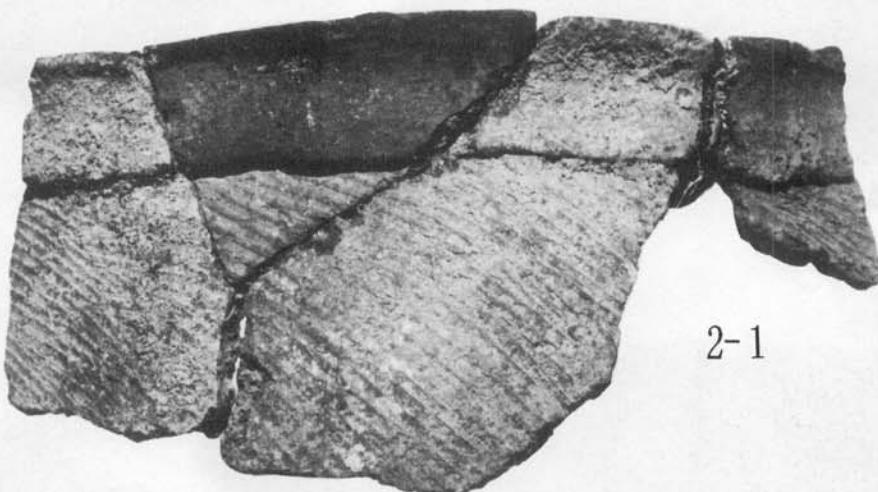
27. I 기 III-1, 2식 구연부 처리 상태



28. I 기 III-3식 구연부 처리 상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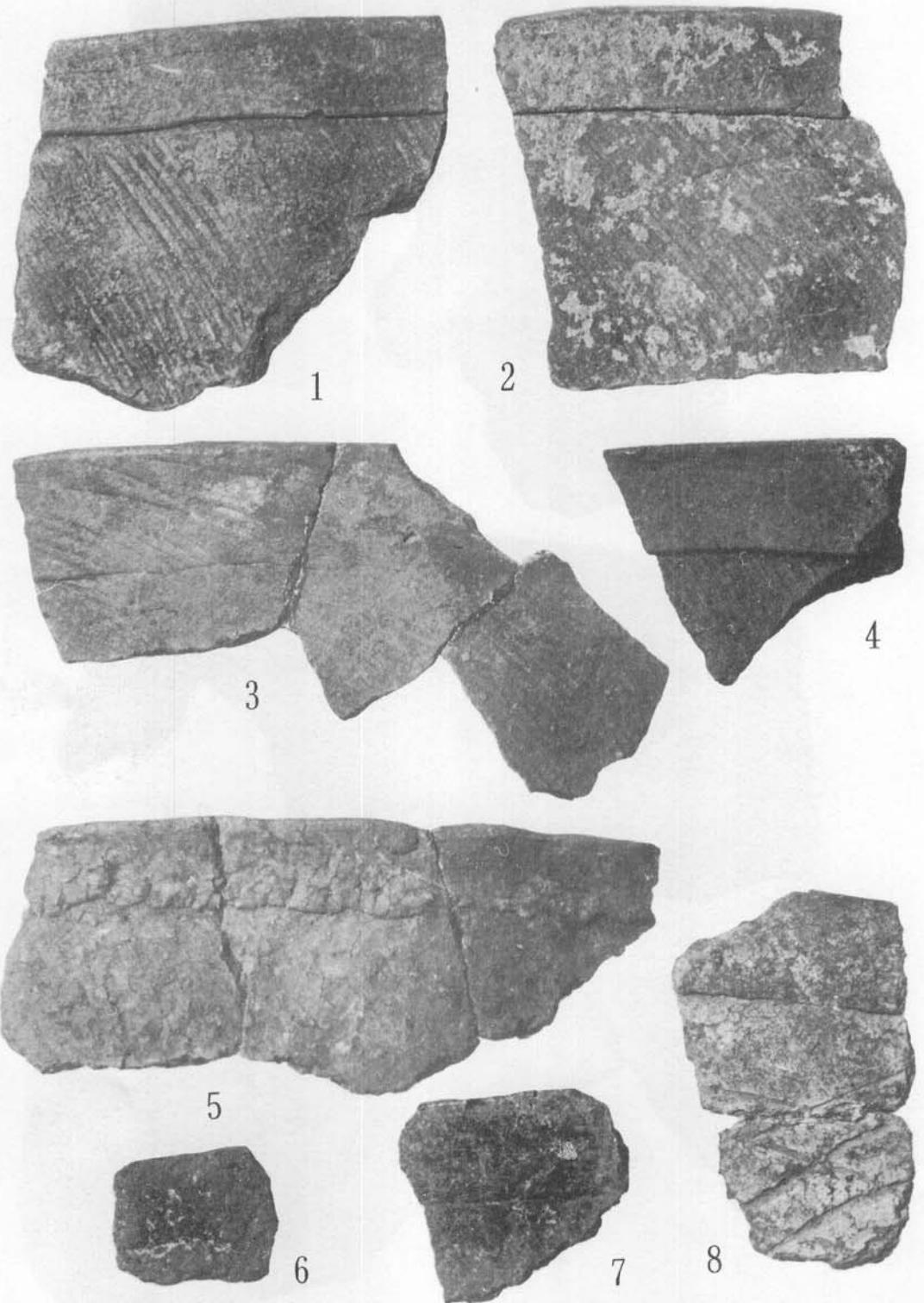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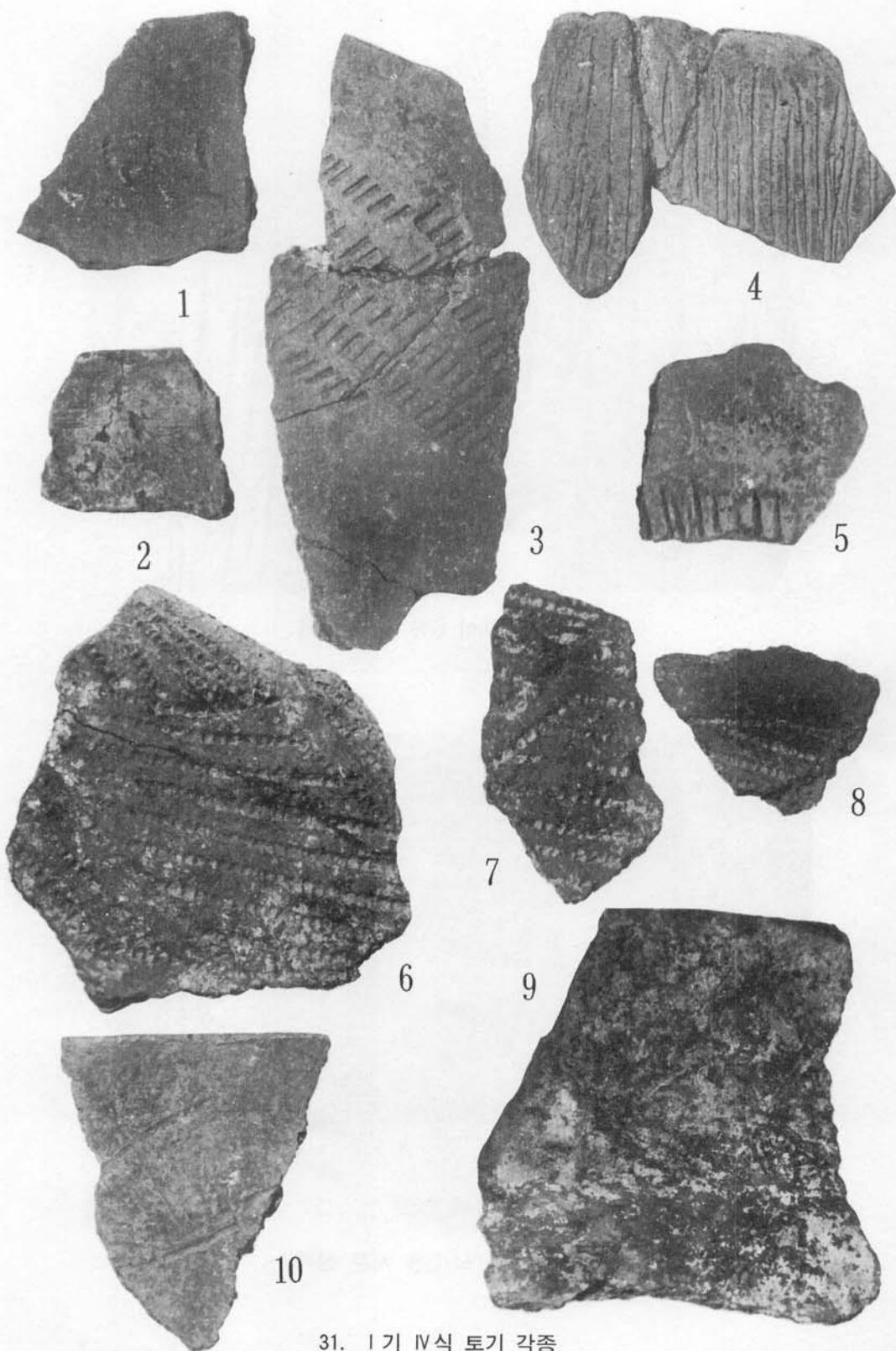


2-2

29. 1기 Ⅲ-1식 토기편



30. 1기 III-2, 3, 4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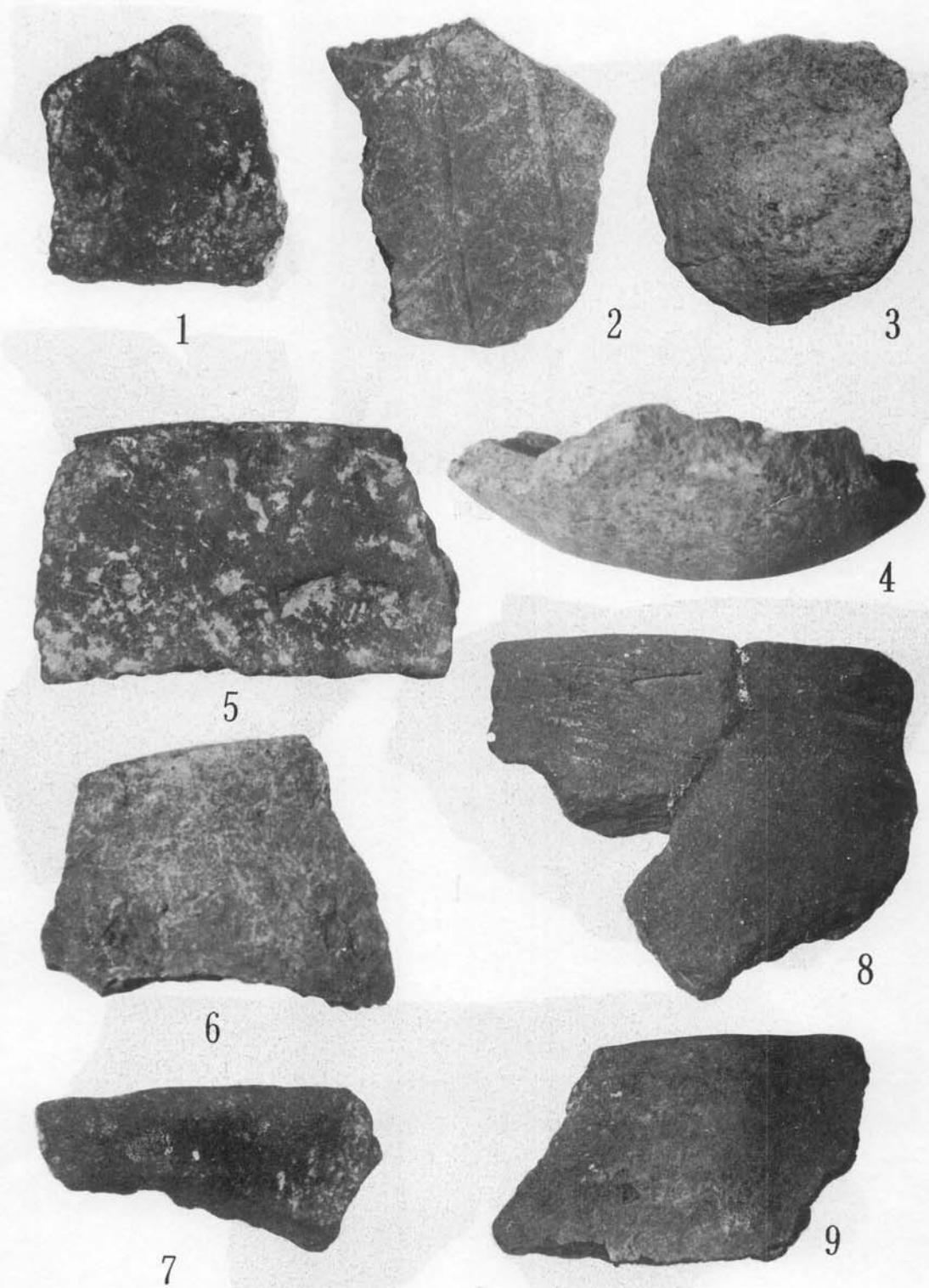
31. I 기 IV식 토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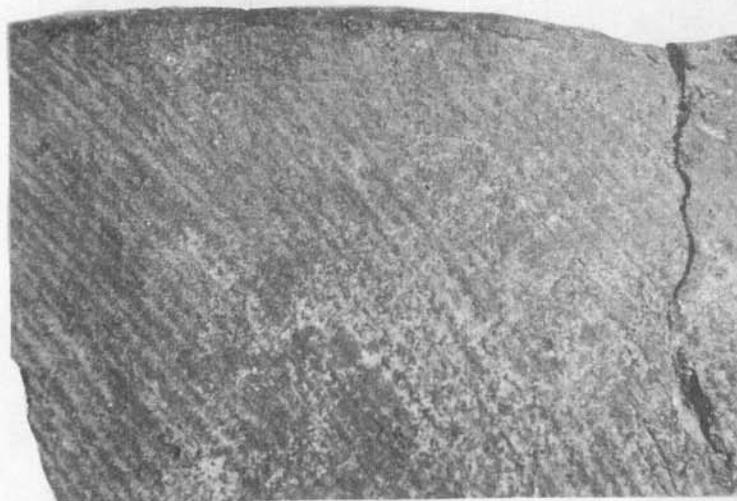
32. I 기 IV식 C류 시문 상태



33. I 기 IV식 D류 시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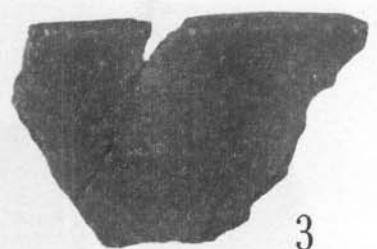
34. I 기 IV, V식 및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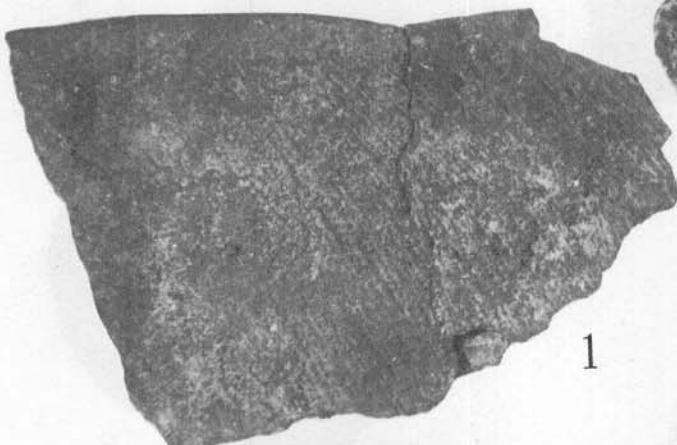
35. I 기 V식 토기 표면 처리 상태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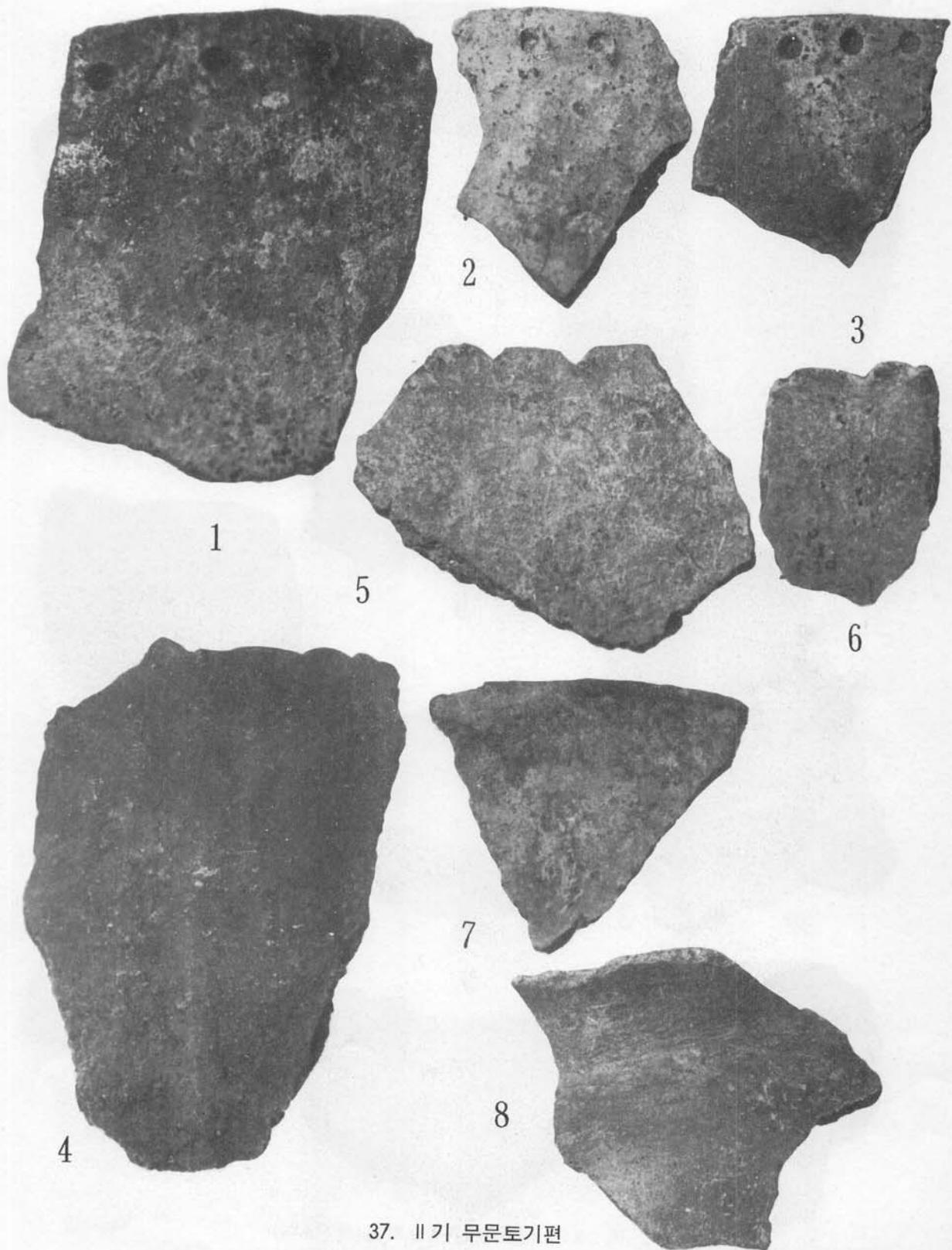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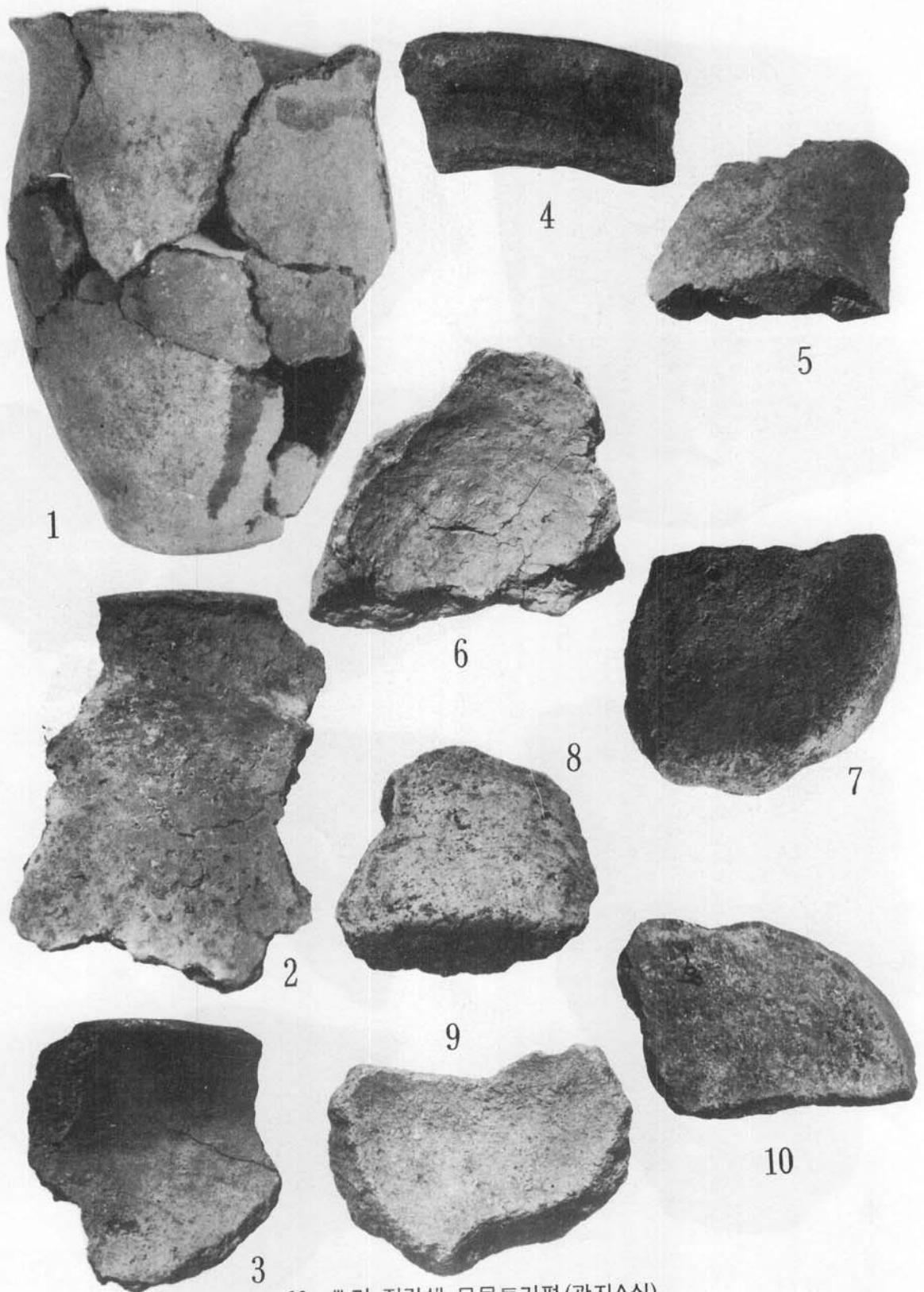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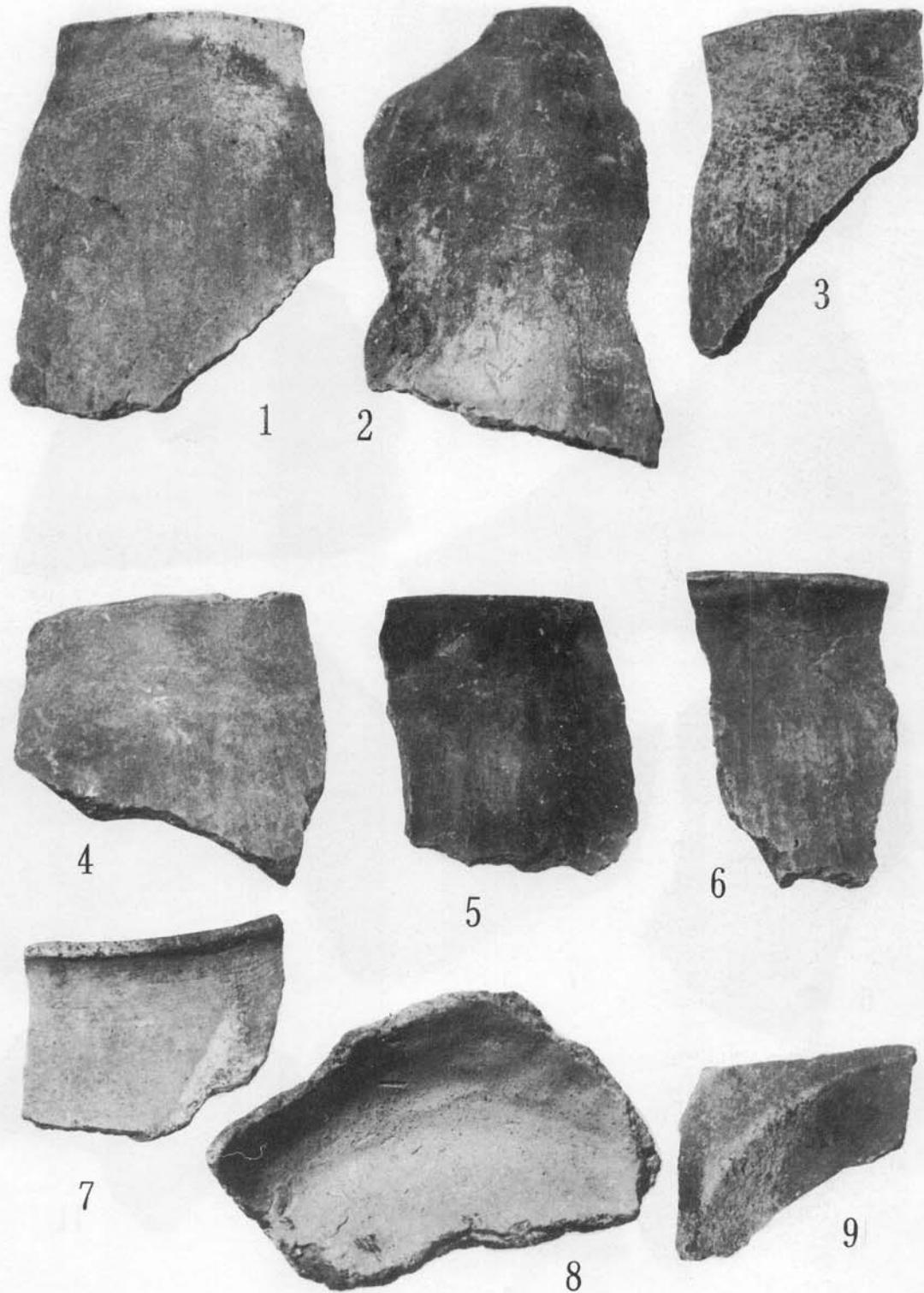
36. I 기 V식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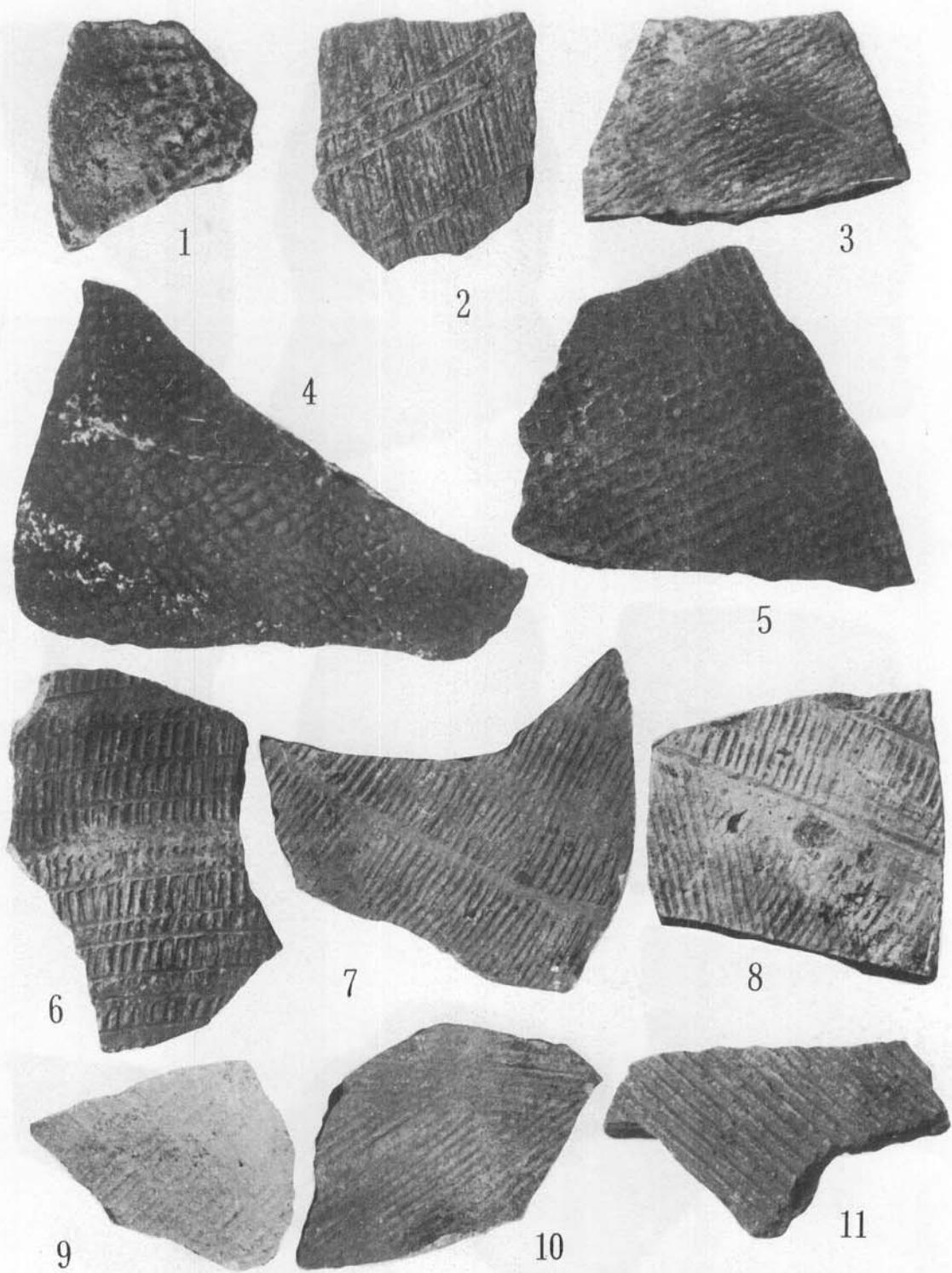
37. II 기 무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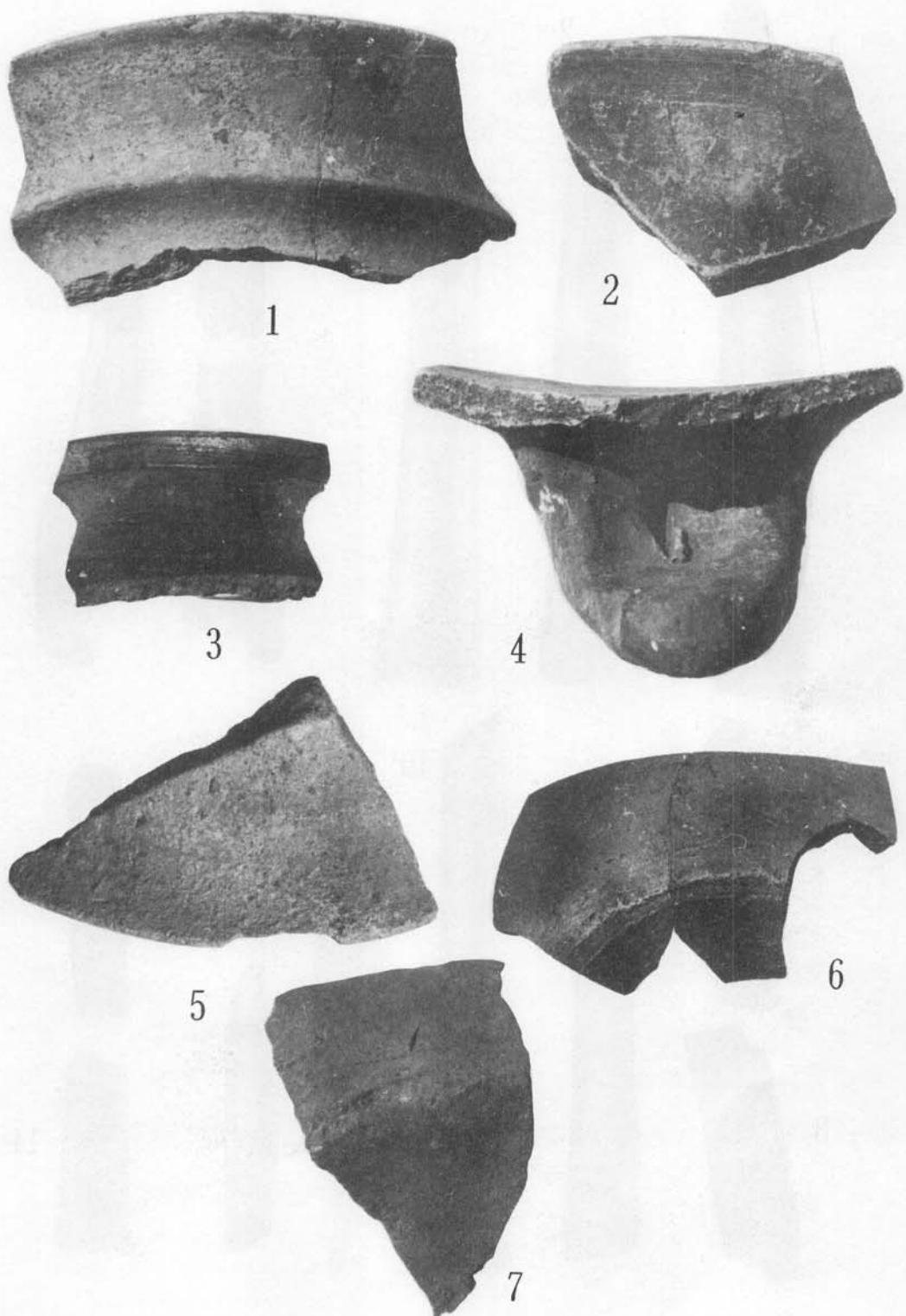
38. Ⅲ 기 적갈색 무문토기편(과자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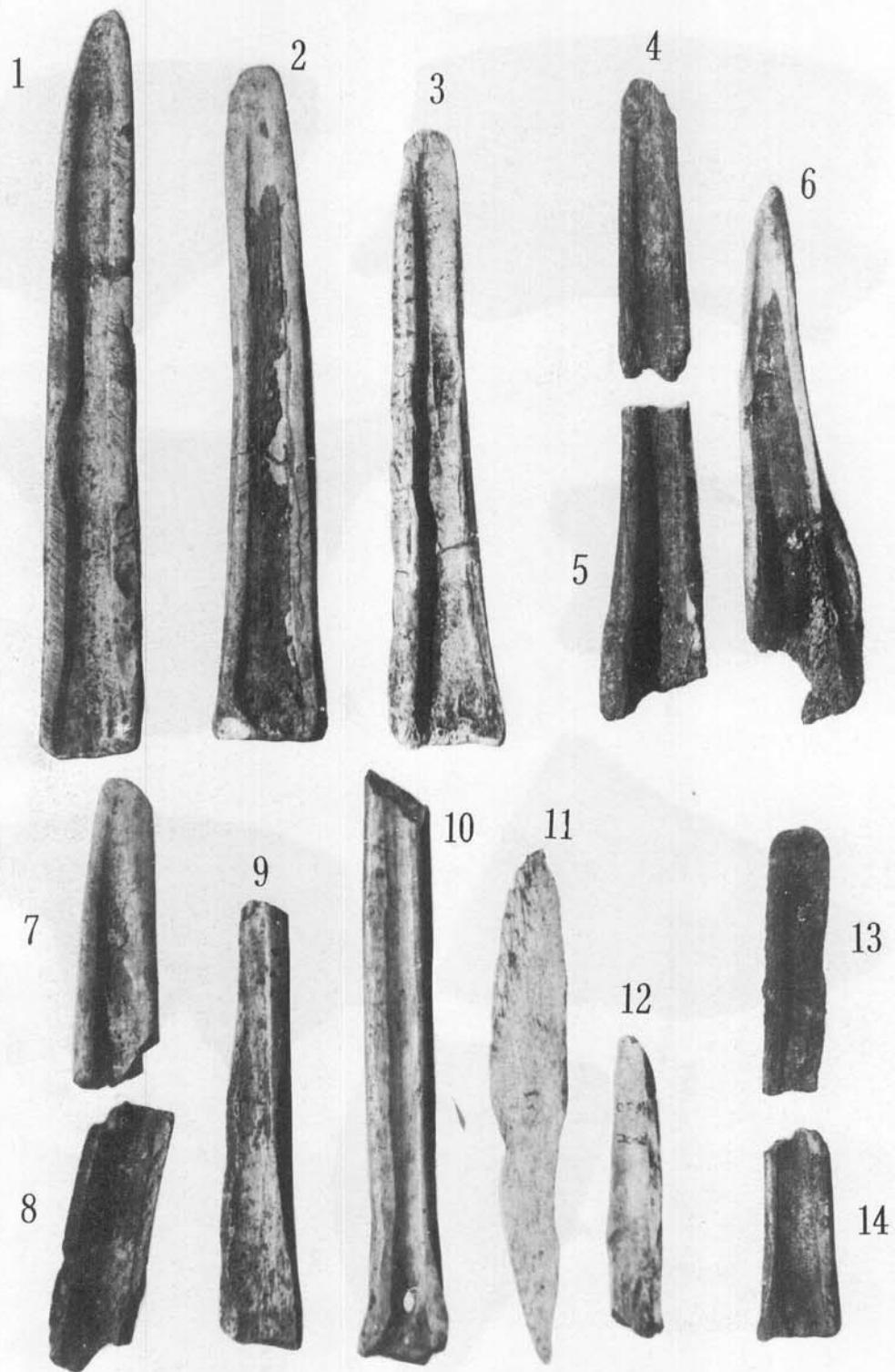
39. IV 기 적갈색 경질토기편(곽지B식)



40. III, IV기 타날무늬토기 동체부편



41. III, IV기 적갈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 및 저부편



42. 1기 골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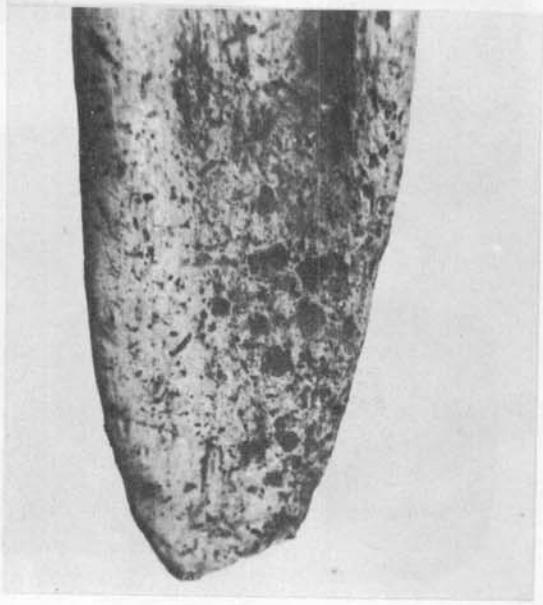
43. 골각기 안쪽 머리부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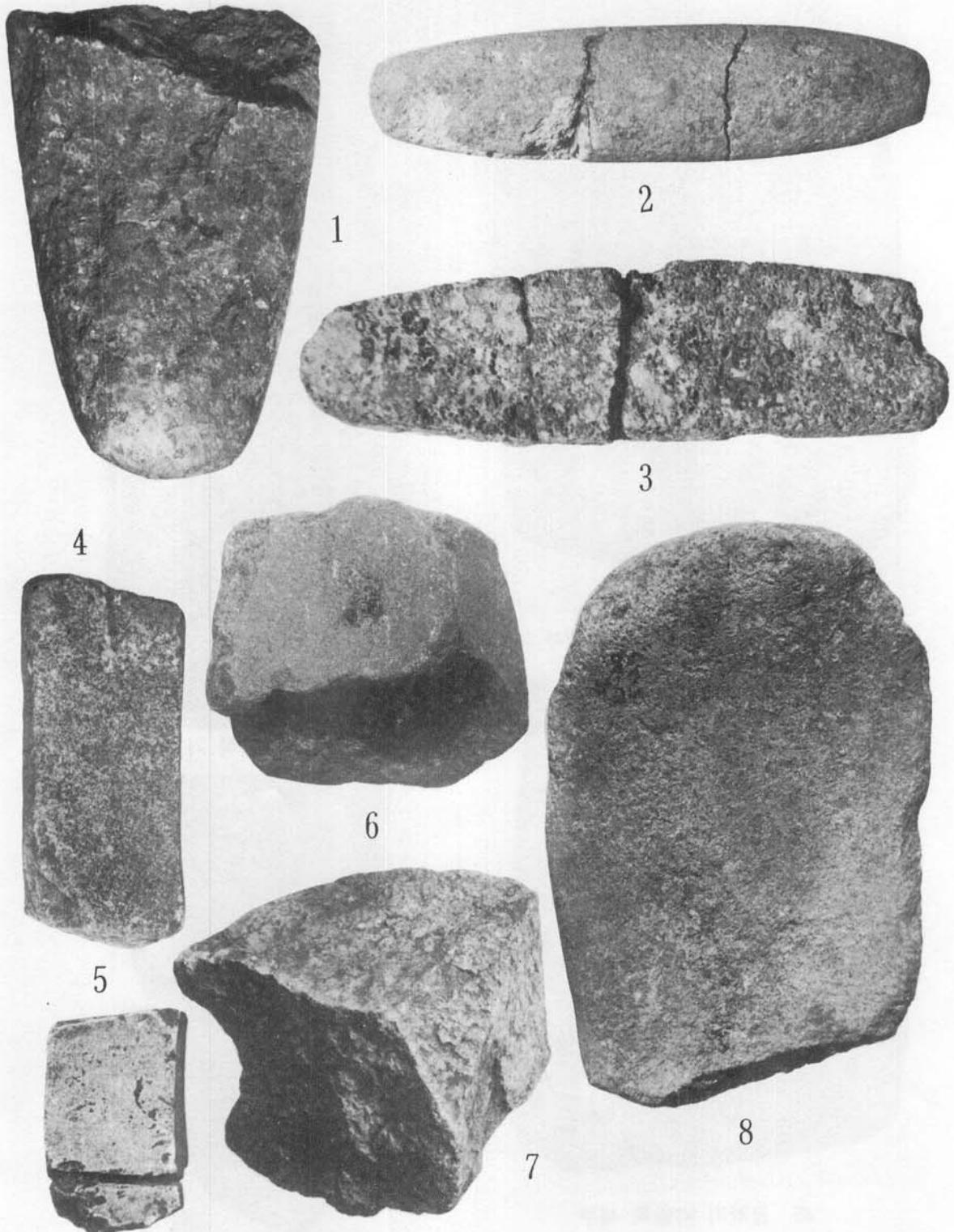
44. 골각기 안쪽 가장자리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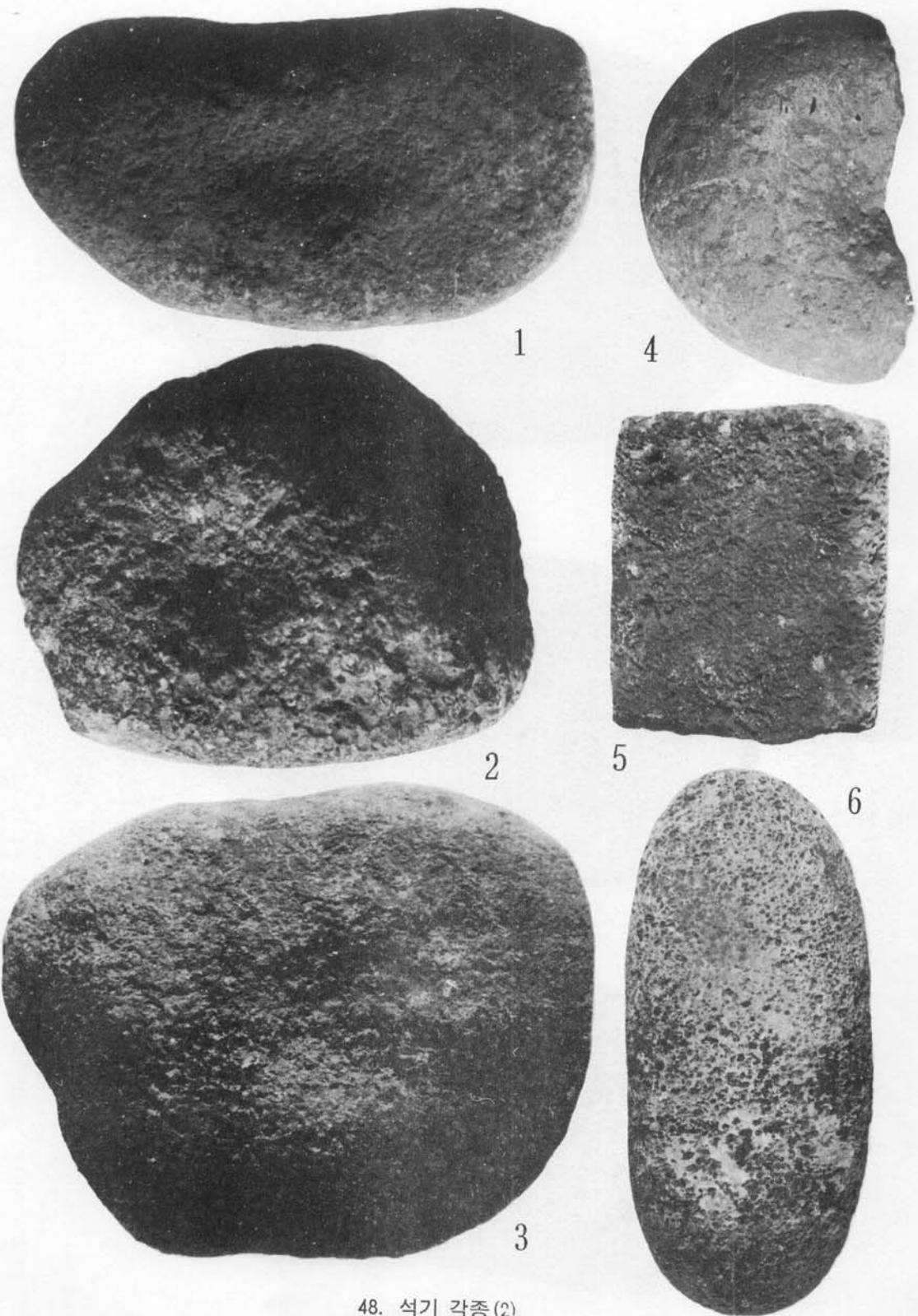
45. 골각기 바깥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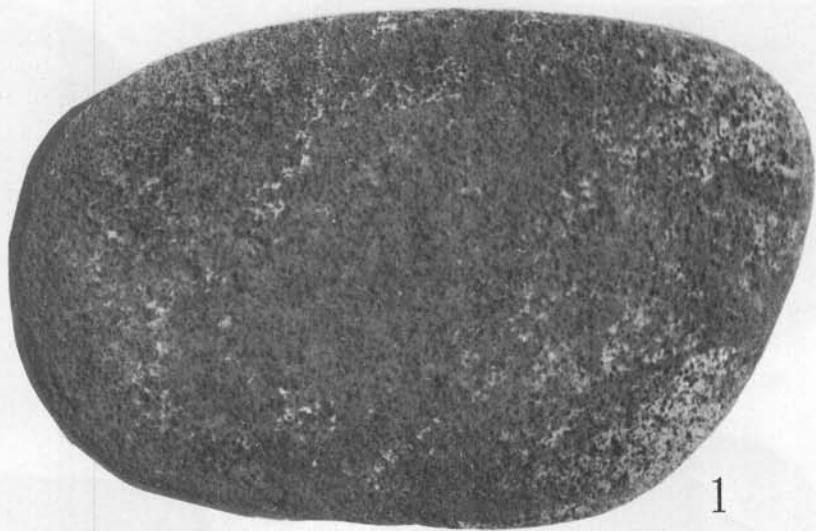
46. 골각기 안쪽 아래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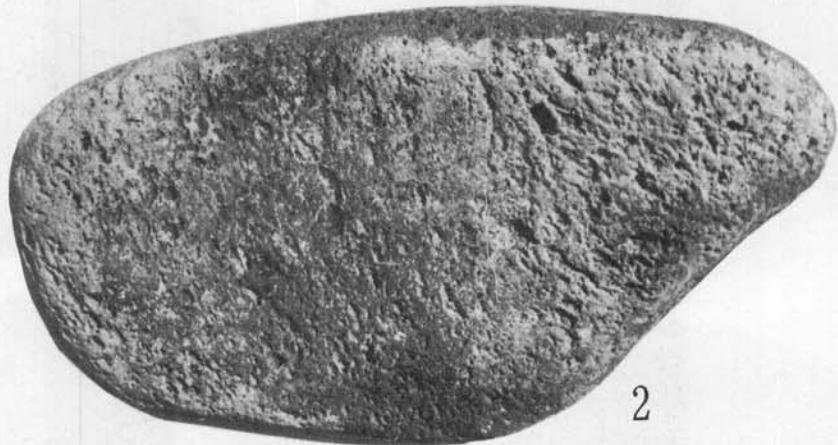
47. 석기 각종(1)



48. 석기 각종(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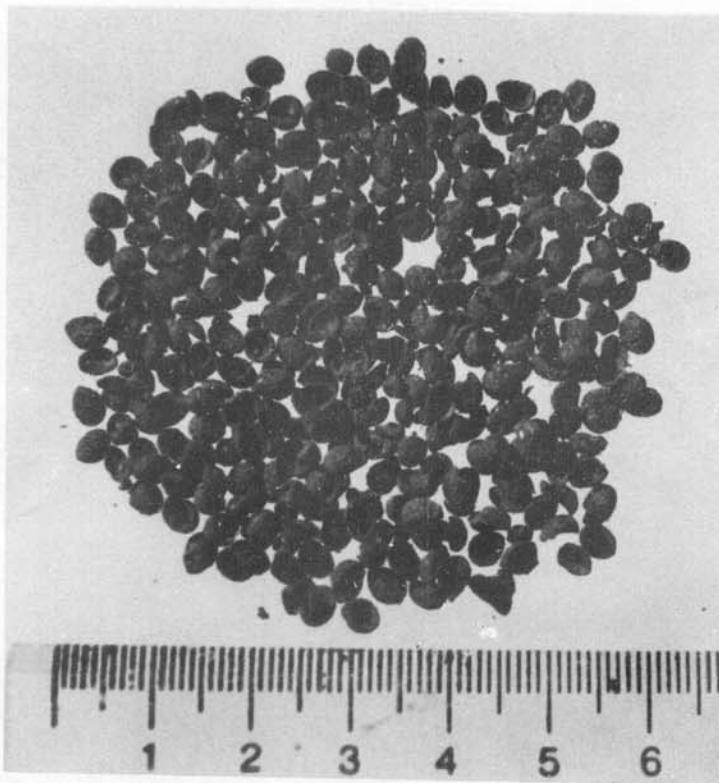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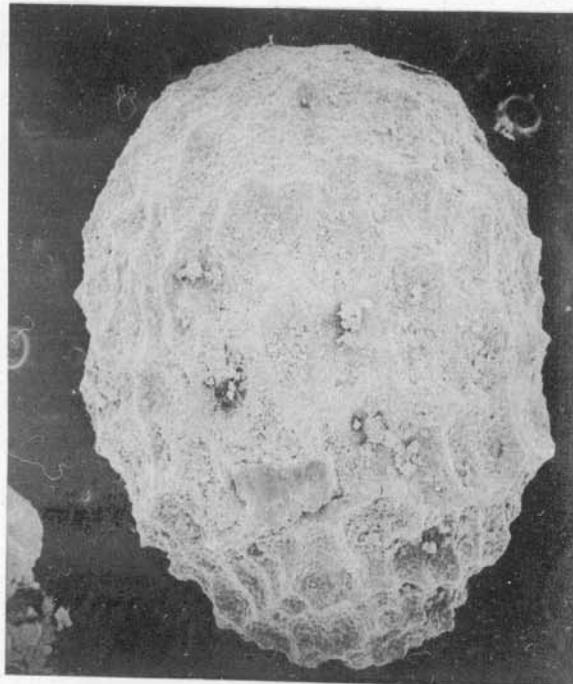


3

49. 석기 각종 (3)



50. 탄화열매



51. 탄화열매 현미경사진 (20배)